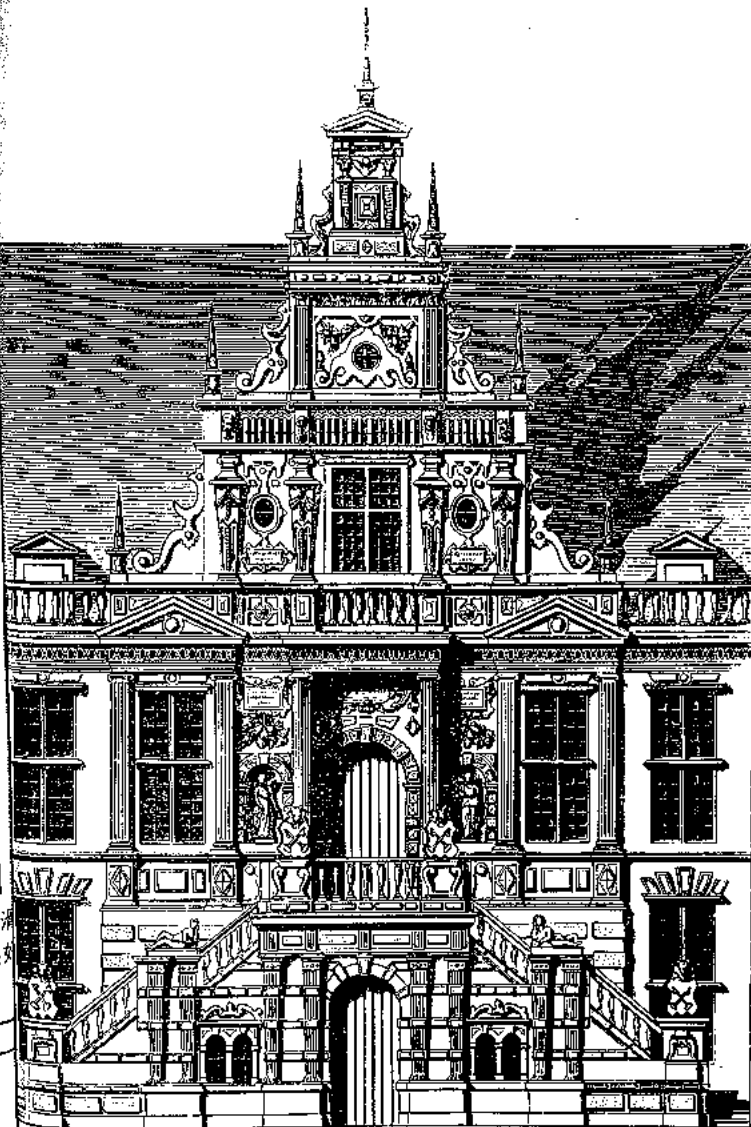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創刊於1955年 創刊號 第1卷第1期 創刊號 第1卷第1期
 發刊於1955年 創刊號 第1卷第1期 創刊號 第1卷第1期

75 6



★ 表面平滑
 , 防音效果良好

용도

칸막이 및
 벽, 전정

전정

층(乙支路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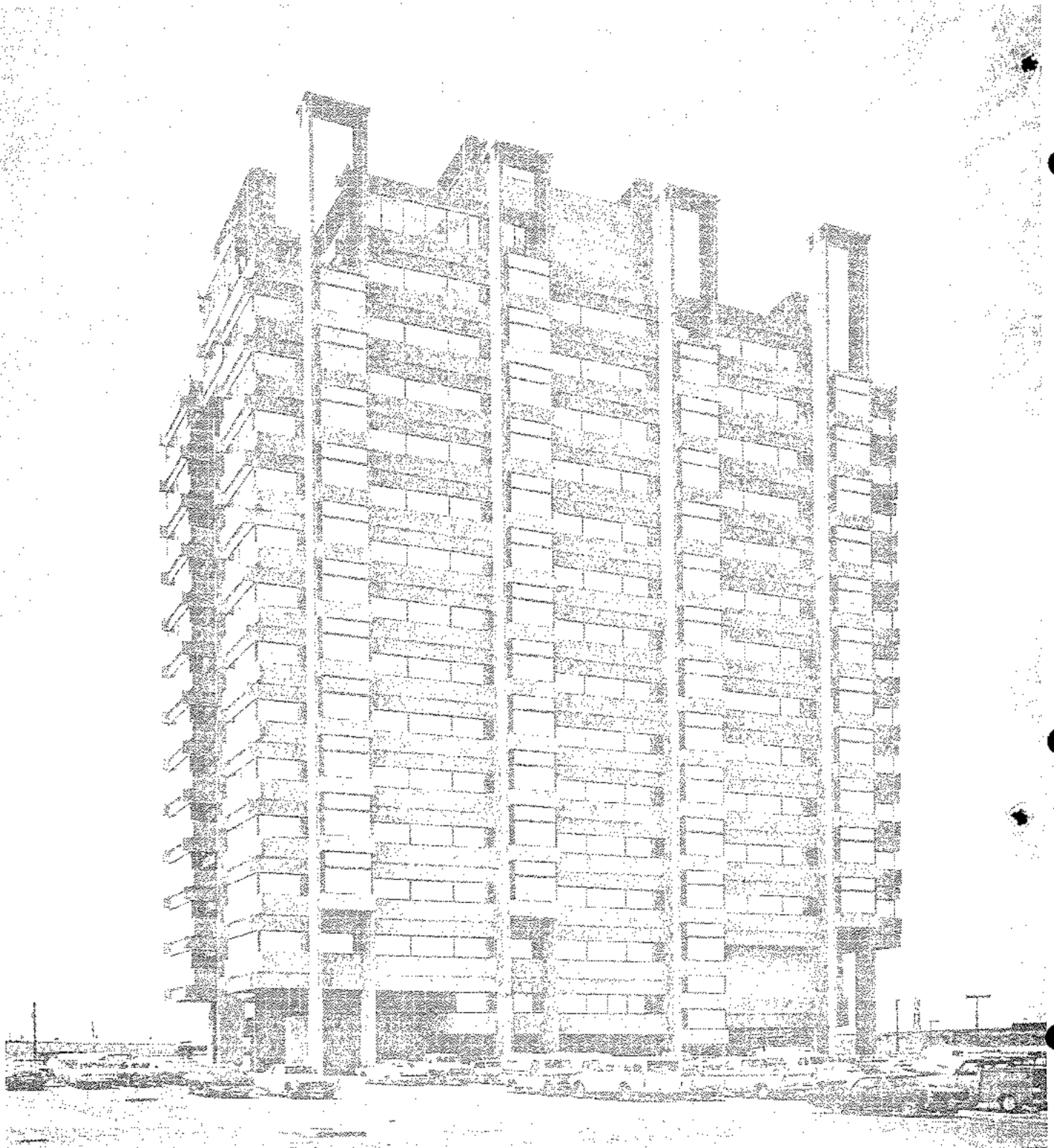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總社：京畿道京畿市 西大門區 西小門路75/電話：93-7141~45
仁川工場：仁川市 寶珠 發布路2 / 電話：仁川 91-0111~0119
釜山工場：釜山南區 釜山 光面路川里 / 電話：釜山 (5) 4086~4070

各國의 建築物들 (씨리즈 I)

※제품안내：맑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유리블록, 관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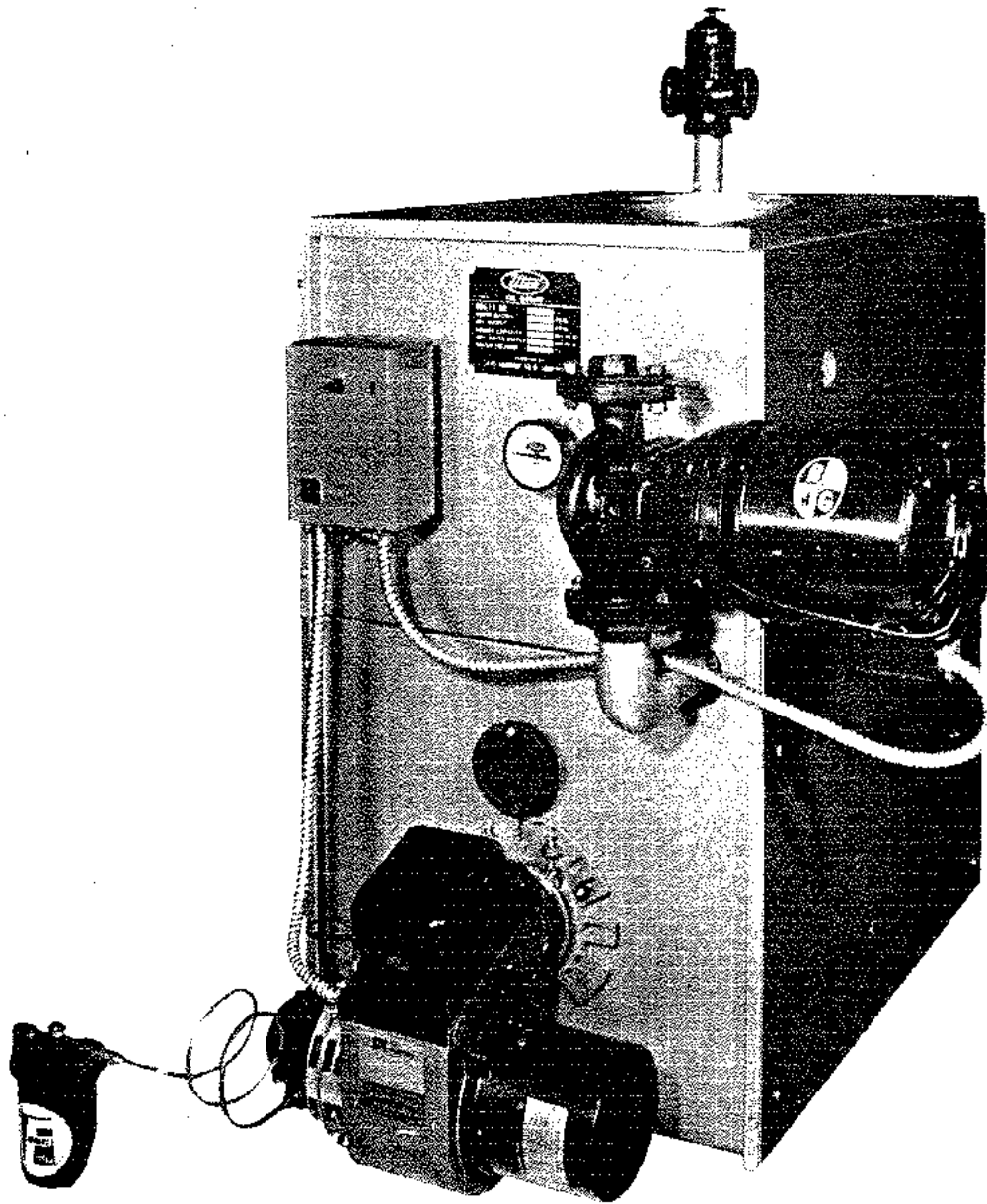
One Brookhollow Plaza, Dallas, Texa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유티카商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建築・土木

技術士(施工・構造)

技士①②級

建築士①②級

土木職・建築職 公務員昇進

測地技士①②級

年中無休

伝統있는 責任講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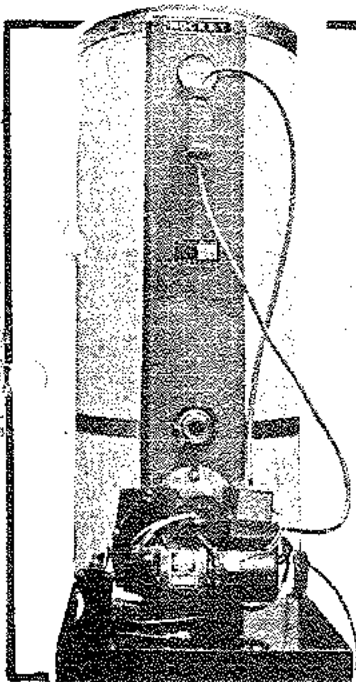
서울市庁뒤 建設協會원 新屋빌딩 5層

現代建設技術学院

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 1가31의20

☎ 72-3166

Rocket Boiler 로켓보일러



* 로켓트 보일러

상공부 · 공업진흥청
제 조 허 가 제 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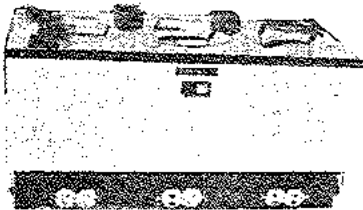
형식승인 제 1-1002-1 호부터
형식승인 제 1-1002-6 호까지

열 효율 87.2%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시험 결과)

* 건축사를 위한 공업진흥청 형식승인 로켓트보일러 특성표 *

ITEM	TYPE	단 위	KR-40	KR-60	KR-80	KR-150	KR-200	KR-300	KR-350	KR-400	KR-500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100,000	150,000	260,000	285,000	320,000	410,000
형식승인번호	Number		1-1002-2	1-1002-1	1-1002-6	1-1002-5	1-1002-4	1-1002-3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	20-30	30-50	60-80	100-150	150-200	200-300	300-350	350-400	400-500
관 수 폭	φ		82.5	122.9	168.6	309	396	624	72.4	820.9	1,400
연료소비량	L/HR		3.7	6.4	8.0	18.4	21	36	38	44.8	56.2
수입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3.5	3.5	3	3	2
배관구경	m/m		50	50	65	75	75	100	100	100	100
연통구경	m/m		150	150	200	200	250	300	300	350	400
바 나	HP		3/4	3/4	3/4	3/4	3/4	3/4	3/4	3/4	3/4
외경치수			A 470	A 540	A 610	A 610	A 780	A 1,000	A 1,200	A 1,400	A 1,600
외경치수			B 800	B 1,150	B 1,280	B 1,800	B 1,750	B 1,850	B 1,850	B 2,000	B 2,250
중 량	kg		300	340	420	480	520	620	680	720	900
제 작 방 법	OIL PRESS 성형제작										
로켓트보일러 이 들 가 격	6월 1일 6월 30일		151,800	189,200	245,150	391,200	458,800	636,000	781,200	952,100	1,057,000

* 로켓트 연탄보일러



* 특 징

- 온수사용
- 난방급탕취사겸용
- 긴 수명 (13년 사용)

* 용 도

- 주택 · 아파트
- 여관 · 병원 등

* 실 적

- 마포 아파트 450세대
- 정동, 외인, 육인 Apt.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연탄보일러 특성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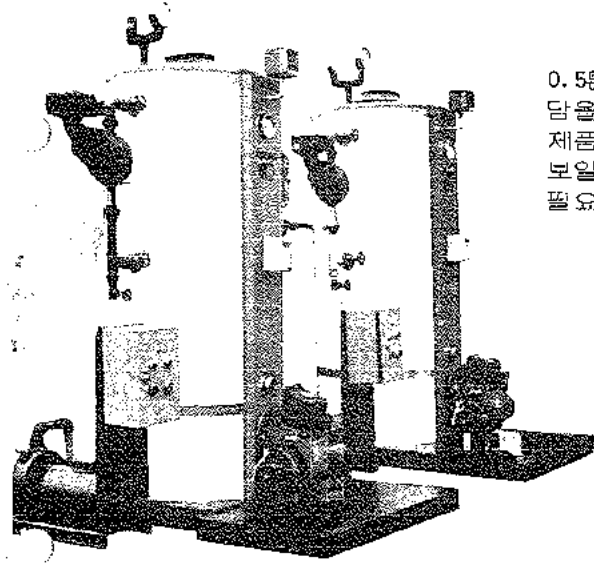
규 격	단 위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3,110	6,220	9,330	12,440
사용연탄	SIZE	19	19	19	19
연 통	INCH	4"	4"	4" X 2	4" X 3
배관구경	mm	32	40	40	50
난방가능면적	㎡	3~4	5~9	12~15	18~20
가 격	6월 1일 6월 30일	41,800	68,200	90,200	123,200

* 로켓트 전 자동증기 발생기

0.5톤 미만의 증기보일러는 1톤이상의 과다한 시설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관리자가 필요없고 안전도가 높은 폐사 제품은 소량 (1톤) 미만의 증기가 필요한 공장등에 적합한 전 자동증기 보일러입니다. 수출직물공장, 전자제품공장, 세탁공장, 건조시설에 필요한 공장 등

* 건축사를 위한 증기발생기 특성표 *

규 격	단위 (UNIT)	URS-150	URS-200	URS-250
발 열 량 CAPACITY	Kcal/H	90,000	120,000	150,000
전열면적 HEATING SURFACE	cm ²	520	715	910
시험압력 TEST PRESS	Kg / m ²	5.25	5.25	5.25
급수시설 WATER SUPPLY SYSTEM	Motor / Power	1 HP	1 HP	1 HP
자동시설 AUTO CONTROL SYSTEM	#	Mc 150#	Mc 150#	Mc 150#
운전방법 OPERATED	ALL AUTO CONTROL SYSTEM			



열 기술의 종합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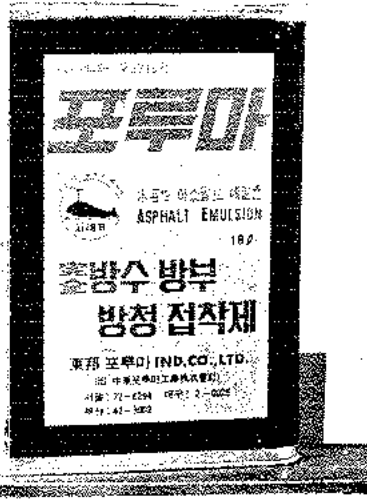
고려강철주식회사

본 사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1 전화 : 66-1363

서울사무소 영업부 : 26-1135-6, 27-9358,

아프터 서비스부 : 27-9358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 (ASPHALT·EMULSION) 시대로!



완전 방수제 동방 포루마

포루마방수 일위대가표 (m² 당)

방수종별 방수개소	3 회 방수공법	P P 망 첨부 특수공법		지 하 실 방 수
		5회공법(P.P망 1회)	8회공법(P.P망 2회)	
벽면, 옥실, 정화조, 물 탱크, 지하실외벽 등		육상, 균열벽면	균 열 옥 상	지 하 실 (1층당)
포 루 마 (KR-3)	243. ⁰⁰	324. ⁰⁰ (4회)	486. ⁰⁰ (6회)	지하실 외벽은 3회 공법적용
포루마止水用(KR-5)				67. ⁵⁰
P. P 망		120. ⁰⁰	241. ⁷²	
포루마시공공임	311. ⁹¹	415. ⁰⁵	624. ⁰³	52. ²⁶
방수증 혼합세멘트				
바 탕 정 리				
공사준비비용				
보 호 울 탈				
소 계	554. ⁹¹	660. ⁷⁴	1,351. ⁷⁵	119. ⁷⁶ (1층당)
공과잡비 (%)				
합 계				
※방수외벽은 2회도장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며, 내벽은 2회도장후 벽지를 붙인다.		포루마(KR-3)는 유연성, 접착력, 내한성 등이 우수하며 P.P망은 인장강도가 강하므로 포루마 5회공법은 아스팔트 8겹 방수의 성능을 능가함.		※수압에 따라 충수가 상이할 포루마 止水用 액체방수 분말방수등과는 달리 강도가나 면서 균열과 모체분리가 없음

1975 年分

포루마 물탈방수
포루마는 수성 아스팔트
임으로 세멘트물탈과 혼
합하여도 100% 방수가
됨

방수실링공사
포루마와 경석용 혼합하
면 신축이 우수하고, 완
벽한 배수가 됨.

스치로폴 접착
스치로폴용 물이고, 스
치로폴용 자체를 방수하
며 스치로폴위에 미정물
탕도 할수 있으므로 스
치로폴을 목상성부로 올
려 단열공수 있음.

포루마 (KR-3) 1회 도장時 1m²당 소요량

명	정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세멘트 혼합시
포루마(KR-3)	0.27	ℓ	300. ⁰⁰	81. ⁰⁰	0.2kg 별도계상

포루마 止水用(KR-5) 1층당 시공비 (1m²당)

포루마 止水用	0.27	ℓ	250. ⁰⁰	67. ⁵⁰	
방 수 공	0.012	인	1,780	21. ³⁶	액체방수폼생기준
인 부	0.03	인	1,030	30. ⁰⁰	"

※바탕정리, 방수증혼합물세멘트, 보호우러는 별도 계상

포루마도장 방수공임 (1m²당 1회)

방 수 공	0.037	인	1,780	65. ⁶⁶	아스팔트폼생기준
인 부	0.037	인	1,030	38. ⁹¹	"

※ 바탕정리 모로터바르는 별도 계상

P. P 망 깔기 (1m² 당 1회)

P. P 망	1.10	m ²	50. ⁰⁰	55. ⁰⁰	중복되문 10%가산
깔기 방수공	0.037	인	1,780	65. ⁶⁶	

※ 깔기 인건비가 포함되었음.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733

부산 : 43-4558

1975. 6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77 호
구입년월일	1975. 6. 30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目次

創立10週年紀念 行事公告	(2)
(論 壇)	
建築士の 本分	(4)
韓国建築의 特性에 對하여	朱 南 哲 (5)
都市組織의 分析과 設計方法	朱 鍾 元 (14)
佛蘭西建築의 어제와 오늘	朴 鼎 成 (9)
韓屋의 歷史와 그 構造	申 榮 勳 (22)
(나의 취미)	
韓画의 멋과 美	趙 子 鼎 (27)
(東南亞 雜行)	
홍콩 · 오사까 · 도쿄紀行 (完)	李 康 範 (32)
西洋建築의 樣式比較 (6) (建物の 立面編)	(38)
航空障礙物 標識設置에 關하여	交通部 서울地方航空管即局管理所 제공 (57)
(金日作品)	
慶州博物館	(이희태건축연구소) 李 喜 泰 (42)
韓獨製藥 醫藥博物館	(농산건축연구소) 朱 寧 伯 (46)

1975年度 國展(建築部門) 入賞作品(1) (49)

(大學建築의 展場)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建築工学科 編

U. I. A. 出品作品 (50)

規格資材使用指針	전 설 부 (54)
WHM屋外附設工事指針	韓電電力(株) (63)
全國建築許可統計(4月分)	전 설 부 (70)
防衛誠金 寄託	(67)
建築界의 一瞥	(73)
大韓建築士協會 寄稿內規	(72)
協會記事	(73)
會員動靜	(74)
月間協會動靜	(76)
編輯後記	(80)

表紙: 西洋建築의 樣式比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丞 雨
委 員	金 仁 錫
	金 昌 瑞
	馬 春 景
	愼 國 範
	俞 景 哲
	尹 道 根
	李 文 輔
	李 廷 德
	韓 鼎 燮

發行人兼 編輯人・韓昌鎮 / 登錄番号・第4-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5年 6月 30日 / 通卷 第77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番地 / 電話・73-9491~2

(非売品)

大韓建築士協會賞 施賞 및 會員作品 展示會 開 催 要 綱

1. 趣 旨

올해는 本協會가 創立10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65年 不過 200餘 會員으로 發足한 本協會는 이제 1,500餘 會員이 모인 長足の 發展相을 보이고 團體의 年輪으로서도 成年期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成長과 發展은 會員여러분들이 其間 온갖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協會를 아끼고 알뜰히 가꾸신 結實인 同時에 全建築界 여러분들이 本協會를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택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本協會에서는 建築界 發展을 加速化하는 하나의 礎石이 될것을 念願하면서 創立10周年紀念行事의 一環으로 會員作品 展示會와 아울러 “學術 및 技術論文” “建築界 發展에 크게 寄與한 業績”과 “優秀한 建築作品”에 對하여 施賞하고자 하오니 많은 應募와 推薦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施賞 및 應募要領

摘要	建 築 作 品	建 築 論 文	作品 論文 以外의 業績
(1) 推 薦 또는 應 募 작 品	1974年以後 主로 國內에 竣工된 建築物의 設計(庭園, 其他 工作物을 包含한다)로서 技術 및 藝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以後에 研究發表된 論文으로서 學術 및 技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以後에 完成된 다음에 該當되는 學術 및 技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業績. ㉠ 施工技術에 關한 것. ㉡ 發明考案에 關한 것. ㉢ 都市計劃과 같은 計劃으로서 價値 있는 것.
(2) 推 薦 應 募 작 品	㉠ 會員이 推薦 또는 應募하는 것 ㉡ 本協會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 建築人으로서 推薦 또는 應募하는 것. ㉡ 本協會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 研究機關, 建築團體 또는 職場에서 推薦하는 것.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3) 出 品 書 및 資 料	㉠ 寫眞 및 主된 圖面과 說明書(圖面은 靑寫眞도 無妨함) ㉡ 審査上 必要할 때는 보다 詳細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 資料의 作成費는 本協會에서 負擔하지 않음.	㉠ 研究論文이 發表된 刊行物 또는 資料(論文은 內容을 간추려 發表한 刊行物도 無妨함)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 業績의 內容이 說明되는 資料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 (4) 接受期間……1975年 7月 1日～1975年 9月 30日
- (5) 接 受 處……本協會 事務處
- (6) 審 查……本協會 理事會에서 推薦依頼한 人士로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한(接受後 審査委員名單 發表)
- (7) 受賞者發表……1975年 10月 10日(受賞者에게 個別 通知하고 本協會傘下 各市道支部와 有關機關에 通報하는 同時 會誌 “建築士”에 發表)
- (8) 施 賞 區 分
- | | |
|---|--|
| <p>Ⅰ. 大韓建築士協會 大賞</p> <p> 建築作品 中 1點……賞牌・金메달</p> <p>Ⅱ. 大韓建築士協會 賞</p> <p> ㉠ 建築作品 中 1點……賞牌・金메달</p> <p> ㉡ 建築論文 中 1篇……賞牌・金메달</p> <p> ㉢ 業績中 1人……賞牌・金메달</p> | <p>Ⅲ. 其 他</p> <p> ㉣ 優秀建築作品 數點……賞牌</p> <p> ㉤ 出品紀念메달：出品 및 応募者 全員</p> <p>※ (大賞 受賞者는 協會賞 受賞對象에서 除外한다.)</p> |
|---|--|
- (9) 施 賞 日……1975年 10月 23日((本協會 創立10周年紀念式席上)
- (10) 出品資料返還……出品圖書 및 資料의 返還을 希望할 때는 追後 定하는 期間內 返還함.

3. 會員建築作品 展示會

- (1) 展 示 對 象……出品된 作品 中 審査委員會에서 選定한 作品
- (2) 展 示 場 所……Ⅰ. 所 址：本協會 會館 1層 展示室
- Ⅱ. 地 方：展示會開催를 希望하는 支部所在地(場所 日時 追後 発表)
- ※其他 詳細한 것은 本協會 및 傘下 各市道支部에 問訊하시기 바람.
- (3) 展 示 期 間
- Ⅰ. 所 址：1975年 10月 15日～10月 30日(16日間)
- Ⅱ. 地 方：1975年 11月 1日～12月 31日(2個月間)

1975. 6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鍾路區瑞麟洞89

電 話 { 74 1045 番
 { 73 9491～2 番

建築士의 本分

우리나라에서 建築士法이 制定되고 施行된지도 위늦긴 하였지만 벌써 年余의 歲月이 경과하고 있다.

建築士法 施行을 前後한 우리나라의 建設分野는 經濟的인 成長과 함께 눈부신 發展을 하였다.

날로 솟아오르는 都市地의 高層建物群이나 全國土로 뻗어나간 高速道路 周邊으로 展開되는 都市, 工場 港灣 등의 急速한 建設과 變貌相을 볼때 놀람기만 하다.

이와같은 雄壯한 產物들이 우리 建設人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生覺할 때 그 一翼을 担當한 建築人으로서 보람과 矜持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事業을 通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經驗하였고 배웠다.

莫大한 資産과 勞力을 要하는 建設工事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우리 建築士의 創意力으로 이루어진 設計로부터 出發되어 그 義務의 重大性和 責任感을 再三 느끼게 한다.

勿論 行政當局이나 建築主들의 올바른 계획과 理解가 必要하고 施工者의 훌륭한 技術과 장비가 갖추어져야만 所期의 完成이 可能하겠지만 建築士의 誠意있는 努力과 能力없는 보다 合理的이고 아름답고 經濟的인 建設을 期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周圍에서는 남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建築物들이 눈에 띄우기 始作하였다.

質的인 發展段階가 우리 建築界에도 到來한 것이다.

建築士 各者들이 建築主로부터 建築物의 設計를 依頼받으면 充分한 資料와 創意力으로 계획하고, 精密한 設計圖를 作成하는데 모든 誠意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그 結果는 建築主가 意圖하는 훌륭한 建築物이 正確한 施工을 거쳐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建築士에 對한 信賴와 設計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一部の 建築士中에는 아직도 本分인 設計 業務보다는 異常한 費-비스競爭에 더 充實하여 建築主로 하여금 남보다 값싼 설계비로 더 신속히 許可手續을 마쳐주는 것이 能力있는 建築士라고 錯覺까지 하게되어 善意의 同僚 建築士들에게 被害를 주는 경우가 많다.

一例를 들면 우리들(建築士)이 만든設計報酬料率 기준은 도의사하고 坪當價格으로 값싸게 거래하는가 하면, 許可手續時 建築主들이 準備할 수 있는 각종 具備書類와 許可免許稅까지도 負擔하여 신속 처리하여 준다는 것이다.

勿論 設計를 충실히 하고도 時間과 熱이 남는다면 이런 過剩奉仕를 탓할리는 없을 것이다.

本分이외의 競爭이나 費-비스는 建築物의 質을 低下시키고 建築士의 社會的 位置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各者의 良心과 反省으로 이와같은 不條理에서 脫皮하고 本分에만 충실하게 될때 明朗한 우리들의 장래는 期約될 것이다.

韓國建築의 特色에 對하여

朱 南 哲

韓國의 傳統的인 建築의 特性이 무엇인가에 對하여, 그 간 수편의 論文이 꼭 同一論題로서 發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커다란 主題를 다루는 가운데, 또는 적은 主題를 다루는 가운데 발표되어 왔다. 이들이 발표되기는 불과 10여년 안팎이고, 이보다 앞서가는 것으로는 몇몇 일본인 학자들의 논문들이 있다. 본인은 建築士誌의 청탁으로, 그간의 발표된 것과 本人이 그동안 생각해 온 바를 종합하여, 論文의 形式을 떠나서, 自由롭게 일단 정리하여 보고저 한다. 따라서 일체의 註와 참고문헌은 밝히지 않는다. 이점 독자와 논문발표자의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다만 이 두서없는 글이 현대건축공간을 창조해 나가시는 建築士 여러분 중의 그 어느 한분에게라도,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며, 삼가 序를 대신한다.

1. 韓國의 建築은 木造架構式構造였다.

우리의 傳統的인 建築은 木造建築으로 일관 되어 온바, 이는 이웃나라인 中國建築과도 같은 바이다. 물론 우리의 建築이 中國의 建築영향으로 이러한 共通點이 이루어졌다 하겠으나, 우리의 木造建築은 中國의 建築과는 相異한 點이 많다. 우선 Scale이 다르고 拱包構成方法 등이 또한 다르다. 기타 수다한 要素들이 다른 관계로 우리의 木造建築은 우리나라대로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의 建築構造가 木造建築으로만 限定되어 온 것은 아니다. 石窟庵이나 石永廟처럼 石造의 Dome과 Vault가 있었고 宋山里古墳에서 처럼 埴에 의한 Dome, Vault構造도 있었다. 또 城門、石橋 등에서 쓰여진 arch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住建築物들인 住宅、宮闕、寺刹、書院 등의 建築構造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고로 우리의 傳統的인 建築은 木造建築인 것이다.

다음 木造建築에 있어서 細部的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大部分의 部材가 이음과 접합에 의하여 못이나 기타의 鐵物使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造와 같은 一體式構造와 다른 特性을 이루고 있다.

2. 모든 建築은 基壇을 形成한다.

一般으로 庶民住宅의 土壇으로 形成된 基壇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두가 花崗石基壇을 形成하고 있다. 적게는 石塔의 基壇이 그것이며, 크게는 宮闕, 寺刹의 基壇이 또한 그것이다. 물론 일단 築台를 쌓고 基壇을 다시 形成하기도 한다. 華嚴寺나 浮石寺 등에서 또 佛國寺에 있어서도 築台를 볼 수 있다.

建築에 있어서 基壇의 形成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古代 그리스도의 parthenon神殿을 위시한 그 많은 神殿들과 Roma時代의 諸神殿 및 宮闕建築, 이것에서 이어지는 그후의 많은 宗教建築들이 그러하다. 최근년에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Utzon이 거대한 基壇部를 形成하지 않았는가?

基壇이 없는 建築은 참으로 삭막하다. 더우기 우리의 木造建築은 人間의 尺度로 形成되었기 때문에 基壇部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품없었을까?

또 築台의 역할도 基壇部만큼이나 重要하다. 만약 佛國寺에서 靑雲, 白雲의 두 石橋로 연결되는 石築部가 빠져 버린다면 그 몇이나 이 佛寺로 다시 와보고 싶어할까?

3. 기둥에는 배흘림과 민흘림이 있다.

韓國의 기둥은 圓形기둥과 四角기둥이 主軸을 이룬다. 단지 亭子같은 特殊한 建築 또는 寺刹의 覺주와 같은 것에서 六角이나 八角을 찾아볼 수 있다.

一般으로 宮闕이나 寺刹 등의 重要한 建築에 있어서는 圓形柱로 構成되며 이 圓形柱에는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 圓筒形기둥이 있다.

배흘림기둥은 Parthenon神殿에서 처럼 Entasis를 둔

것으로 現存遺構로서 추정할 수 있는것은 高麗時代 이전부터 使用되지 않았나 한다. 高麗末의 鳳停寺極樂殿, 浮石寺無量壽殿등은 이의 좋은 實例가 되며 李朝에 이르러서도 無鳥寺極樂殿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배흘림이 나타난 두개의 수직선은 중앙이 들어가 보이는 錯視現像 (Optical Illusion)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민흘림가들은 大部分의 李朝建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기둥의 上部가 下部보다 가는(細)것을 말한다.

円筒形기둥은 上下가 같은 것으로 이는 前述한 바와같이 錯視現像이 일어남으로 우수한 design은 못된다 하겠다.

4. 隅柱의 솟음과 안슬림이 있다.

水平線은 가운데가 척척보이는 錯視現像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를 일부 높게한 parthenon神殿의 錯視現像을 교정한 것과는 반대로, 세일 앞단의 기둥을 솟게 하여, 처마곡선과 調和되게 하였다. 韓國의 木造建築은 불문石塔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또 이는 평면에서도 적용하여 四隅가 직각보다 약간 적은 銳角으로 하여 立体的으로 지붕처마곡선과 조화되도록 한 것은 우수한 design이다.

또 기둥들은 上部를 中心軸을 향하여 약간씩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이런 것은 建築物에 安定感을 주고, 또 建築物의 上部가 밖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錯視現像을 교정한 Parthenon神殿에서와 같은 design이다.

5. 栱包帶가 重要な 視覺要素가 된다.

一般住宅을 除外한 대부분의 建築에 있어서 栱包帶는 重要な 位置를 차지한다. 이는 韓國의 建築이 대부분 柱心包樣式과 多包樣式으로 일관해 왔고, 설사 翼工系의 建築이 있었다 하나 이역시 正面에 있어 큰 부분은 차지함으로써 栱壇, 기둥, 지붕과 더불어 四次의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

6. 처마곡선이 유연하다.

韓國建築의 처마곡선은 유연하여, 日本建築에서 처럼 날카로운 맛이 없다. 이는 지붕을 구성할 때, 平面上 四隅가 돌출하고, 四面의 中央部가 들어갈게 하는것과 지붕 배개의 처마를 틀리게 구성하는데서 이루어 진다.

또한 배개에 이루어지는 석가배의 배열 방법은 日本建築과는 달리 소위 “선자석까래”로서 構成함으로 단절되지 않은 리듬(Rhythm)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처마곡선이 이롭답다 하지만 이것은 용마루의 선과 조화되는데서 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마 곡선에만 力點을 두어 지붕마루의 선을 몰각하는 시례가 많음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7. 검은 기와지붕이 있다.

우리의 건축은 民家の 草家を 제외하고, 또 특수한 靑기와지붕을 例外로 하면 모두가 검은 기와지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등 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붕면이 建築全体에 주는 視覺的 効果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검은 기와의 지붕면은 중요한 것이다.

처마끝부터 용마루까지의 높이는 대략 기단의 5배 정도. 또한 柱高와 栱包帶와의 高를 승한 수치와 비슷하다.

또 지붕은 많은 기와의 골과 마루의 연속으로 강한 垂直성반복에 의한 통일감을 이루어 한층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되고 있다.

8. 박공면이 측면이 된다.

한국의 건축, 이는 특히 東洋系에서는 共通的인 것이지만, 西洋建築이 박공면이 正面이 되는것과는 반대로 박공면은 항상 측면이 된다.

박공면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집은 호두각 집이라 하여 凶家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例外로 景福宮의 慶會樓를 들 수 있다.

박공면이 측면이 되는것은 平面上 또는 空間의 성격상 큰 특징을 이룬다. 즉 内部空間의 깊이가 깊고 횡으로 퍼진것이 되며, 건축물에 어루로취 할때 큰 시각적 비중을 차지 하게 된다. 西洋의 建築에서는 正面의 폭이 좁은데 反해 깊이 있는 内部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9. 正面의 大部分이 窓戶로 처리된다.

現存遺構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우리의 建築은 正面 거의 모두를 窓戶로 처리하고 있다. 浮石寺祖師堂이나, 수리공사를 끝낸 鳳停寺極樂殿등에서 처럼 中央의 戶와 左右의 側窓을 둔 비교적 적은 面積의 窓戶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宮闈의 殿閣, 寺刹, 住宅, 書院 등등의 建築物들은 正面에 거의 全部가 窓戶로 되어 있다.

窓戶의 構成方法은 그 開閉法과 그 살문양에 따라 여러종류로 나누이나, 문제는 이들 窓戶의 살들이 全体 建物形態에 주는 視覺的 效果가 大端히 크다는 것이다.

建築物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창살과 배면의 淸호지와 더불어 하나로서 큰 面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 오지만은 접근함에 따라 섬세한 창살의 構成이 우리의 視野에 들어 오므로서 아가자기한 맛을 더해 준다.

10. 韓國建築의 色彩는 그리 현란하지 않고 온화하다.

韓國建築에 있어 色彩의 적용은 三國史記의 記錄이나 經國大典, 또는 大典會通의 記錄에 나타난 一般民家에서의 制限規定에 따른 결과도 있겠지만, 비교적 현란하지

많은 色彩로 이루어지고 있다.

宮闕建築의 丹青이나, 寺刹建築의 丹青에 있어서도, 기둥 高에 해당되는 部分은 單一色으로 처리되고 木部를 단지, 柱頭 以上 拱包帶에서 여러가지의 色彩와 문양으로 된 丹青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内部空間에 있어서도 拱包帶와 天井部에서 局한 된 同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一般民家와 多數의 一般建築에서는 전혀 丹青을 하지 않음으로서 材料가 가지는 自然스러운 色彩를 보여 준다.

11. 座式生活에 적합한 建築이다.

高句麗의 古墳壁畵나, 舊唐書 등의 記錄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우리의 건축은 古代로부터 座式生活을 위한 構成이었다. 따라서 内部空間의 構成은 坐高를 基準으로 이루어진다. 家具의 높이, 窓戶의 밑인방 높이(문지방) 등이 모두 이에 따라 形成되는 것이다. 또 이는 바닥의 위치가 地로부터 한층 높아야 되는 원인도 되어 기단의 형성과 더불어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자연히 房안에 앉아 굽어보는 庭園을 필요로 하게 된 듯하다. 우리의 大部分의 庭園이 그 속을 소요하는 것 보다는 앉아서 완상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하얀 모래로만 깔린 마당이라는 것도 기실 庭園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정원인 것이다. 樂善齋의 後庭에서 처럼 총총히 화강석으로 난을 쌓아 올라간 것과 여기 저기 새운 煙突과 石蓮池, 귀석함들은 들어 열개로 된 窓戶를 들춰에 매달고, 문지방에 턱을 고이고 앉아 바라보던에서 연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곧 앉아 완상하는 우리의 정원이며 이는 坐式生活에서 오는 특성이다.

12. Positive space와 Negative space의 Alternative Repetition에 의한 空間構成을 하고있다.

우리의 住宅을 예로 들어보자. 사랑채, 안채, 別堂 등을 여기저기 두고, 이 사이 사이는 空牆과 行廊채로 막는다. 이로써 Positive space가 된 채와 이주위의 Negative Space, 다시 이를 둘러싼 空牆과 行廊채로 이루어지는 Positive space, 또 이 주위의 Negative space.이 처럼, Positive Space와 Negative space의 교차반복으로서 全体空間은 構成된다. 이는 비단 住宅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宮闕, 書院, 佛寺 등 대부분의 建築空間이 그렇다.

또한 이와같은 構成은 空間의 變化와 연속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하나의 큰공간에서, 작은공간으로 다시 작은공간에서 큰공간으로, 공간은 연속되면서 어두워질때의 변화는 공간인지에 커다란 흥미를 준다.

부석사나 봉정사를 보자, 이들은 멀리서 전체가 보인

후 가까이 이르러 樓門이 보이고 또 樓門의 밑 좁은 空間을 빠져나가면, 큰 空間이 다시 전개된다. 또 法住寺나 通度寺에서 처럼 멀리 一柱門을 바라보며, 접근하여 이를 지나면 다시 天王門이 나타나고 이를 지나 捌相殿, 그리고 보다 장대한 大雄寶殿, 이처럼 韓國의 建築空間은 작은 空間과 큰 空間의 교차, 空間情緒의 변화와 空間의 연속적인 흐름에 그 特色이 있다.

13. 어떠한 中心軸을 고려한다.

韓國建築의 配置計劃에 있어 非可視的인 어떤 中心軸을 基本으로 建築한다고 하는 것은 적으나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特性이다.

이의 시발은 어느때인지 확연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高句麗 小獸林王 2年(AD372) 이후로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淸岩里建築址의 配置計劃으로서 이는 中國의 天文五行思想에 연유된 것이 있다.

즉 南北을 主軸으로 中央에 8角形의 佛塔址가 있고 그 東西南北에 各各 建物の 方形基壇이 발견되었다. 이 특이한 配置는 바로 漢代의 天文占星思想에서 유래한 것이며 「史記」의 「天官書」에 나타나 있는 五星座가 黃道를 中心으로 하여 東西南北에 各各 東宮, 西宮, 北宮이 配置된 후 北側에 中宮이 또한 配置된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軸을 中心으로 配置計劃하는 方法은 百濟, 新羅에 이른다. 그것은 百濟軍守里寺址나 新羅의 皇龍寺址 芬皇寺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三國時代의 이러한 어떤 中心軸에 對한 要素는 高麗에도 계승되어 開城의 滿月臺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李朝의 開國과 더불어 漢陽의 開都에 있어서도 분명히 景福宮을 있는 南北의 主軸과 이와 直交되는 現鍾路를 中心으로 都市計劃을 하였고 적게는 景福宮 自体만 하더라도 南北을 主軸으로 重要한 殿閣들을 配置한 것을 알 수 있다.

李朝時代에는 비단 王宮만이 아니고 많은 佛寺나, 學校, 書院 등등에서도 中心되는 主軸과 이와 直交되는 副軸을 中心으로 配置計劃을 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또 住宅에 있어서도 뚜렷한 主軸은 없다 하더라도 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配置計劃上의 어떤 中心軸이 곧 그 建築配置의 對稱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韓國建築의 配置는 오히려 非對稱的인데 특징이 있다. 非對稱的이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 소위 Unsymmetrical Balance를 이루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만이 아니고 거의 세계적으로 配置計劃에는 어떤 軸이 中心이 된다하여 이것이 우리 韓國의 特性이 될 수 없다 하여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共通의인 特性인 것이다.

14. 自然과 調和되는 空間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中國의 天文五行思想에 연유된 어떤 中心軸의 形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建築은 風水地理思想에 依하여 配置計劃하였었다.

風水地理思想은 新羅末期에 매두된 것으로 韓國에 있어서 元祖는 道詵禪師(826~898)로 알려져 있다. 道詵은 唐末 一行禪師가 形成한 中國의 堪輿說과 한국고래의 사마니즘의 占定要素, 佛敎의 善根功德思想, 道敎의 陰陽五行思想등을 결합 소위 風水圖讖說을 이루었다. 이 思想은 高麗의 王都選定은 물론 李朝의 王都選定과 허다한 建築配置 및 모지선택에 까지 뿌리깊게 作用하여 왔다.

이는 미신적인 요소도 있다 하겠으나 근본사상은 自然과의 調和에 뜻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思想이 韓國人의 意識構造에 깊이 뿌리박힌 결과인지 몰라도 모든 建築의 配置가 이를 두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先人들이 읊은 時調에서도 自然과의 調和를 꾀한것을 알 수 있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가 한칸을 지어내니
반간은 청풍이요, 반간은 명월이라.
청산은 드릴데 없으니 불러놓고 보리라.

이 時調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李朝人들은 비록 초가한 칸일망정 바람소리와 달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에 멀리 보이는 푸른산은 하나의 큰 自然景觀으로 조망하고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自然과의 調和는 韓國窓戶가 이론 特質에서 오기도 한다. 韓國의 窓戶는 울거미와 살을 잔후, 窓戶紙를 房안쪽으로 바름으로서 光과 音의 은은한 投影을 이룬다.

집앞 넓은 마당에는 큰 느티가 있어 한여름 매미를 부르고, 뿔뜨락 감나무는 까치를 불러, 조용한 室內를 울려 주고 窓앞에 심은 벽오동은 괴괴한 달밤에 하얀 창호지 위에 그림자를 던져 한쪽의 묵화를 이룬다. 그리고, 고요한 밤 처마끝 낙수소리는 적막을 안겨다 준다.

또 우리 先人들은 들어열게라고 하는 독특한 窓戶의 開閉法으로 自然과의 調和를 꾀하였다. 前述한 바와같이 座式生活에 적합한 우리의 바닥(床)은 地面보다 한층 높임으로서 大地와의 分離가 이루어지나, 窓戶를 들어 열개로 들쇠에 매달므로서 自然空間과 人工空間과는 쉽게 同和되는 것이다.

이상의 自然과의 調和는 日本의 庭園에 있어 造山, 造水로 자연을 축소하여 人工自然을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結語

이상으로 우리 韓國建築의 特性을 두서없이 생각하여 보았다. 이 韓國建築의 特性은 곧 우리 韓國建築의 傳統性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韓國傳統性계승과 표현에 대한 方法論 모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끝으로 본고 이외에도 學界 여러분의 새로운 特性 발굴과 기탄없는 論議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團合된 國民의 모습으로
北傀의 野慾을 事前 封鎖하자

仏蘭西建築의 어제와 오늘

L'Architecture d'hier et d'aujourd'hui e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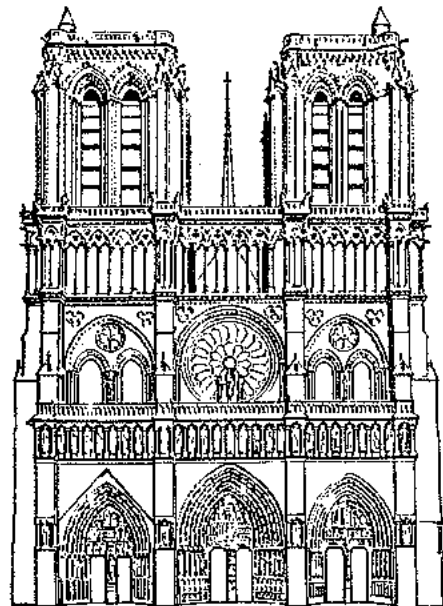
朴 胤 成

여기서 佛蘭西建築을 생각함에 있어서 建築作品을 하나 하나 列挙하면서 有名한 建築家와 作品을 為主로 하는 建築家 相의 어제와 오늘의 變遷過程을 論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建築實現을 위한 一般的이고도 共通的인 問題에 대하여 建築家들의 職業的인 尺度와 建築生産方式에 따르는 建築家의 活動半徑이 如何하였던가에 對하여 過去와 現在의 姿勢를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르는 將次的 建築家を 育成하는 教育의 方向을 어떻게 模索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그 焦點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勿論 이 글은 主로 Paris의 五年制 建築大學에서 發刊한 1974~1975年度版의 관프렛트와 其他 參考文獻에 의거하면서 本人이 佛蘭西에서 經驗하고 느낀 小感도 아울러서 加味시키면서 이 글을 展開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建築狂과 建築家

우리가 Paris를 中心으로 하는 佛蘭西旅行을 통하여 보면 數 많은 石造의 教會堂 및 城館(Château)의 記念建築을 巡訪하게 되는 것이 觀光코오스의 依例之事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古風어린 石造의 教會建築들은 中世紀에 이미 數百萬 Ton의 돌을 採掘하여 약 600個所의 大聖堂과 大教會堂建築들을 建立한 것으로 그 石造建築의 Boom은 中世紀에 이룬 것이 建築歷史를 통하여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이나 더욱이 佛蘭西의 都市나 地方을 막론하고 周圍에 石山을 손쉽게 發見할 수도 없는 곳에 石造建物이 發達되고 있는 것과 좋은 對照는 우리 韓國의 경우 서울을 爲始하여 地方어디서나 周圍에 石山을 얼마든지 發見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木造建物만이 歷史的遺物로 남겼다는 現象은 웃어서 넘길수 없는 ironical한 事實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建築을 專攻하고 建築活動을 專門적으로 하는 愛稱으로서 所謂 建築家(Architecte)라고 부르는 것이 一般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나 職業的인 建築家란 愛稱以前에 Batisseur라는 말은 冊字를 통하여 筆者: 高麗大學校 教授, 工學部千



석조전축인 노트르담寺院

다던가 現場에서도 곧잘 들을 수 있는 낱말로서 中世紀로부터 使用하여 온 建築에 從事하는 사람의 뜻인 것이다. 이것은 아주 興味있는 말로서 이것을 辭典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建築狂”이라는 뜻인 것이다. 이것은 勿論 宗教的인 修道者團體의 發展과 그 教會歷史와 密接하게 連結되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過去의 佛蘭西의 石造建築을 計劃하고 設計하고 建立한다는 過程에서 完全히 建築에 대하여 미치광이가 되어 宗教的인 信仰과 더불어 일에 熱中하여 奉仕를 한다는 見地에서 나온 말로서 建築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熱中한다는 것이 얼마나 多幸한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所謂 부르고 있는 建築家라는 이 自体도 奉仕活動을하여 社会的인 待接을 받는 것이 爲主이나 어 더까지나 이 建築家라는 것이 하나의 職業的인 性格을 띠고 있고 職業的인 面을 無視하고 옛 修道者와 같이 奉仕만을 생각하기는 어려운것임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建築을 專門으로 하는 建築家들이 自己들의 社会的인 位置를 옹호하기 위하여 性格的으로 다른 建築家協會를 各己 構成

사키에서 各自의 다른 見解와 利益을 保障하기 위하여 成立시키어 오고 있었던 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1940年 12月 31日 佛蘭西의 Ecole des Beaux Arts出身들이 構成한 協會에 의하여 建築家들이 提唱한것을 Bordeaux의 建築家協議會議에서 採択한 Guadet의 規準은 建築家の 職業的인 義務를 文書로 作成하여 法的으로 規定지은 것으로서 하나의 建築家活動에 特記的인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法的인 規準의 精神은 어디까지나 社會의 支配的이고 指導的인 位置에 있는 階層에 의하여 建築家가 遂行해야 할 職業的인 義務를 지닌 規準의 設定이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價値있는 體系에서 適切하게 需要請한 것이었다.

建築家の 職業的인 過去の 諸尺度

Guadet의 法的인 規準은 恒常 建築가들에게 勇氣를 북돋아 줌으로서 建築家로서의 하나의 自由로운 職業을 行使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建築活動을 통한 모든 建築技術者들에게 까지도 역시 就業의 獨立性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建築家の 活動은 建築主에 대한 奉仕가 생겨서 나고 이러한 奉仕的인 活動은 本質的으로 興味로 왔고 道德的으로도 깨끗한 것이었고, 여기에 對한 對價는 贈與의 形式으로 이루어졌으며 建築主가 建築家에게 주는 謝禮는 어디까지나 奉仕에 對한 充分한 感謝의 表示로서 履行되어온 것이었다. 따라서 建築家の 社會的인 位置는 社會的인 尺度에서 볼 때 嚴然히 社會의 特權的인 水準에 位置하고 있는 傾向을 造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建築家の 活動은 都市의 創造的인 役割을 主導하는 큰 貢獻을 하여왔고 建築家の 活動이 또한 社會的인 奉仕라는 概念에 親密하게 密着되어 온 것이다. 더욱이 建築家가 한件의 作品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짓기 前에 새로운 注文에 應하지 않는다는 것도 Guadet의 原則에 附屬한 것이다.

그리고 建築家들이 過去の 모든 活動에 대한 關心事를 重要視하고 늘 過去の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過去보다도 더욱 現在를 더 나아가서는 將來에 대하여 自己의 職業的인 옹호를 갖기위한 關心을 갖는다는데에 重要性이 있는 것이었다. 또한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무엇이며 果然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共通的이고 一般的으로 存在하느냐 하는 問題點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共通的이고 一般的인 建築家の 理想型이 그 實現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構想이 現實과 一致하느냐 하는 問題點 그리고 이것이 時代的인 要求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도 提起되게 되는 것이다.

建築家들의 活動이 公的이고 奉仕的인 觀念이 建築家들의 職業的인 옹호에 대하여 항상 強烈한 偏見으로 作用되어서 規定지을려고 하고 番番히 公的인 觀念이 職業的인 옹호를 壓倒하며 더 나아가서는 職業的인 萎縮이 招來하여온 事實에 本質的이고도 道德的인 立場에서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如何히 斷定지워져야하고 理想化 되어야 하느냐 하는데에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의 새로운 生産方式과 建築家

建築以外的 科學的인 分野 技術的인 分野 人文科學的인 分野등의 모든 分野가 急進的으로 變遷하여가고 發展하고 있는 現時期에 建築만이 過去の 것을 固守할 수 있는 境地에 놓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急速度的 變遷過程은 建築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 最近에도 建築生産에 있어서 過去の 여러가지 斷片的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建築의 生産方式이 오늘날 本質的으로 그 樣相이 過去の 方式과 다른 方向으로 進行되어 가고 있는 現象을 看過시킬 수는 또 한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社會人들의 建築에 대한 科學的인 知識의 向上과 現代的인 技術을 驅使하고 새로운 建築材料의 出現과 새로운 建築工事方式의 開發에 의하여 社會學的인 人間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하여 항상 建築의 居住性을 向上시키고 建築의 耐久性과 安定性을 促進시키어서 建築을 優秀하게 이끄러 가는데에 있어서 항상 經濟性을 考慮한 技術的인 解決을 圖謀하는데에 建築生産方式의 現代的인 使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建築의 生産方式에 따르는 建築家들의 새로운 方向性을 몇가지 事項을 設定하여 생각해 보면 아래와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建築生産工場의 一例

即:

萬若 個別的인 建築家가 個人的으로 要請하는 한 손님을 위하여 일을하고 Guadet의 規準을 위한 그의 일이 本質的이었다고 생각되는 奉仕를 行하고 아직도 이런 方式이 尙存한다고 하면, 이 손님은 반드시 作家는 不明이나 建築을 위한 大規模的인 組織團體나 國家的인 機關을 對象으로 하여 일을 부탁하고 때로는 經驗없는 建築人口의 一部分의 이름으로도 自己일의 效果를 거두기위해서 일의 要請을 試圖할 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萬若 在來와같은 建築家와 建設業者의 關係가 Guadet 時代와 같이 다시 存在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한 建築의 生産方式은 많은 複合性에 招來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建築의 産業化는 積極的으로 推進이 될 것이고, 프레화부 建築도 상당히 發達할 것이고, 財政的인 組織이 建築分野에 대하여도 많은 調停役割을 할 것이고, 財政分野의 參與度는 上昇될 것이고, 過去에 경험하지 못한 技術的인 部門의 集團的인 參與도 점점 많이 誕生하여 갈 것이다. 이에따라서 建築家의 役割은 自然的으로 建築全體의 部分에서 極히 한 部分만을 担當하게 되어갈 것이고, 여기에 또한 建築家의 役割이 建築에 있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指揮者와도 같은 位置를 굳히고 싶은 마음이 Howe sick하게 항상 主張되고 要求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建築家의 活動半徑이 萎縮되고 점점 建築家의 活動은 異議를 품게되어 갈 것이다.

萬若 建築이 技術的인 知識을 가지고 創意性和 連結되는 活動이 尚存하고, 建築이 가지고 있는 主目的을 怠慢히 하지 않고 그 役割을 充分히 이행한다고 하면, 建築은 여러分野안에서 予想되는 科學的인 嚴密性으로 代置시키는 正確한 諸般科學의 知識의 寄與에 대하여 그 利益이 점점 높아 갈 것이다.

萬若 獨立된 建物에 대한 概念이 工事計劃推進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建築家들을 위한 本質的인 職業的인 活動을 固定시킬수있게 存在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都市와 農村사이에 놓여진 前後關係속에서 合理的인 建築生産의 效果的인 導入이 될 것이고, 地域計劃과 環境計劃의 諸問題들을 經濟的으로, 社會的으로 地理的으로, 社會生態學的인 見地에서도 다같이생각할 수 있고, 建築이라는 테두리속에서의 創造性을 갖게하기 위하여 協力을 하는 活動體制의 構成을 하는 것이 점점 하나의 重要한 部分이 될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結局 果然 누가 이 建築의 甚한 作業을 時代的인 概念을 넘어서 深에서, 社會的인 概念을 넘어서 狀況에서 그리고 政治的인 面을 넘어서 狀況에서 다시 建築家を 맡게하고 이일을 이끌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次로 建築家들을 歷史家로 만들고, 建築家들을 社會學者로 만들고, 建築家를 政治人으로 職業的인 變更을 願하게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이러한 모든 實情을 充分히 알고, 여러가지의 놓여진 矛盾을 測定하고 그리고 日常生活의 水準을 把握해서 이러한 모든 結果를 가지고 建築家의 活動을 遂行해 나가는데에 對한 努力을 위하여 再武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單純하게 要請되는 일이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は 여러가지의 많은 知識을 가지고 來日을 保障할 수 있는 尺度를 알수있고, 建築을 純粹

하게 이끄러 갈수 있는 많은 方法을 가지고 그리고 建築의 創造와 環境의 創造로 連結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의 많은 作業들도 역시 來日을 保障할 수 있는 尺度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作業은 首先 教育에 많은 일이 있고, 建築에 관한 새로운 情報의 獲得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予定計劃을 짜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한 概念的인 일들이 있고 그리고 實踐的인 일들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活氣를 주는 일들이 있고 決定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차지하는 位置는 建築創造를 決定짓는 競爭을 할 수 있는 組織的인 體系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的인 體系는 教育訓練을 담당하는 곳이며, 基本的인 研究機關 혹은 技術의 研究機關이며, 實地 設計를 담당하는 設計室이고, 建築의 部局, 單位要素들을 生産하는 工場들이고, 都市 및 農村을 研究하는 그리고 勞働과 余暇를 研究하는 學的인 實驗研究室들이고 社會文化團體를 그리고 政治的이고 經濟的인 모든 集會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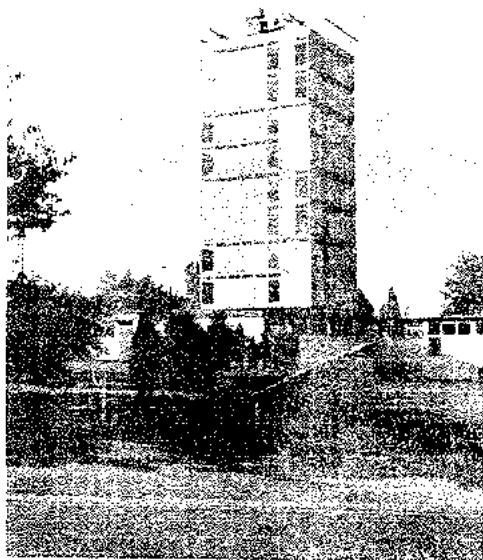
建築活動의 이런 형태는 歐羅巴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微弱하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이러한 分向性을 模索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萬若에 이러한 綜合的이고 有機的인 連結性을 無視하는 建築家의 活動이 個人的인 性格안에서 그리고 建築家의 活動이 個人的인 性格안에서 그리고 建築家의 專門的인 職業人으로서 職業的인 自己의 部分的인 性格을 가지고 이것을 主張 固執한다고 하면 建築의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性格은 消滅되고 마는것이다. 建築의 機能이 上記와같이 全體的으로 集約되고, 都市와 地方의 計劃的인 組織의 擴大化와 經濟計劃의 龐大化도 全體的이고도 綜合的으로 集約이 되고 여기에 또한 建築이라는 테두리속에서 建築生産의 産業化過程에서도 역시 集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더욱이 住宅, 아파트建設에서 그리고 모든 設備와 施設面에서 점점 그 重要性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佛蘭西를 위시하여 英國・和蘭 그리고 其他 歐羅巴 諸國에서 그 重要性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住居內容에 있어서 公的인 部門의 活動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美國에서도 上記와 같은 方式을 取하는데에 充分치 못한 實情이란 것이다.

이러한 公的인 分野의 活動이 오늘날 自身들의 發展을 圖謀하는 傾向이 있고 만약 個別的으로 建築家が 個人的인 손님을 위하여 하나의 집을 設計하여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在來方式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建築의 大規模的인 會社의 形式으로 發展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大會社는 역시 地域計劃的인 立場과 超高層化建物의 機械的인 設備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놓여진 모든 많은 일을 이끌어 나가는 可能性과 모든 分野의 專門家들 사이에서 再結合을 하고 再會合을 가지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佛蘭西를 위시한 歐羅巴諸國들은 都市 및 地方의 計劃的인 組織化를 內容으로 하는 여러가지의 公的인 혹은 私

的인 組織體들의 發展과 그 役割이 여러가지의 技術研究를 위한 事務所들의 增加를 招來하였고 점점 顯著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建築의 傾向과 여러가지의 産業化 方法에 의한것이 建設分野속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部分을 增加시키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建築의 合理的이고 現代技術을 驅使한 工事方式의 計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는 住居內容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住宅·아파트의 綜合的인 研究傾向에 있어서 그 研究組織이 國家的인 次元과 水準에서 그 機構를 構成시키고 있는 것이다. 佛蘭西의 C. S. T. B.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는 그 좋은 例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佛蘭西와 같이 個人的인 建築家의 活動과 그 地位를 尊重하고 建築의 藝術性을 높이 評價하는 등 建築에 對하여 他國에 比하여 特殊하고 多樣한 條件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不拘하고 歐羅巴의 他國에 比하여 늦기는 하지만 徐徐히 建築의 綜合的이고도 全體的인 研究의 組織體系가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傾向이 上昇一路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革新的인 建築活動의 傾向은 將來 繼續性있는 關聯性을維持하면서 職業的인 在來方式의 構造와 建築의 制限된 活動과, 古風의인 下與로 생긴 建築의 樣式들이 모두 포기될 큰 部分이 될 것으로 予想되며, 이러한 事實들은 모두 建築歷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博物館에서나 찾아 볼 수 밖에 없는 날이 올 것으로 予想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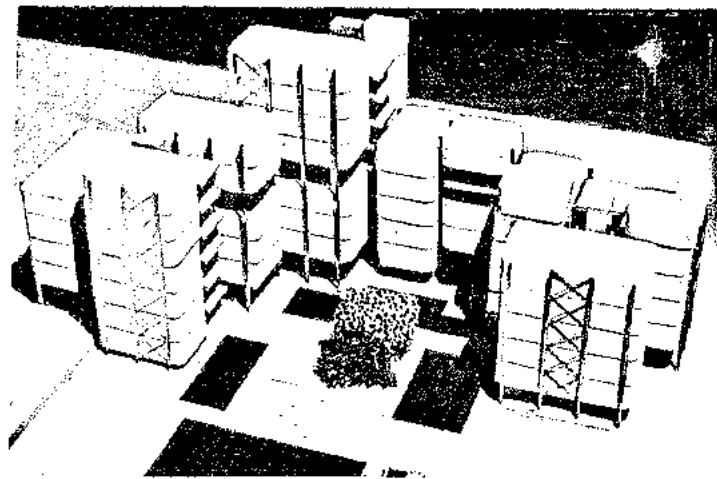
거리 郊外에 자리잡고 있는 C. S. T. B. 의 研究所 全景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가 漸進的으로 誕生할 것이고, 이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は 새로운 일들을 그의 活動으로서 奉仕케 될 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 形成의 誕生, 이것은 大學의 建築科가 모든 일의 어려움에 대한 錯覺을 일으키지 않고

貢獻을 할것을 熱望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家가 반드시 大學의 建築科에서만 教育을 받고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專門的이고 職業的인 實社會를 통하여도 많은 建築을 生産시킬수 있고 또한 많은 貢獻을 할것이 予想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러한 人間生活의 모든 範疇속에서 建築을 創造시키고 實社會에서 생기는 結果도 貢獻的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建築生産方式에 의한 建物群의 一例

새로운 教育方法

專門的이고 職業的인 努力을 傾注하는 建築家의 새로운 形態가 變하여가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하였던 많은 知識이 轉換되어야 할 時點에 와서 教授와 學生들間에 놓여지는 모든 教育方法에 대하여도 本質的으로 옛 過去의 基礎를 둔 方法으로 建築이 生産되어져야 한다는 事實이 아님을 確實하게 그리고 明白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로의 轉換은 새삼스럽게 다시自己自身의 位置와 力量을 測定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建築教育의 施行은 몇 個의 設計室을 附與하고, 優秀한 建築家들과 優秀한 建築技術者를 育成시키기 위한 契機으로서 學生들에게 每週 學生들이 해온 工夫에 對한 意見을 教授가 聽取하고 이에 對한 指導를 하여주고, 그리고 學生들이 直接 設計한 課題物에 대하여 校正을 하여 주면서 教育의 效果를 增進시킬려고 努力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教授와 學生사이를 直接 連結짓는 教育의 實施가 곧 設計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968年 以前부터 크게 發展되어온 建築의 基本的인 樣相을 構成시키는 여러가지의 科學 및 技術의 教育이 現時代의 潮流와 現時代가 要求하는 水準에 達하지 않는 敎育을 招來시키는데에 充分치는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現實은 建築教育의 革新이 要請되었고

이 革新의 時期는 早速히 到來할것이 期待되었고, 이런 機會는 必須不可欠의 것으로 認定되었던 것이다.

1968年 5月이 佛蘭西에서는 그 革新의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 革新의 契機는 그 主軸을 이루는 方向性이 앞으로 予想되는 建築에 革新의 方向과 現實情을 參酌한 教育的인 適應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方向性의 發見이 促進되어야 한다는데에 意見을 모아왔던 것이다.

이 정도의 改革은 모든 大學에서 外部의 影響에 대하여 改造되고 開放되는 것만으로 歸着시켜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表現의이고 建築家의 思考를 陳述할 수 있는 建築의 여러가지의 傾向을 可能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建築大學은 複合的인 傾向을 가진 大學으로서 어느 他系統의 大學보다도 이러한 傾向이 先行되고 있는 것이다.

1968年以後 現行 여러가지의 科目과 學點에 새로운 設定을 하였고 學生들의 再編成과 教育內容의 再編成은 一般的으로 政策的인 面에서의 教育的인 選擇이었고 또한 이것은 建築의 方法論的인 選擇의 機能으로 성숙한 것이다.

結局 각 科目과 學點은 特別한 樣相을 取하였고 建築의 教育內容의 確實한 傾向을 再現시키는 것이었다. 建築大學은 特別한 傾向을 위한 選擇을 取하였던 것이며, 이 特別한 傾向은 技術的인 것이고 아마도 技術을 基礎로 하여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는 精神的인 面에도 適合 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建築大學은 또한 複合的인 傾向을 가진 性格에서, 이것들 사이에는 서로 相反되는 見地와 立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傾向을 가진 속에서도 同居를 可能하게 選擇하였던 것이다.

만약 環境問題의 全體的인 效果에 관하여 建築家들의 集團과 技術者들의 集團이 같은 理想과 같은 目標로서 聯合體를 構成한다고 하면 教育內容에서 서로 性格이 다른 選擇의 內容에서 建築에서 招來되는 것에 관하여 다른 方向性을 가진 속에서 共通課題인 環境問題의 發見이 可能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다른 많은 傾向들은 教育者와 學生들에 의하여 共通되고, 상당히 많이 表現되는 關心事와 方向性을 가진 機能을 가지고 쉬우게 接近할 수 있는 內容속에서 여러 가지의 課題들의 選擇을 할 수 있는 水準에서, 이것으로 構成되는 일을 위한 몇個의 커다란 教科課程의 group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이것은 大學의 여러가지 傾向性속에서 한개의 傾向 혹은 하나의 方向性만을 선택하지 않는 學生에게 自由로운 可能性을 주는 必要性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選擇의 自由化는 그의 學問的이고 純粹한 經驗을 遂行하는 데에도 必要한 것이다.

産業時代에 있어서 建築의 經濟的이고 技術的인 樣相은 確實하게 区分된 교과과정 group속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는 것이며, 만것들은 그들의 要求에서 建築家의 專門的인 것들을 招來시키는 人間과 社會的인 樣相에 대하여도 많이 挿入시키는 것이다. 都市計劃, 都市地理, 社會生態學들은 한 group속에서 問題性을 갖고 있는 中心的인 것이다. 同時에 만것들은 또한 建築 및 都市의 生産過程에서 보여주는 方法의 參된 프로그램의 出發을 위한 試圖인 것이다.

結局 만것들中에서 하나만을 包含하지 않고 각 group에서 再現되고 되풀이 되는 傾向은 必要性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것이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確實하고도 커다란 方向性이 參된 group속에서 틀린 形式 밑에서 再發見될 것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肯定的인 것이고, 正確한 것이고, 이런 傾向은 大學의 각 group 속에 存在하는 것이다. 이것은 參된 根源을 發見하는 것이고, 많은 傾向은 建築家로 向하는 自由로운 開花를 可能케 하는 本質的인 存在가 되는 것이다. 물론 大學의 質的인 純粹性과 그 可能性 그라고 人間環境의 創造를 決定짓는 建築活動의 一體的인 參된 일은 革新의 契機를 通하여 좋은 結果가 招來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끝

都市組織의 分析과 設計方法

朱 鍾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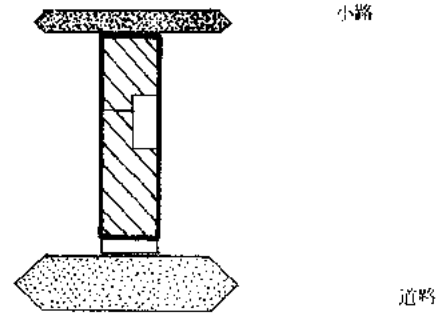


그림 1 土地의 形式

都市組織은 空間과 建物로 形成된다. 그림 1,2,3 에서
는 住宅이 항상 도로와 小路로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都市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이것이 都市組織의 基本的인 規則(rule)이다. 이
規則에 의하여 도로와 小路가 설계되고, 住宅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와 小路와의 關係가 定義된다. 그리고 복잡한
都市組織도 이 기본적인 規則에 의하여 分析될 수 있다.

우리는 物理的환경(physical environment)을 고려할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社会的 關係나 개인의 느낌과
같은 것과 연결 시키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
회적인 인자가 건축적 환경(built environment)과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들 社会的 인자와 연
련한 物理的환경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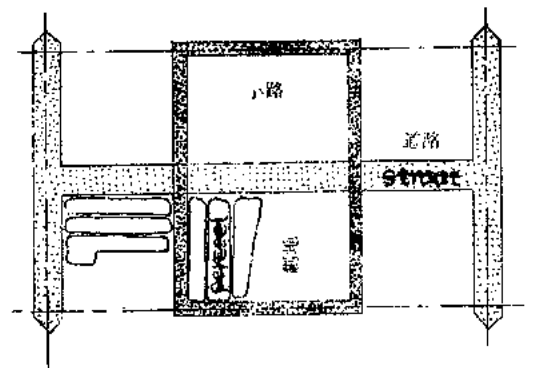


그림 2 小路와 道路

이에 대한 研究를 하는데 있어서는 社会的인 인자를 물
리적인 환경으로 형태짓는 것을 결정하는 도시 조직에 대
한 協約이 필요하게 된다. 그와 같은 協約은 無形的인 것
을 有形化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이다.

그런데 都市組織에 대한 協約은 물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position), 치수(dimen-
sion), 물질(material), 그리고 공간(space)의 관점에서
서 취급한다.

이 協約에서는 사용자와 物質的 形態와의 유대를 가능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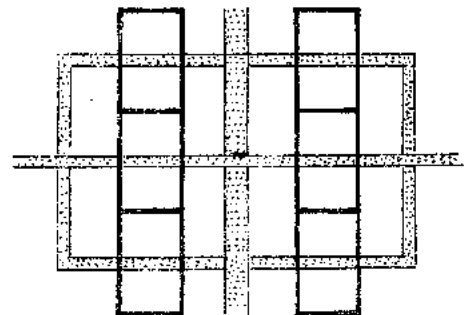


그림 3 流通의 形態

즉 ① 이 協約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participation), ② 사용단계와 개념적인 단계에서 主題에 줄 수 있는 변화(variation),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방법이 필요하다. ③ 정책결정력(decision making power), ④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協約에 의하여 질서있게 행하여야 한다.

都市組織에 대한 協約은 항상 물리적환경의 부분에 관한 것이 되고, 그 部分을 요소(elements)라고 부르기
로 한다.

1. 요소는 공간이거나, 물질이 된다.
2. 요소는 同質的이거나 異質的이 된다.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변하지 않는 特徵이 있다. 그것은 고정적인 局面이 있다. 그러나 기능은 그 기능이 행해지고 있는 建築環境보다 빨리 變化한다. 그 特性도 건축환경보다 急速히 바뀌어 진다.

建物の 例로는 住宅, 教会, 学校 등등이고, 空間의 例로서는 정원, 광장, 운하, 街路등이다.

우리는 物質을 配置할 때 空間이 생기게 되고, 空間을 形成하려면 物質을 配置하여야 한다. 都市組織은 協約에 의하여 空間과 物質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

두번째의 特性은 同質的인 것과 異質的인 것과의 關係이다. 都市組織에 있어서 그 요소가 정확하게 같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편 다만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발견되는 요소가 있다. 그

범 4에서 黑色으로 표시된 部分을 同質的 요소(thematic built)라 하고 회색으로 表示된 部分이 異質的要素(non-thematic built)라고 한다.

都市組織에 관한 協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1) 同質的 건물, 2) 異質的 건물, 3) 同質的 공간, 그리고 4) 異質的 공간.

空間과 物質과의 特性을 일차적으로 규정하였거니와 이 特性을 더 구체적으로 공간과 건물의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다.

공간은 물질을 배치하는데 따라서 여러가지 特性이 나타나고 이 공간은 環境을 認識하는 方法을 規定한다. 建物は 空間을 變化하지 않는 範圍에서 變化할 수 있고 空間의 特性을 형태학적 의미(morphological sense)에서 規定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그리고 建物を 다시 분류할 수 있으나 空間을 細分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空間은 一定한 幅을 갖는 線形空間과 길이와 幅을 갖는 集中空間(concentric space)으로 分類되고 이 두 空間이 結合하는 方法에 따라서는 courtyard, place, square의 세가지 空間을 形成하게 된다.

courtyard란 그림 6의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集中空間과 線形空間과 접쳐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place란 集中空間이 線形空間과 접치게 된 것, 그리고 square라 集中空間이 2 혹은 그 이상의 線形空間과 접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림 7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표로 나타냈다.

黑色：住宅
白色：個人屋外空間
点線：異質的인 要素
(Square, 建物：教会, 学校)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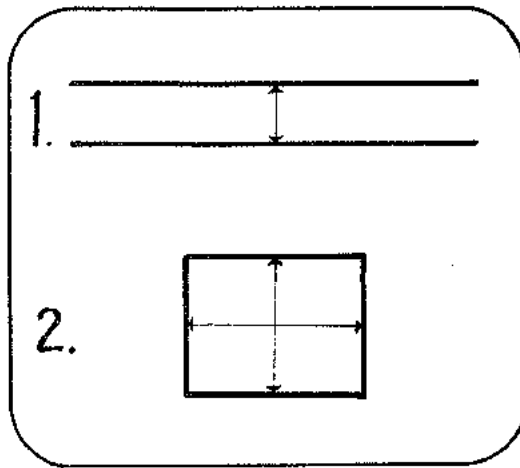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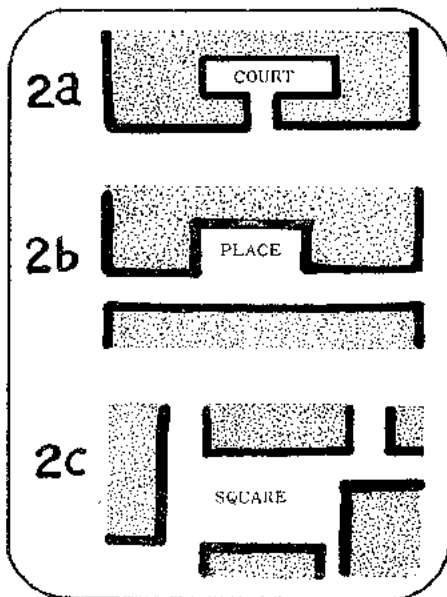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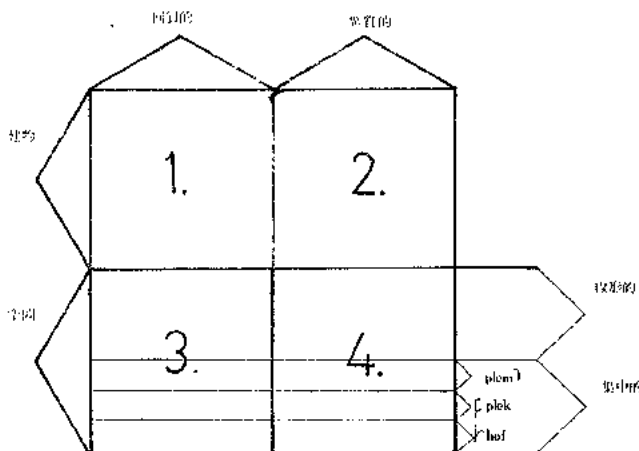


그림 7

기능과 요소와의 관계

어떤 要素 안에서 이루어지는 活動을 그 要素의 機能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機能과 要素와의 關係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性質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要素와 기능과의 관계가 변한다.

어떤 요소는 그것이 설계된 훨씬 후에야 그 기능이 발휘되는 수가 있다.

2) 어떤 요소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 수가 있다.

만일 한 요소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

3) 어떤 기능은 여러 가지 다른 要素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courtyard에서 놀 수 있고 건물안에서도 놀 수 있다.

어떤 要素가 있게 되면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기능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능의 분석만으로는 그 形態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要素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機能을 위하여 그 要素가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요소의 機能을 分析할 수 있고, 한 要素는 여러 가지 다른 機能을 위하여 시험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要素의 가능한 機能을 시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만일 한 要素가 그 基準에 未達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要素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要素와 기능의 특징, 기능과 要素와의 관계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위치와 치수 (Position and Dimension)

기능과 要素와의 관계는 늘 위치와 치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表現이 된다. 만일 그 기능을 위하여 한 要素가 시험된다면 첫번째의 질문은 그 장소에서 그 기능이 뜻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정원이 도로에 인접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의 질문은 그 要素의 치수가 그 기능을 위하여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주어진 용도의 가능한 변화를 통하여 대답할 수 있다.

기능과 要素의 關係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한 要素의 위치와 그 要素의 치수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明白하게 하는 것이 뜻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要素의 치수를 決定하기에 앞서서 要素의 위치를 決定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치에 관한 決定은 要素들간의 關係를 명백히하므로 기능들간의 가능한 關係를 알 수 있다.

要素들간의 關係는 환경,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과

계,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要素의 첫수는 어떤 범위까지 그 기능이 발휘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된다.

機能의 分類

都市組織에서 가능한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면 우리의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① 그 都市構造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는가. ② 後에 기능의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그 설계하는 要素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自由이다. 우리는 그 바라는 機能을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하고 자세한 사항까지 시험할 수 있다. 만일 都市의 組織을 그 안에서 機能의 여러가지 組合이 가능한 構造로 간주하고 싶으면 반휘되기를 원하는 機能의 종류를 그 都市組織에서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어진 都市組織에서 可能하게 되는 機能의 종류를 결정할 必要가 있다. 이들 機能이 都市組織에 있어서 시험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都市組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機能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즉 住宅같은 것). 이들 機能들의 관계는 都市組織의 形態에서 기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다음에 기술하는 6가지 기능(要素로서는 空間 이라고 부른다) 이 아주 중요하다. ① 個人屋外空間(private outside space), ② 보행자를 위한 유통, ③ 차를 위한 유통(circulation for cars), ④ 유희와 集會장소, ⑤ 주차, ⑥ 부대 설비(ut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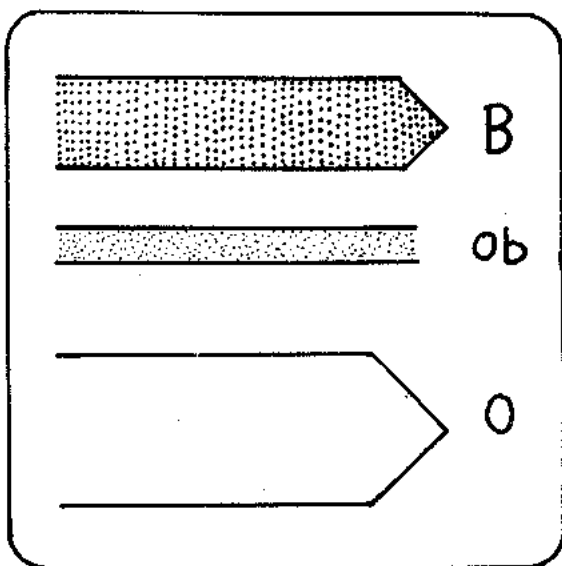


그림 8

기능의 종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都市組織에 대한 協約은 그 선택하는 要素와 기능의 種類와

관련이 된다. 그 協約은 그 要素들의 위치와 첫수를 조직하고, 都市組織을 시험하는 基礎的인 기준이 될 것이다.

協約의 가호로서는 ① 同質的인 要素들의 위치와 첫수의 표시, ② 異質的인 要素들의 위치와 첫수의 표시, ③ 機能의 위치와 첫수의 표시 등이 있다.

그리고 同質的인 要素들의 기호는 zones와 margins의 方法으로 表示된다. 즉 우리는 B-zones, O-zones, 그리고 OB-margins로 分類된다. 同質的인 材料(建物)는 항상 B-zone에 있어야 하며, OB margin에서 끝나게 된다. 同質的인 공간은 항상 O zone에 있게 되며 OB margin에서 끝나게 된다.

① B zone의 첫수는 동질적인 材料가 許容하는 最少의 것으로 하고, ② O zone의 첫수는 同質的인 空間의 최소치로 한다.

B zone과 그 인접한 margin은 同質的인 材料가 차지할 수 있는 最大의 値가 되고, O zone과 그 인접한 margin은 同質的인 空間이 차지할 수 있는 最大의 것이 된다.

同質的인 材料와 同質的인 空間은 항상 OB margin에서 만나게 된다. 이 규칙에 의하면 同質的인 要素들은 늘 O나 B에서 비롯되어 OB margin에서 끝나게 된다. 이들 zones에 맞는 要素들을 同質的이라고 할 수 있다.

zone의 要素는 O, B zones와 margin들의 組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zoning은 同質的인 要素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게 되고, 이들 同質的인 要素들은 最少와 最大의 첫수를 정하게 된다.

zone과 margin의 첫수는 各各零(0)이 될 수도 있다. zone과 margin은 꼭 계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없고, 또한 반드시 곧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

우리는 zone을 点線으로 表示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zone의 첫수는 주어졌지만 두 인접한 zone 사이에서 정하여 질 위치는 나중에 결정된다는 뜻이다.

zoning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첫수와 위치가 다른 O zone과 그 첫수와 위치가 다른 B zone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첫수와 위치가 다른 margin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위치는 O와 B zone에 의하여 결정된다.

zoning을 하는데 있어서는 zone과 margin의 最少와 最大의 높이를 결정하는 断面에 대한 協約을 더 할 수 있다.

異質的인 要素는 同質的인 要素를 위한 規則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要素는 同質的인 要素에 적용되는 規則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들 異質的인 要素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協約이 있으나, 이것은 zoning이 결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規則의 각 異例(exception)는 항상 자동적으로 異質的인 要素가 된다. 예를 들면 B zone을 채워 나가느라 자동적으로 異質的인 空間이 생기게 된다. 만일 O zone을 形成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적으로 異質的인 材料가 있게

된다.

B zone에 건물을 배치할 때 그 zone에 있는 건물들보다 높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異質的인 建築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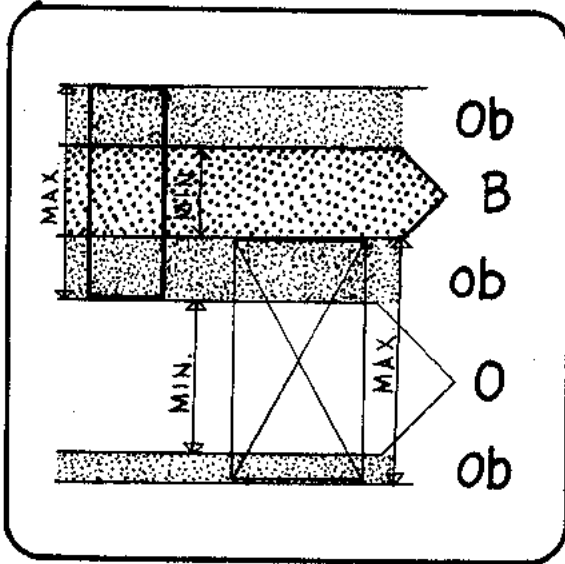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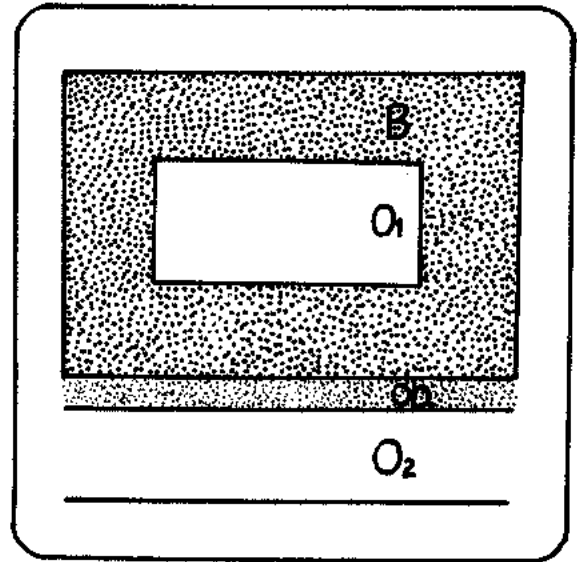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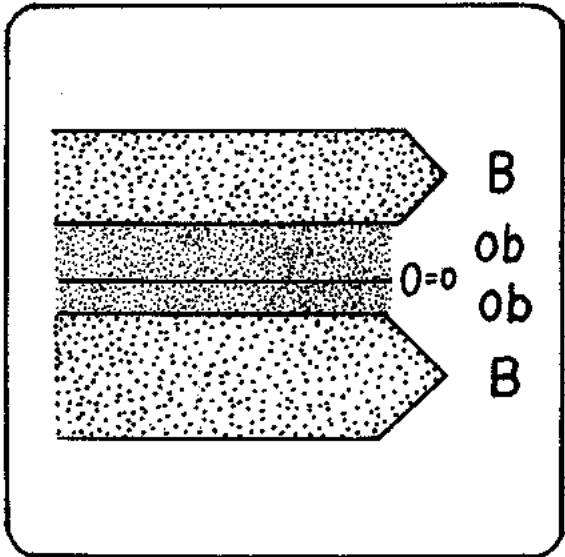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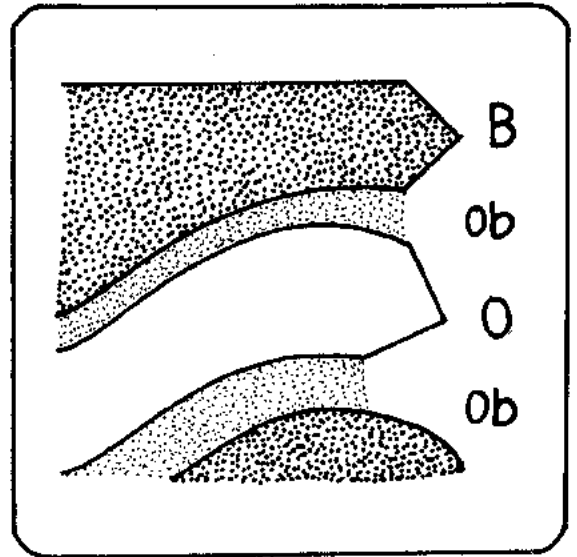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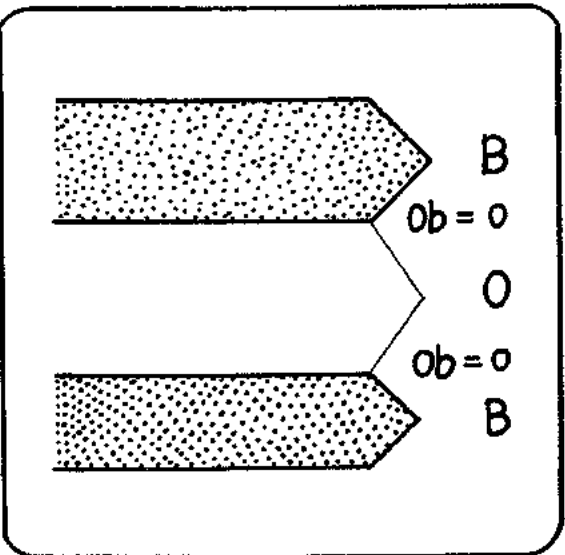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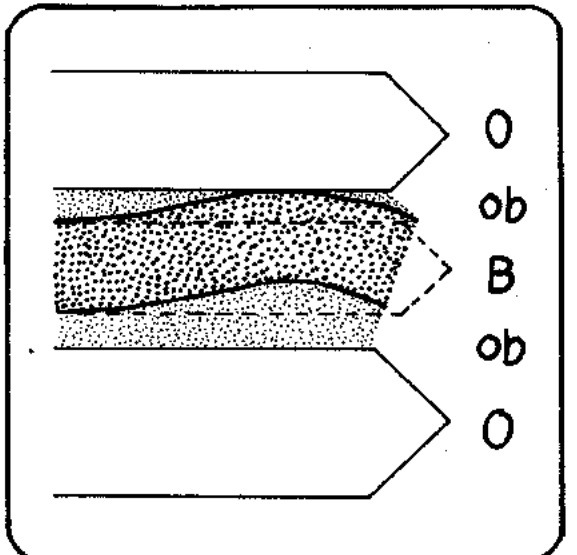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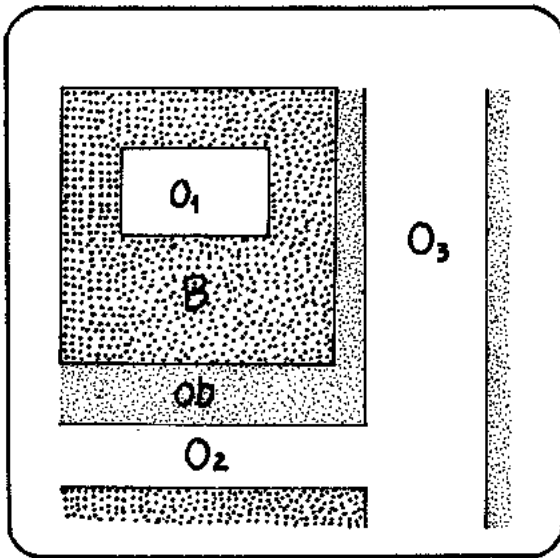


그림 15

그 이전에 만들어진 칫수의 協約과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면 만일 B zone의 일부에 상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던 그와 인접한 margin은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 칫수 및 기능에 관한 모든 종류의 協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각목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깊이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에 관한 協約은 그 기능이 都市 組織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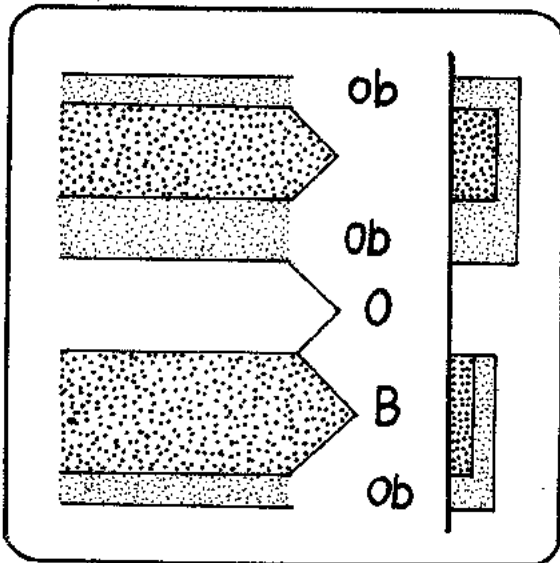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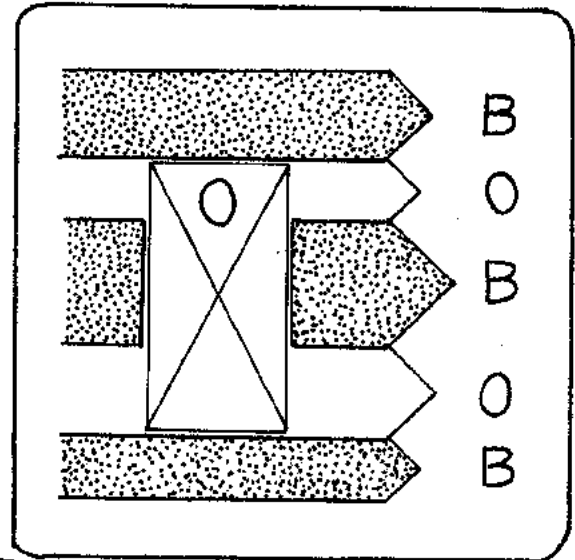


그림 17

위치의 표시와 기능의 칫수

同質的인 要素의 기능에 관한 協約은 zoning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어떤 곳에 위치하게 될 各 要素는 그 機能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zoning에서 기능은 tone, 色, 또는 부호로서 나타내게 된다.

어떤 특수한 O zone에서 우리는 그것이 다만 보행자를 위한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게 표시할 수 있다. 어떤 B zone에는 상점만이 배치될 수도 있다.

異質的인 要素의 기능에 관한 協約은 異質的인 要素의 위치와 칫수가 그려진 圖面에 어떤 기능이 주어 지겠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능에 관한 協約을 첨부할 수 있고, 칫수에 대한 추가적인 協約을 첨부할 수도 있다. 이 추가적인 協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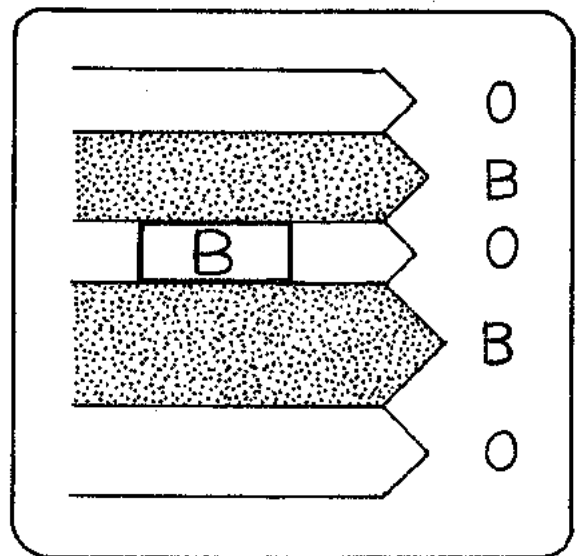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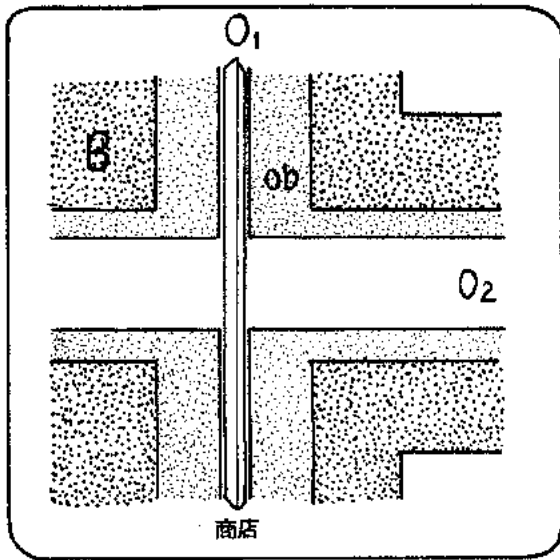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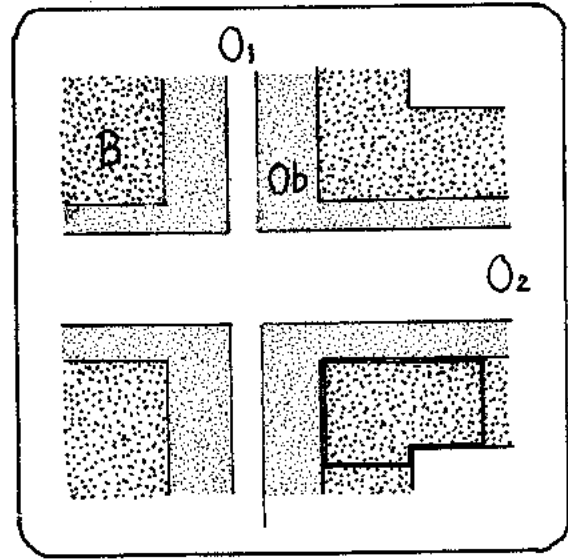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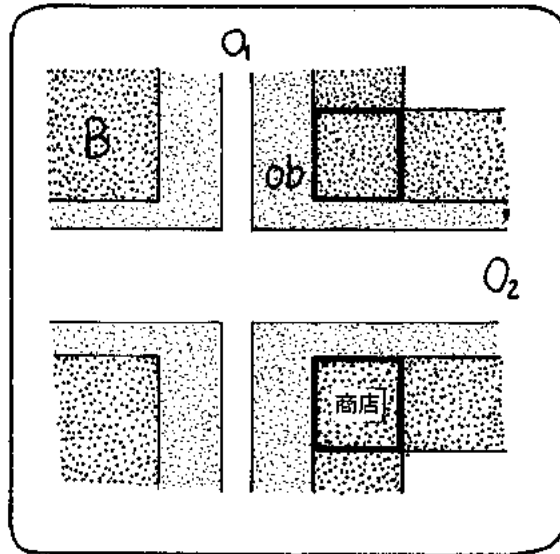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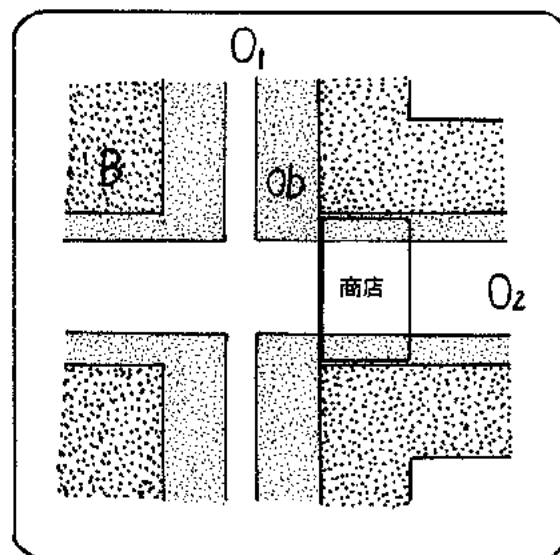


그림 21

都市組織 모형의 기록

어떤 特殊한 都市組織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協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協約과의 關係가 明白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協約을 組織할 수 있게 하는 規則을 설명한다. ① 문서 ② 都市組織모형 ③ 부호 ④ 설명 ⑤ 例들.

規則에 따라서 zoning을 할 때에는 協約이 表示될 수 있다. zoning 그 自体는 同質의인 空間과 材料의 位置와 稠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異質의인 要素에 관한 協約을 作成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다. 機能도 또한 zoning에 표시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zoning하는 도면 한장에 모든 協約을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協約을 表示하는 圖面이나 記錄을 추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zoning과 추가적인 協約이 표시된 圖面을 協約文書(agreement document) 라고 한다.

協約에 대해서 추가적인 說明을 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 설명은 書面이나 sketch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說明을 하는 文書를 說明文書라고 한다.

문서의 부호 (coding of the documents)

모든 文書에는 항상 要素의 위치, 稠도 및 기능을 기술한다. 要素들은 늘 同質의인 空間, 異質의인 空間, 同質의인 材料, 異質의인 材料로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各 文書에 그 文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明白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 부호의 표시는 matrix의 方法에 행해진다. matrix의 수직欄에 표시된 文字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다.

M : 기능과 관계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文書(morphology)

F : 기능과 관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文書

tb : 同質的인 材料(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文書

tr : 同質的인 空間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文書

ntb : 異質的인 材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ntr : 異質的인 空間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F가 표시된 從欄은 a와 b로 区分되는데 a는 기능의 위치에 관한 協約정보이고, b는 機能의 첫수에 관한 協約情報을 말해 준다.

matrix에 표시된 各 數字는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文書에는 하나 이상의 수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몇 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Matrix의 한 부분에서 한 수자로 표시된 한가지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zoning에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 zoning 그 自体는 항상 1+2이다. 각 文書에 적어도 하나의 부호가 주어지고 더 바람직한 것은 matrix에 우리 가문서에 나타내고져 하는 정보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첨가해서 그 정보가 協約인자 아니면 설명인지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文書3은 異質的인 건물의 첫수와 위치에 관한 정보이다. 文書6a는 주차와 같은 기능에 관한 정보이고, 그 기능이 어떻게 同質的으로 배치되었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文書7a+b는 同質的인 建物로 간주되는 학교와 같은 특수한 기능이 어떻게 그 位置와 첫수에 관한 규칙에 관한 정보를 준다.

協約에 관한 文書以外에 설명에 관한 文書を 첨가할 수 있다. 이 설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어떤 形式으로라도 나타낼 수 있다.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形態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1) zoning에서 取하여야 할 첫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zoning 文書, 이와 같은 종류의 문서는 協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協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zone의 分析, 3) 空間의 分析, 그리고 4) 우리는 Alexander의 pattern language를 잘 이용할 수 있다.

표

	M	F
tb	1	a 5 b
tr	2	6
ntb	3	7
ntr	4	8

표 2

文書 3

	M	F
tb	1	5
tr	2	6
ntb	3	7
ntr	4	8

文書 6a

	M	F
tb	1	2
tr	2	6
ntb	3	7
ntr	4	8

文書 7a+b

	M	F
tb	1	5
tr	2	6
ntb	3	7
ntr	4	8

韓屋의 歷史와 그 構造

申 榮 勳

1.

나무를 주요 재료로 써서 짓는 木造建築物이 高麗時代에 이어 이 시대에도 건축조영의 주류를 이루었다.

목재가 위주로 되는 집이라고 하지만 집에는 돌과 진흙, 토도제품(土陶製品)과 풀(草)·종이·가죽등도 쓰여서 재료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 하고 鐵의 생산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新羅·高麗時代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의하여 조영되는 건축의 조직(組織)과 내용(法式과 技法)도 계승되어 대한제국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木材가 건축의 중요한 조직과 내용이므로 목재를 다루는 기술자가 건축경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 중심인물은 의장(意匠)과 기획과 시공과 화엄(華嚴)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였다.

목재다루는 최고의 기술자는 지금의 建築士들이 하는 설계작업과 자목을 겸행(兼行) 하여야 되었고 자기에 딸린 기능자들을 적소에 배치하여 반입된 자재를 적절히 구사하도록 지휘편달하여 시공을 진척시켜야 하였으며 돌과 기와 흙을 다루는 기술자와 기능자들과 협의하고 구사하여 목표한 건물을 완성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성곽처럼 돌을 많이 쓰는 工事일 경우에는 돌다루는 기술자의 우두머리를,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두 건축가가 협의하여 진척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건축의 전반은 목재다루는 분야의 최고 기술자를 공사전행의 우두머리로 두고, 그를 주축(主軸)으로 하여 공정을 꾸려나갔다. 이런 제도는 국초(國初)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太祖는 開城에서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후 새서울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성곽의 南大門으로 崇禮門이 그의 즉위 5년(1336년)에 창건되었다. 이 공사에 이어 이 門은 世宗30年(明 正統 13年・1448年)에 寧錄에 反映되었듯이「新作」하는 정도의 개건(改建)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공사에는 提調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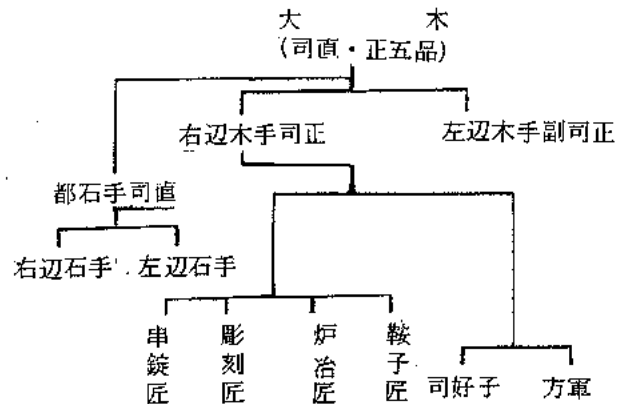
正憲大夫議政府左贊判戶曹事 鄭 恭
資憲大夫刑曹判書 閔 伸

이 활약하였고 그의 監役官・別監役등의 스태프가 보좌하였다. 실제 작업을 한 건축가와 기능자로는 正五品 司直 벼슬의 大木을 우두머리로 한 일군(一群)이 활약하였다.

大木司直 崔健國 都石手司直 申乃行 右辺木手司正 鄭 金等 二十二 左辺木手副司正 崔濟等 二十二 耳匠二三番 弁國 右辺石手 朴永南等 十四 左辺石手 李義成等 十四 各□□□ 串錠匠一二三番 合六十三 (註1)

彫刻匠五名 炉冶匠十三名 鞍子匠十二名 方軍九百名 (註1) 1961年度 南大門解体 修理時 2층 中도리받침장려에서 洪武29年(太祖5年・1936年) 興建工事時 從事하였던 사람들과 關係記錄이 墨書되어 있음을 찾아내었다.(申榮勳: 南大門上標文・考古美術資料 第5輯 “韓國古建築上標記文集 1964年6月刊 P. 10 참조)

이것을 직위에 따라 도표로 작성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기구였으리라고 추정된다.



여기의 大木 司直은 正五品 벼슬로 監役官(繕工監) 從九品(註3) 보다는 높은 벼슬이었다.

南大門은 成宗10年(成化15年・1479年)에 또 한번의 개수가 있게 된다. 이 때의 기술자 그룹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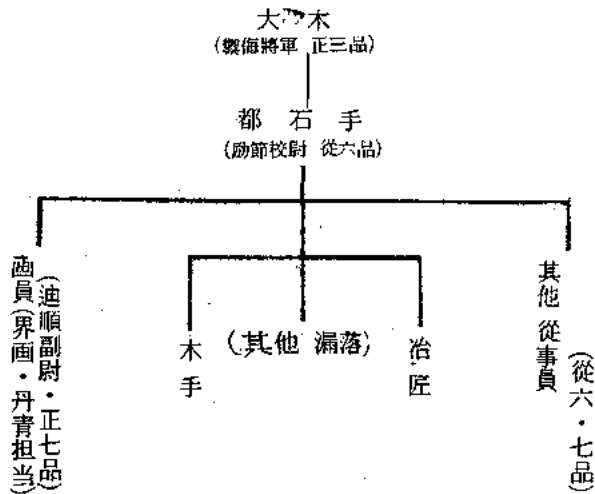
大木禦侮將軍行義興衛 □□□ □□□
都石手勵節校尉行義興衛副司勇 金 元 繼

(註3) 大典會通 卷一 吏典 京官職 從三品衛門과 卷四 兵典 京官職條 참조

画員迪順副尉尉行虎賁衛副司猛令 金 汝 文(?) (註4) 등인데 이들의 벼슬을 순위로 보면 大木이 禦侮 將軍으로 正三品 堂下官이며 都石手는 勵節校尉로 從六品이고, 画員迪順副尉는 正七品으로 大木의 지위는 월등하게 높다. 南大門墨書銘에 기록된 이 당시의 기술자 기구표를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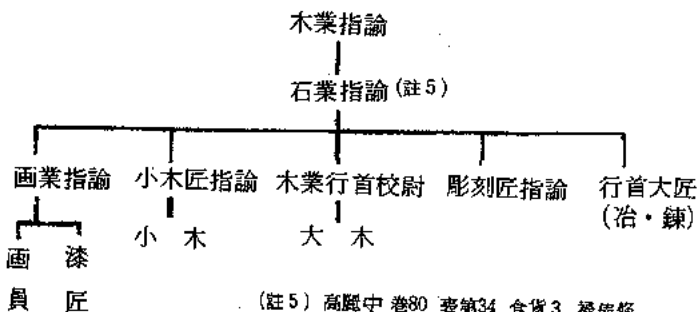
로 만들어 본다면 분명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추정된다.

(註4) 前掲書 南大門上樑文 참조



大木 혹은 都匠首로 불리던 사람은 다른 부분의 기술자 우두머리 보다 월등한 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겠다. 이와같은 제도와 大木의 우대는 高麗時代에도 마찬가지였다.

高麗時代의 大木은 木業指諭라고 불렀는데 都校署에서 米20石의 祿俸을 받았다. 都石手라고 할 石業指諭도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画業指諭는 이보다 격이 낮은 15石의 中尙署米를 받았었다. 祿俸의 차이로 高麗時代의 각 공장(工匠)의 등차(等差)를 포로 만들어 조선시대의 기구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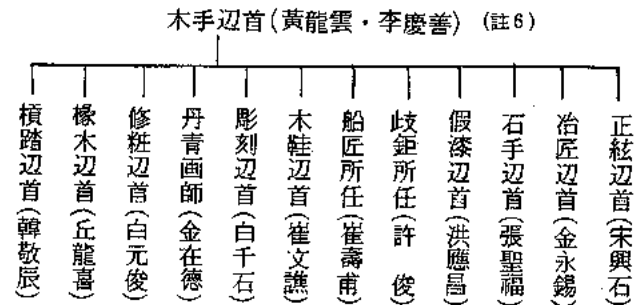
(註5) 高麗史 卷80 表第34 食貨3 祿俸條

이 표에서 보면 木業指諭아래 다른 指諭와 동등한 木業行首校尉라는 또하나의 계급이 있다. 이것을 필자는 木業指諭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축가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는 자리이고 木業行首校尉는 大木의 각분야를 총괄하는 기술자들의 우두머리 즉 都木手로 해석하고 싶다. 조선조 초기에서는 木業指諭라는 직명(職名) 대신에 大木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러한 大木이 앞의 두 기구표에 보이는 大木으로 건축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진왜란을 거친후 이런 기구구성의 제도는 다소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나무를 다루는 大木을 건축가로 여기는 태도에는 다른 변화가 없으나 大木이 거느리는 木業의

각 분야는 대단히 세분되고 각 세분된 분야마다 우두머리를 따로 갖게 되었다. 공정이 분업화(分業化)된 것이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경향이 한층 뚜렷하여지고 분업은 심화(深化)하였다.

高宗 6年(1869年)에 營建都監을 열고 서울성곽의 동대문인 興仁之門을 중건(重建)하였다. 청계천에서 스며드는 지하수 때문에 門 일대가 습하여서 자주 손상 되므로 옛날 건물을 헐고 석축부터 새로 쌓고 초루(譙樓)도 새로 짓는 거창한 공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공사는 다음과 같은 기구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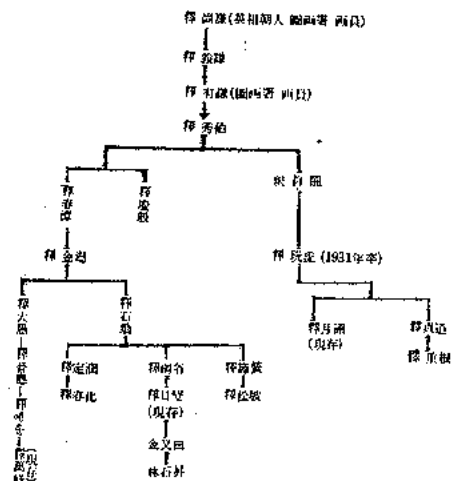
(註6) 前掲書 東大門上樑文 P. 39, 40 참조

조선초의 大木이라고 할 木手匠首 수하(手下)에 木部에 종사하는 부분만도 槓踏・椽木・修粧・彫刻・木鞋・船匠・岐鉅의 일곱개 유형으로 세분되어 자기 자기 맡은 일에 만 종사하였다.

국초부터 말엽에 이르는 木手위주의 제도는 국영의 건축물 조영뿐만 아니라 사원(祠・院)의 권위 건축이나 백성들의 사가(私家・民家)의 경영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2.

각 분야에 종사하는 기능자들은 자기 종문(宗門)의 계보(系譜)에 따라 전승되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전 분야에 걸친 계보의 조사를 끝내지 못하여 분명하게 표집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들어난 인맥(人脈)에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하여 볼 수가 있다. 한 예를 단청(丹靑)하는 화원(畵員)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画員 釋 尚謙의 제맥을 이어오는 화승(画僧) 중 아직 재세(在世) 하면서 단청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釋日燮과 釋月洲의 계보를 살펴본 것이다. 이들은 혈연(血緣)과는 관계없이 수계자(首弟子)에 의하여 제승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수계자에 의한 제승은 木手들의 계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註7) 西鼎源: 丹青·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第81号·文化財管理局 1970年 12月刊 油印物

불교가 억압되고 사찰건축이 활발하게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사찰건축의 단청화엄은 승려들에 의하여 제작되어져 왔다. 이들 승려들이 어느때 부터인지 세속(世俗)의 권위 건축(權威建築)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여서 중엄이후부터는 화승(画僧)들에 의한 세속건축의 단청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正祖때의 수원(水原) 華城 城役에서는 丹青 画員으로 46명이 동원되었었는데 그중의 40명이 화승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註8)

(註8) 華城城役儀軌 財用篇 참조, 여기에는 동원된 인원과 작업일수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圖画署 소속의 画員이 국가경영의 건물 단청작업에 동원되는 수도 있었다.

画員 金明(鳴)國 (儲承殿)

画員 金汝文(南大門)

画員 嚴致郁(華城)

등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画員이라는 직책에는 원래 그러한 직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大典會通에 「繕工監官員 相地官 画員進去奉審」이라는 기록에 등장하는 画員은 살펴본 터의 지형(地形)을 측량하여 스케치하여서 그것을 임금께 바쳐 기획의 자료로 삼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圖画署 画員의 이러한 직책은 土木之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茶山 丁若鏞은 「經世遺表」에 자기가 주장하였던바를 기록하여 두었는데 그에 이르기를 「臣謹按 周禮繪圖之事 備見子考工記 其本冬官所掌可知故 今屬于工曹 原典屬禮曹」라 하였다. 禮曹에 소속되어 초상화나 그리는것 보다 본래 임무인 계화(界畵) 기법을 위주로 하여 아예 동관(冬官·工曹)으로 예측시키는 것이 옳다고 한 주장이다.

계화(界畵)라는 그림의 기법은 자를 대고 직선을 긋는 화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土木之役의 기본계획안(지금의 설계도)을 그리는 데 기본되는 것이다. 유명한 「華城城役儀軌」의 설계도(투시법에 의한)나 「慶熙宮配置圖」(藏書閣藏)나 「東關圖」「西關圖」등이 모두 画員들에 의하여 그려진 계화에 의한 그림들이다.

건축가들에 의하여 의장(意匠)된 건축물은 의례 이렇게 도면화되며 시공도 이에 따라 진행되게 마련인데 최근 세에 이르러서는 이 설계도를 동양판이라 이름지어 부른다.

大木과 그의 씨스템에 의하여 진행되는 건축물 공사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조(工曹)에서 관장하였다. 「掌

工匠造作等事」는 工曹에서 맡기로 國初로부터 정하여졌다. (註9) 工曹은 漢陽에 서울을 잡은 후 刑曹 남쪽 積善坊에 청사를 마련하고 (註10)

(註9) 太祖實錄 卷1 5年3月 丙申條

(註10) 東國輿地備放 卷之1

宮室과 城池, 公廩과 屋宇의 土木役과 百工制作을 맡아 하였다. 이를 위하여 營造司 政治司 山澤司가 있고 營造司는 建築과 土木을, 政治司는 工業과 製品을, 山澤司는 港灣, 橋樑, 庭園과 機具를 맡아처리하였다.

工曹 外局으로 繕工監·修城禁火司·掌苑署·互署와 造紙署·尚衣院·典涓司등이 있었다. 工曹은 土木之役의 경영뿐 아니라 그 유지와 관리에도 책임이 있었고 度量衡도 관장하였다.

土木之役의 기본은 역시 尺度이고 尺度는 建築의 양식과 법식과 기법을 지배하였는데 이 시대에는 營造尺과 周尺이 土木之役의 基本尺度이었다.

工曹에서 관장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행정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대사업이 전개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都監이 따로 구성되었다. 국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면 領議政등 최고위 책임자를 都監의 都提調로 差下하고 그를 보좌할 여러명의 提調를 임명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高麗때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都監의 提調들은 重臣이거나 土木之役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여 쓰는데 인금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의 기호에 따라 일을 진척시키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提調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太祖가 金師幸과 金湊에게 많은 일을 맡겼던 것이나 太宗이 朴子青을 믿어 守門將出身을 높은 벼슬까지 나리면서 여러 工役을 맡겼던 일이나, 光海君이 李冲을 기용 하였던 내용이나 正祖가 趙心泰로 하여금 華城役의 책임을 맡겼던 것이 그러한 예인데 임금과 그 提調의 성격에 따라 견축의 내용에 차이를 갖게 되었다.

韓國建築史大系 全10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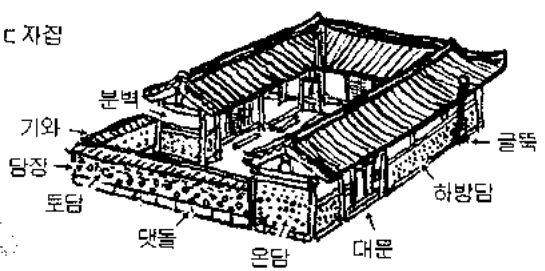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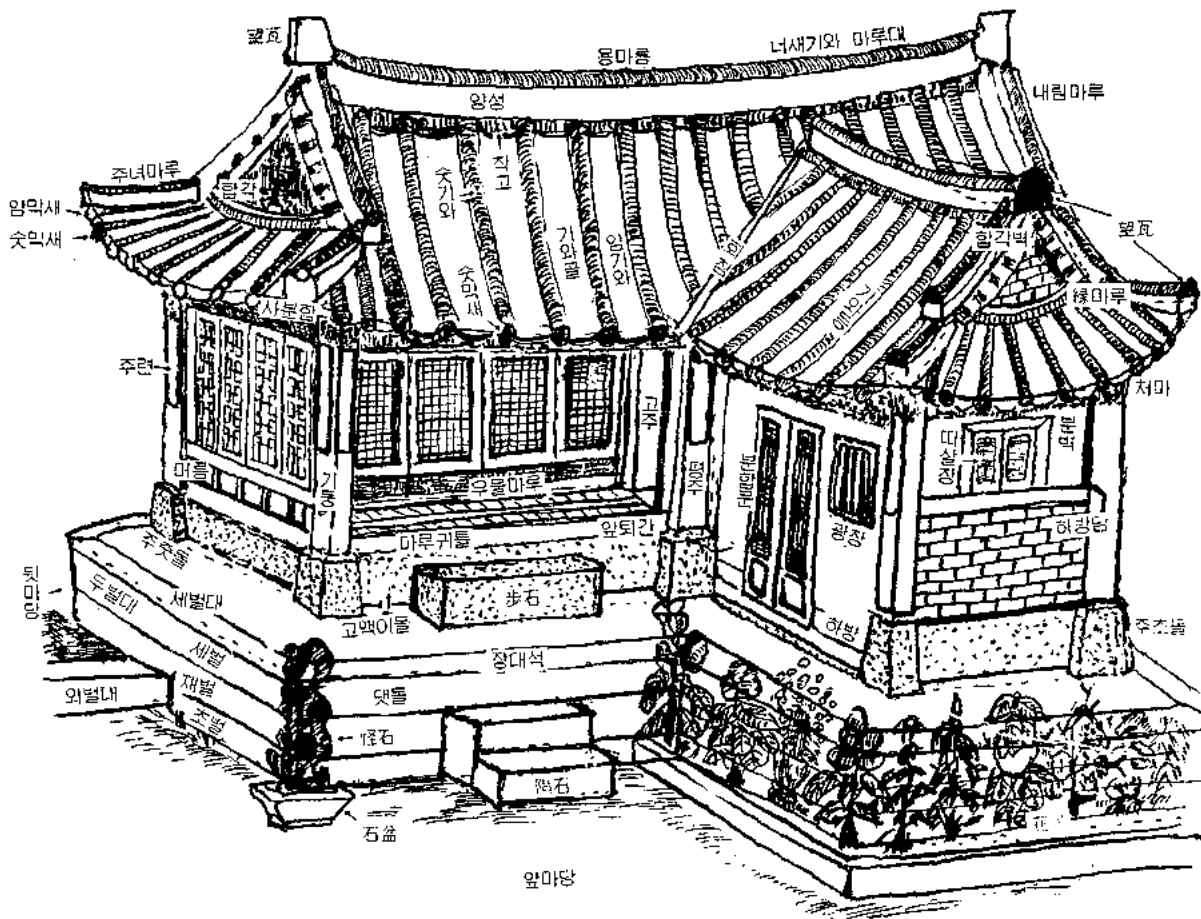
2. 韓國古建築斷章 上·下

申榮勲·金東賢 共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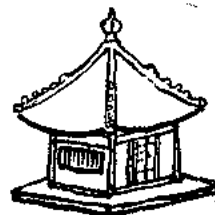
- 各卷 352頁 46倍判
圖版及 圖面 1,000余點收錄
- 各種 新資料 豊富히 收錄
- 新建築 設計, 施工에 応用될 親切한 圖解의 收錄

各卷 定價 6,000원

집의 구조



날개접



사모집



교주집



丁자집



우진각잡

팔작집



맞배집



육모집

多角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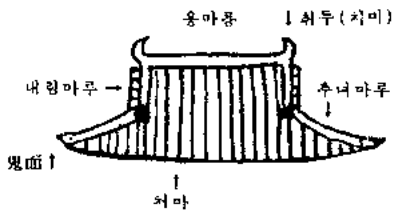
지붕의 종류



맞배지붕



팔작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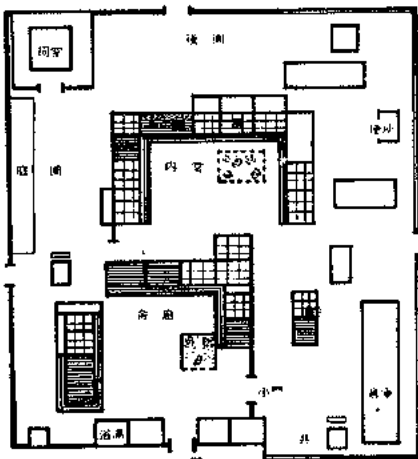


지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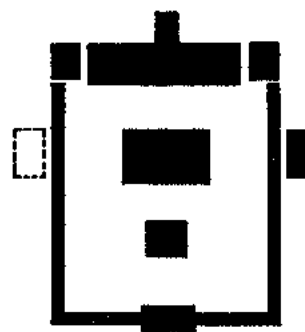


우전각지붕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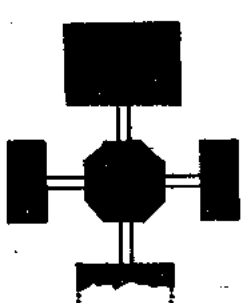
李朝住家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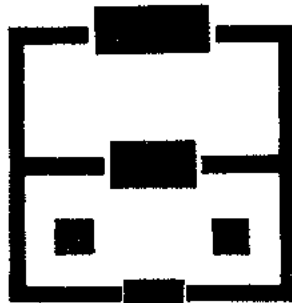
軍守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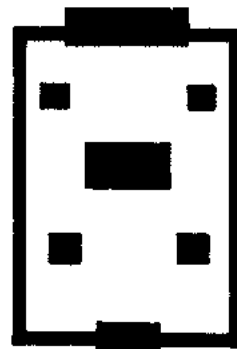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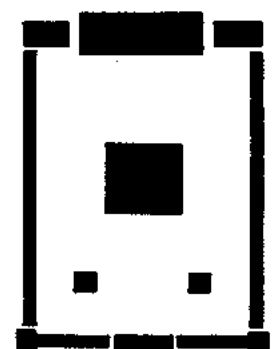
平壤 清岩里



感恩寺



四天王寺址



千軍里

韓畫의 멋과 美

趙 子 庸

① 담배 먹는 호랑이

韓國의 멋이 무엇이냐고 지금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 “호랑이 담배 먹는 옛 그림”을 들고 싶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면 우리는 의례히 이름난 절간이나 古宮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국보적인 유물을 보여 준다.

짧은 관광을 통하여 그들 중에는 한국의 문화가 印度의 것을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中國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西洋의 著名한 學者들 중에는 韓國美術이 中國美術의 地方的 特色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이 지나치게 貴族的인 遺物 소개에 치중한 탓이 아닐까?

또 우리들 자신이 아직도 자기들의 멋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꼬집어 내지 못한 탓이랄까,

과연 절간이나 古宮에 남아 있는 비교적 거대한 유물들이 우리나라 美術의 核心을 代表해 줄수 있을까? 李朝時代의 이름 높은 畫家들의 그림이 우리의 멋을 유감없이 나타낸 것일까. 近來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세계로 퍼져가고 우리 農樂이 세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투박한 民芸品이 世界의 안목을 끌게 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운치를 자랑하는 所謂 正統的 東洋畵 보다도 유치하게 여겼던 民畵類가 아낌을 받고 있는 理由는 무엇일까? 여기에 소개하는 “담배 먹는 호랑이,” 그림은 正統的 東洋畵論에 의하면 俗氣가 지나친 유치한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또 “호랑이 담배 먹을때”의 속담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람 이라면 누구나 이 그림은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을 것이요, 한국적인 유모어, 가락에 어깨가 곤지려워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멋쟁이 그림이 過去의 한국 美術史에서는 完全히 度外視 당하고 있다. 과연 이 그림은 그렇게도 미술적 가치가 없는 작품일까? 이런 종류의 그림을 골동계에서는 “양키꾸끼”라고 부른다. “양키”는 영어로 미국사람



을 말하는 것이요 “꾸끼”는 일본 말로 구미에 맞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양키들과 같은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구미에 알맞는 유치하고 俗된 그림이라는 뜻이다. 유치란 말은 양키 세계에서 보면 童心이 흐르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에 童心을 가진 자라야 천당에 갈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천당에 갈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림이 아닌가, 東洋畵 감상에 있어서 옛날부터 讀畵란 말이 있다. 그림을 읽는다, 그림속의 詩를 읽고 哲學을 읽는다.

또 요사이 쓰이고있는 높은 次元을 읽는다는 뜻이다. 매우 높은 세계의 言語이며 깨닫기 힘든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높은 척 하기를 좋아하는 癖病 또는 癖君들이 많아서 이런말을 함부로 쓴다. 讀畵니 畵中詩니 韻致니 氣韻生動이니 하는 몇몇 文句를 외어 가지고 東洋畵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척氣가 결코 담배 먹는 호랑이 그림 같은 것을 가치없는 유치한 것으로 몰아내 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그 讀畵라는 말을 빌려서 저 유치하다는 담배 먹는 호랑이, 그림을 읽어 보겠다. “호랑이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들 立場에서 이 世上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어찌서 아저씨는 우리를 잡아 먹을 權利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저씨들 같은 山中의 巨族들 사이의 紛爭 種族的인 싸움이나 思想的인 싸움이나 其他 말 못할 여러가지 理由의 싸움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도 마음 놓고 살수가 없습니다. 아저씨들이 다 우리작은 것들을 본 받아 사이좋게 살수 있다면 이 世上은 얼마나 平和스러운 것입니까? 아저씨는 우리들 說教가 듣기 싫지요. 그저 작은것들은 巨族들의 편리한 世界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림 오늘은 아저씨에게 저 숲속에 있는 살찐 고기를 무더기로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 멋드러진 꼬리를 물 속에 깊숙히 담고 그 담배나 한대 피우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동안 우리들이 위에 가서 고기배를 들고 올게요. 토끼들은 담배배를 물려주고 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호랑이는 꼬리를 물속에 담고 토끼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토

기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꼬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차가왔다. 종래 노발대발한 호랑이는 꼬리를 쳐들었으나 꼬리는 벌써 얼음판 속 깊숙히 얼어 붙어 있었다. 호랑이 담배 먹는俗談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토끼가 호랑이를 끌리는 이 說話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옛말이다. 그러나 호랑이 담배 먹는 옛 그림이 있었으리라고는 想像도 못하였었다. 龍珠寺에 남아 있는 저 담배 먹는 호랑이 그림을 보고 부터는 그런 옛 그림을 한장 收藏하고 싶어서 仁寺洞一帶를 꾸준히 찾아 다녔다. 드디어 한장을 갖게 된 것이 胡臘圖의 한 場面인데 龍珠寺 호랑이를 發見한 때로부터 六年만의 일이다. 이 場面이야말로 韓國의 유모어의 極致이며 民畫世界的 絶頂이다. 胡族의 勇猛性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담배 먹는 호랑이와 토끼들의 平和스러운 光景에 陶醉된 열빠진 피눈물을 그린 것이다. 이렇없는 이 畫工의 마음속에 事大主義가 들어 있었는가? 事大思想이 이나라를 망쳤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事大思想을 가졌든 것은 아니다. 事大主義 바람이 역설수록 反事大主義者들의 抵抗心은 더욱 더 강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몇몇 기풍들 德에 그레도 이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自己固有의 말을 하고, 남다른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反事大主義 투쟁을 한것은 반드시 이름난 救國의 英雄들 뿐이 아니었다. 도리어 庶民들 속에 저 호랑이 담배 먹는 胡臘의 作家와 같은 몇쟁이 英雄들이 숨어있었다. 담배먹는 호랑이 그림은 그 後 慶國寺에서도 또 하나 찾아냈다. 約50年前에 主持인 普現스님을 보시고 하룻밤을 새우면서 韓國民畫에 關한 資料를 記錄해볼 생각이었으나 그분은 카메라를 메고 절간에 드나드는 俗人을 미워하시는 모양. 두번 갔다가 사진도 못 찍고 쫓겨 나오고 세번째 가서야 겨우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 有名한 幾干和尚이 호랑이 꼬리에 목탁 念珠 布袋 등을 걸고 騎虎渡江 하는 또 하나의 색다른 그림도 普現 스님의 作品이다.

佛道를 닦는 韓國僧侶들이 印度式이나 中國式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우리의 유모어를 살려가며 우리에게 生理에 알맞게 消化시켰다는 證據의 하나이다. 좀 딱딱한 말로 宗教의 土着化 問題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佛堂에 置存하는 佛畵만이 價值있는 것이 아니다. 佛堂 建物 壁體에 빈틈없이 그려박은 一種의 民畵中에서는 達磨圖와 같은 佛敎에 關聯된 그림뿐 아니라 十長生圖花鳥圖 같은 典型的인 韓國民畵들이 佛敎的인 그림들과 사이좋게 붙어 있다. 宗教의 土着化 問題에 關한 應答은 韓國佛堂壁에 그려진 民畵속에 숨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世界는 韓國藝術의 한쪽만을 紹介받고 있다. 그 한쪽도 자랑스러운 쪽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여기에서 世界라는 韓國사람 자신들을 포함해 말하는 것이다. 왜 韓國藝術은 모두 차내는 悲劇的인 것 뿐이나 하는 質問을 흔히 듣는다. 外國사람들 뿐 아니라 韓國사람들도 그런 質問을 한다. 과연 韓國藝術은 悲劇的인 것일까. 이 問題는 우리가 좀더 慎重하고 徹底하게 反省해 보고 分析해 보아야 할 問題이다. 옛날에는 거지들도 우리 나라에서는 喜

劇을 演出해야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었었다. “꽃이나 한쌍 있는 덴 나비 한쌍이 제격이요, 파부나 한쌍 있는 덴 호레리나 한쌍 제격이지요……” 어렸을때 우리집 大門 밖에 와서 멋드러진 장타령을 불러주던 “니나니”란 거지의 모습이 이제 나에게는 가장 幸福스럽고 假飾없는 韓國 사람으로서 가장 自由스럽고 獨創的인 藝術家로서 눈앞에 彷彿한다. 몸은 病身이요. 배운것은 장타령 한가지 뿐이요, 親戚도 없고, 집도 없는 悲劇의 運命을 타고난 “니나니”가 어찌면 그렇게도 행복해 보일수도 있고 여러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 이 點에 “니나니”의 偉大함이 있다. 巨族들의 橫暴에 抵抗하는 庶民들의 열이 있고, 悲慘한 侵略과 干渉에서 오는 悲劇의 宿命을 폭넓은 유모어로서 克服해 온 우리 民族의 자랑스러움이 있다. 데포 한잔을 마셔도 勸酒歌를 부를 줄 아는 여유 있고 빈틈없는 天才 民族의 맛이 흐르고있고, 藝術이 있다. 맑고 쾌활하고 멋들어진 타고난 우리의 藝術을 어찌서 지금 世代的 혼 빠진 사람들은 催淚術로써 망치고 있단 말인가? 우리의 맛이 古宮자봉 꼭대기에 붙어 있단 말인가? 雄壯한 法堂속에 숨어 있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의 本然의 맛은 집신작 밑에 깔려 있다. 저담배 먹는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있다. 장타령 가락속에서 울고 있다.

② 金剛山 美術

韓文化를 보다 올바르게 理解하자면 그 表面의 탈을 활짝 벗겨제치고 그 속을 똑바로 드러나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의 學問은 그 겉질을 존대시하면서 속에 든 알맹이에 대하여 너무나 인식했든것 같이 느껴진다.

韓文化의 精神面은 佛敎나 儒敎나 道敎의 탈을 쓰고 表現해 왔고, 그 藝術面은 佛敎美術이나 正統美術의 탈을 쓰고 表現해 왔다.

韓文化를 外來文化의 副産物같이 세상에 알린 것은 바로 그러한 主体性 없는 事大文化觀에 입각한 學究姿勢라고 보겠다. 韓文化의 精神的 어머니는 巫敎의 神脈이며 藝術的 어머니는 巫敎藝術의 藝脈이다.

古代文化에 있어서 學問에 오염되지 않은 古代人들의 순수한 精神生活은 반드시 美術의 表現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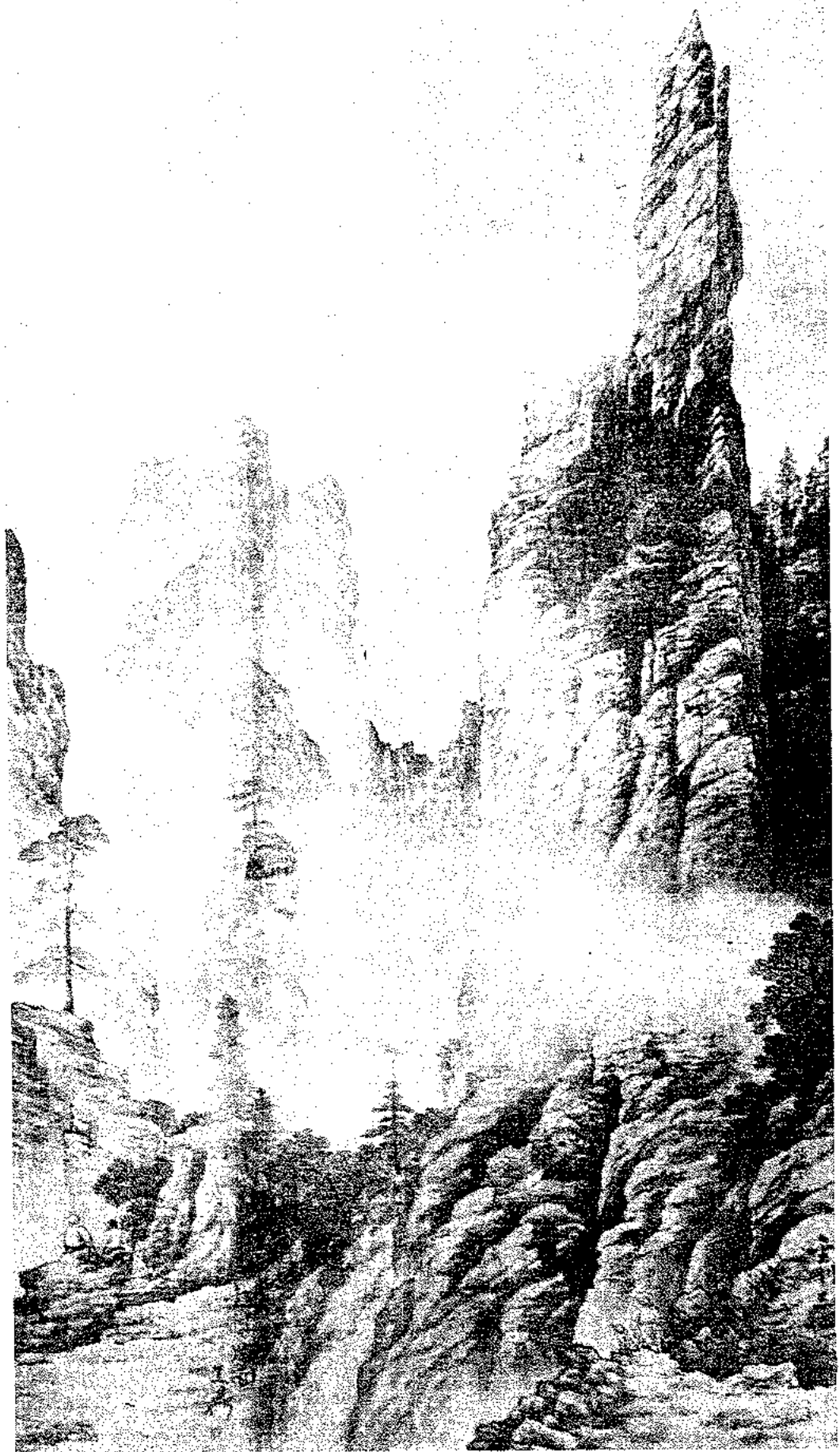
美術을 독립된 전문적 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表現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古代美術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美術을 제대로 캐어보면 궁극적으로 古代人들의 精神生活을 찾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金剛山美術은 韓文化의 精神的 底力을 보다 쉽게 보다 뚜렷하게 알려주는 美術의 모델이며, 巫敎의 神脈과 巫敎美術의 藝脈이 一致됨을 입증해 주는 엄연한 증언이다.

金剛山 三仙巖（部分）

又荷 金義植筆

에밀레美術館藏

Diamond Mountain Painting,
Three Saints Rock
Painted by Kim. Uishik.
Collection of Emille Museum



外金剛
金義植筆
에밀레 美術館藏

Diamond Mountain Painting
Out-Kum Kang Area
Painted by Kim, Uishik
Collection of Emille Meseur



따라서 여기서 소개되는 金剛山圖의 여러 자료들은 主體文化觀에 입각한 새로운 學問에 펼쳐주는 글자없는 文獻이다.

金剛山 美術은 거의 전부가 繪畵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金剛山圖의 자료를 중심삼을 수 밖에 없다. 金剛山圖는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東洋正統山水畵觀에 따르는 理論畵이며 또 하나는 風習에서 생긴 民衆畵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자료는 그간에 방치되어왔던 民俗的인 金剛山圖, 다시 말해서 韓畵로서 金剛山圖인 것이다. 理論畵가 單幅簇子 위주로 꾸며지는데 비하여 韓畵는 屏風體로 꾸며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屏風이란 감상용이기보다는 생활상의 실용품이니 만큼 이러한 그림들은 모두 韓人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결국 金剛山圖의 자료는 屏風體의 韓畵를 중심으로 삼게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언제나 그림의 뜻, 자라, 때, 사람, 멋 등의 측면으로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韓人들은 어떠한 뜻으로 일상생활에 金剛山圖 屏風을 치고 살았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京都雜志 書畵條에 “屏風金剛一萬二千峯 或 關東八景”같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金剛山圖屏風이 일종의 풍속으로부터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韓人들 사이에는 옛부터 일생

에 한번은 꼭 金剛山巡禮를 해야 한다는 염원이 강했고 金剛山만 한번 구경하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民間信仰이 성했다. 결국 金剛山圖는 이렇게 단순한 巫敎信仰에서 태어난 그림이며 다른 巫敎繪畵에 비해서 보다 깊은 宗教意識이 담긴 그림으로 보인다.

다음에 金剛山圖는 宮中에서나 民家에서나 다같이 사용되었었다는 점이 유물로서 증명이 되었다.

셋째로 金剛山圖는 주로 五月 단오때 그렸다는 점도 들어났다.

넷째로 어떠한 사람들이 金剛山圖를 그렸느냐는 문제인데 그 결론은 온 국민이 한결같이 參與하므로서 이루어진 國民畵라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韓畵 金剛山圖에 나타나는 藝術性이 문제의 핵심을 조성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金剛山圖는 巫敎繪畵의 개념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정도로 巫敎思想의 精靈觀과 山岳崇拜의 사상적 요소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고 非理論的으로 幻想的 抽象山水畵를 그 옛날에 완성시켰었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되었다.

金剛山圖의 巨作들은 모두가 다 家寶觀念에 따라서 집안 깊숙히 秘藏되어 있으며 韓文化를 힘차게 내 세울 수 있는 그 위대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선 보이지 못함을 유감으로 生覺한다.

※(필자가 지난 10余年동안 수집한 자료중에서 몇개만을 소개해 본다.)

〈新刊〉

金剛山圖 (上, 下)

趙子庸 著

發行: 圖書出版 에밀레 美術館

各卷 定價 ₩ 2,000

1975年 4月 15日 印刷

1975年 4月 15日 發行

印刷: 光明印刷公社

☆ 韓國文化의 美術分野

韓虎의 美術

趙子庸 著

A 4型 變版 天然色 70面

文本 240面 黑白圖版 90面

定價 15,000원

홍콩 · 오사카 · 東京 紀行

〈2〉

李 康 範

〈홍 콩〉

홍콩으로 가기위해 싱가포르국제공항을 이륙한 시간은 3월 6일 오전 9시.

마레이시아의 수도 “쿠아라룸푸르”를 경유하여 간다고 한다.

기내의 일등실엔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수행원들과 같이 동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가 “쿠아라룸푸르”공항에 잠시 기착한 동안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비행장은 김포 공항보다 작은 규모에 아주 답답한 모습이었다. 시내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같다.

수위가 운송 출항한 말림이다.

비행기: 다시 이륙, 점점이 떠있는 구름위로 “홍콩”을 향하여 나르고 있으며 구름아래로는 “마레이시아”반도의 동부 해안선이 보인다. 기내의 방송에서 “홍콩” 표준 시간으로 맞추려면 30분 앞당겨 들어온다.

비행기는 구름속으로 들어가면서 고도를 낮추고 있다.

잠시 후 비행기바위가 빠지는 덜컹덜컹 소리와 함께 “홍콩”의 건물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시야에 들어온다.

단단한 임국절차를 마치고 밖에 대기해 놓은 버스에 탑승, 호텔로 향하였다. 적당한 외부기온이 기분 좋으리만 한 상쾌하게 느껴진다.

홍콩의 인구는 약 400만으로 년평균 기온 25도의 적당한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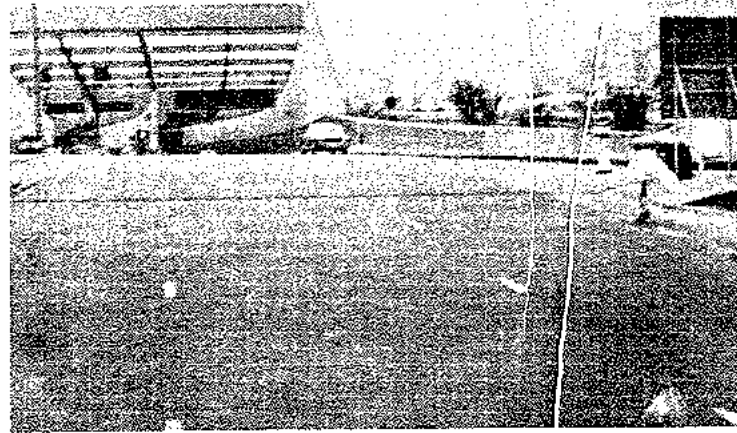
共用語는 英語이나 일반인은 中國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다.

중국대륙에 그대로 이어진 “구룡반도”가 남쪽에 위치한 “홍콩섬”으로서 구획이 되어 있었는데 해저 터널 및 해리전으로 교통은 연결되고 있다.

일행이 여장을 뗀 호텔은 “구룡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Grand Hotel 이었다.

“홍콩”에서도 특히 이곳 “구룡반도”는 범죄가 많은 곳이며 밤중에 으스스한 골목을 혼자 걸다가 봉변 당하는 수가 많다고 한다.

筆者: 李康範設計事務所 代表



〈홍콩섬북에서 본 해저터널 입구〉

호텔 도착후 계속 자유시간이라서 room mate 와 홀가분히 시내를 돌아볼 수 있었다.

거리는 복잡한 간판과 밀집된 지저분한 건물들로 꽉 차여 있는데 거리의 간판들이 건물와 벽으로부터 거의 도로 중앙부까지 뿔뿔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주택의 거의가 고층아파트에 의존되어 있으며 독립주택은 산중턱에 위치하고 그 값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다.

아파트도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얻으려면 몇 개월이고 기다려야만 한다.

시내는 지저분한 곳이 많고 특히 아파트의 발코니 밖으로 걸어놓은 빨래들은 도시미관을 극도로 해치고 있었다.

변화하면서도 깨끗할줄 알았던 “홍콩”의 실태가 실망을 준다.

3월 7일 일행은 준비된 버스에 탑승 도시계획 시청에 나갔다.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아파트단지, 빌딩 시공현장을 경유하여 “홍콩섬”으로 건너가기로 되었다.

이곳 건축공사장에는 바계공이 1, 2급으로 분류되는데 2급 바계공의 일당이 12,000여원 정도가 된다니 인건비가 대단히 비싼것 같다.

버스는 어느덧 “홍콩섬”으로 가기위해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 터널은 길이 약 1.7km로 오는 방향과 가는 방향으로 한 방향에 2차선씩 두개의 터널로 건설되었는데 이 터널의 단면은 원형이라 한다.

두 개의 튜브를 양쪽에서 바다밑으로 진입시켜 중앙부에서 조인트 처리하였다는데 이 터널의 외부는 전부 바닷물이 되는 셈이고 그위로 배들이 충분히 지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가 탄 버스는 지금 바닷물 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홍콩섬”의 산 정상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 보았으나 구름이 걸려 있어 보이지 않았고 중턱에 위치한 고급주택들이



〈영화 “모정”의 배경이 되었던 어항. 이 세에서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다〉

숲속에 있는것만 볼 수 있었다.

버스에 오르내리면서 설새없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며고 있다.

“홍콩”은 현재 英國領이며 이 영토의 일부가 27년후, 나머지 전부는 170년후 中共에 반환된다고 한다.

그동안 변화 많은 일기에 일행 모두 잘 적응 되었는데 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이의구씨가 심한 복통이 나서 준비한 약으로 대처했으나 듣지 않아 시내시찰중 호텔방에 혼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오매전에 상영된 바 있던 “모정”이란 영화의 “홍콩” 배경 중 몇군데를 시찰중에 볼 수 있었고 거리의 전차와 이중 버스, 관광객을 위한 인력거도 보였다.

저녁엔 “홍콩” 도착과 함께 이미 전화 연락된 현대조선 홍콩지점장으로 있는 친구를 만나 그와 함께 frumar hotel 의 회전하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며 “홍콩”에 대한 이야기와 이국에서 만난 반가운 정답들을 오래도록 나누고 늦게야 호텔로 돌아왔다.

이곳은 분명 늦잠자는 도시인가보다. 아침 8시 30분인데도 시내로 돌아 다니는 차량이 얼마 없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 조용했다.

식당에다 아침식사를 8시에 부탁하니 새벽같이 부탁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던 지난밤의 이유를 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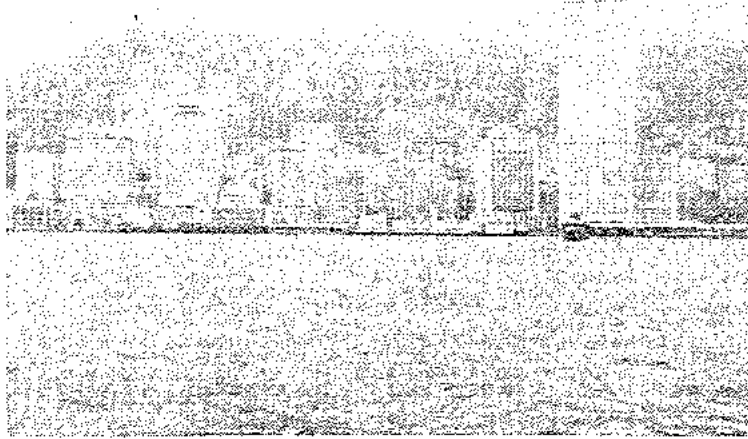
3월 8일 무역협회에 들며 이의구씨의 연고자를 만나 가볼 수 없었던 여러곳을 안내 받고 호텔에 돌아와 집을 꾸렸다. 이곳은 世界人種市場 과도 같다.

여러 외국인들 미국계, 영국계, 독일계, 스웨덴 기타 유럽인들은 대개가 가족동반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은 모두가 남자들만 다니는 것이 이채롭다. 우리 일행들도 남자들만 다니면서 남자에게 이상한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이 가소롭지만 「우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전 시찰이 목적인 여행이므로」라고 자위해 본다.

오후 3시 출국수속을 끝내고 3시 50분경 日本 “오사카”로 가기 위하여 “카이타쿠 국제공항”을 이륙하였다.

오 사 카 (大阪)

홍콩으로부터 3시간 비행후 (홍콩과의 시차 1시간) 현지시간 7시 50분에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 아래로 시내의 불빛이 창밖으로 내려다 보인다.



〈구룡반도에서 본 홍콩섬의 일부〉

“오사카”는 일본최대의 산업도시로 인구 약 50萬 정도. 기온은 한국보다 약간 높은 곳으로서 홍콩보다 싸늘한 날씨이다.

택시를 이용 고가도로 (이곳에선 「고속도로」라고 한다) 위로 달려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新阪急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방은 지금까지 묵던 호텔보다 가장 비좁은 구조였다. 침대결에 의자하나 놓을만한 공백도 없다.

침대에 누워 TV의 스위치를 켜보았다. 역시 칼라 TV의 화면이다.

마침 뉴스시간 이었는데 석울에서 축대가 무너져 시체를 들어내는 장면이 화면에 바뀌어지고 있었다.

여이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고 비참한 뉴스를 이곳 외국에서 보게되니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학시절 학관에서 배운 일본어 덕택인지 줄거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일행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을 찾았다. 호텔에서의 식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간 곳은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 교각부근의 지하식 식당이었는데 거대한 빌딩처럼 되어 있어 위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로망이었다.

아곳에 가기 위하여 에스카레타를 두번씩이나 갈아 타고 autoline (수평으로 사람을 나르는 에스카레터)을 한번 타볼 수 있었다. 위로 지나가는 기차의 진동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했다.

나오는 것은 공기밥에 반찬은 간지 러울 정도로 적다. 담배 한가치의 반정도되는 생선회 3쪽과 김치 몇 조각을 올려놓은 것이 한 접시였는데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라니 높은 물가교에 첫번째의 도전인 것 같다.

3월 9일 아침 일행은 스페셜에 따라 시내시찰을 마치고 유명한 大阪城에 도착하였다. 시내를 서울보다 고층 건물이 적었지만 그 면적은 더 넓은 것 같다. 이곳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인지 시내 사이사이로 걸쳐있는 운하와 같은 바다가 보이고 그위로 고가도로등이 가로 질러 통과한 것이 사진에서도 흔히 보았던 풍경들이다.

시내는 大阪城을 중심으로 뻗어 나갔다. 이곳 大阪城은 豊臣秀吉이 있던 곳으로 한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모의

하던 곳이며 昭和 6년에 재건되었다는데 외부 벽체는 백색에 지붕은 까만기와로 덮혀 있는 6층 일본식 고전건물이다.

실내에 에레비타 시설이 되어있고 내부 작실 전시장엔 당시의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갑옷, 의상, 머리형태, 그릇 종류와 단검, 장검 그리고 한국침략때 썼던 조총까지 전시되고 있었다.

日本城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곳도 성곽 주변으로 뱅 둘러 연못을 파서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웃의 침략을 위한 이 건물과 단, 장검 조총들을 보고 나오는 일행 모두가 단순한 구경만으로 끝나지 않은 그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京都로 가기 위하여 일행은 차에 올랐다. 우리가 탄 taxi 비슷한 “왜곤”은 일본에 모두 5대가 있는데 2대는 오사카에 있다고 한다.

세단처럼 생긴 모양에 운전석 뒤로 의자가 3개나 있어 한줄에 3명씩 탄다면 12명이 같이 탈수있게 되었다. 시내를 달리면서도 다른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차를 쳐다 보며 웃고 신기해 한다.

그들도 이상하게 생긴 차를 처음 보았다는 표정이다.

車는 벌써 京都행 고속도로에 진입, 京都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시속 100km정도 달리는 차 안에서 외부로 보이는 주택가는 물론 신통치 않았다. 전형적인 일본 주택 사이사이로 가끔 현대식 주택이 보이기도 한다.

서울 영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들을 이곳에 갔다 놓는다면 기막힌 주택가가 될것이다. 외모에 지나치리만큼 치중하는 우리나라 주택과 아주 비교가 잘 되고 있다.

그들의 주택은 외모보다 실내와 정원 꾸미기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京都까지 가는 도중 마침 일요일이라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는 붐비고 있었다.

도로변은 주택과 공장들로 계속 메꾸어져 있어 사실상 오사카와 京都사이의 공백이 없는 연속된 도시와 같다.

〈오사카의 근명〉

도중 왼쪽으로 보이는 Expo 70 박람회장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京都는 일본의 옛서울인 만큼 신라시대의 경주와 같이 고전축과 유물들이 많은 곳이다.

도착후 제일 먼저 들러본 곳이 徳川家康이 전조했다는 二条城.

이곳은 386년전에 건축된 천황의 별궁이라 한다.

내부에는 당시 집정하던 임금과 신하가 앉아있는 모습을 마네킹으로 만들어 놓았다. 일행은 다시 金閣寺로 향하였다. 이곳은 일본 대표적 정원이다.

창경원과 비슷한 연못을 가진 곳이 었다. 일행은 시내 二条園에서 간단한 일식으로 점심을 마치고 平安神宮으로 갔다. 정문 반대쪽은 커다란 “도리이”가 서있고 주위는 수목으로 둘러 쌓여있는 神宮인데 기도를 올리면서 뽕은 종이 조각에 점괘가 적혀있어 그것을 다 읽으면 그 종이를 접어서 한 나무위에 걸어 놓는 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라 한다. 그 나무는 종어로 온통 덮혀있어 멀리서 보면 하얀꽃이 피어 있는것 같다. 일행중 노환균 씨가 점괘를 차안까지 가지고와 읽는 바람에 모두들 폭소.

약간의 피로가 가시는 것 같다. “기모노”를 입은 젊은 여인의 화려한 모습을 볼수도 있었다.

“오사카에” 돌아와 휴식시간을 갖은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간곳은 theater restaurant. 일본의상을 입은 가수들의 반주와 노래속에서 저녁식사를 끝냈다.

3월 10일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동경으로 가기 위하여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30분경, 2시 10분에 동경으로 가는 新幹線이 있다고 한다.

오사카역은 현대식 건물로 변적은 김포공항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여행중 각자의 백을 차에 싣리고 호텔종업원에 의해서 날라졌는데 新幹線을 타러니 각자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백을 들고 넓은홀 이쪽저쪽을 다니려니 무척 힘들다.

매합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쥬스보통을 누르니 강통쥬스가 굴러 내려온다. 담배나 콜라, 커피 모 든 것이 자동판매대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

〈오사카 성안에 전시된 조총〉



2시 10분 新幹線은 오사카역의 플랫폼을 서서히 빠져
고 있다. 동경까지는 약 600km의 거리. 3시간 10분 정도
소요, 시속은 210K/H로 달리는데 진동이 없어 달리는
것 같지 않았다.

주위의 농촌은 경지정리와 관개사업이 잘 되어 있고 사
이사이 농로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으며 각 개인 소유
의 농지경계는 콘크리트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시 주택이나 농촌 주택이나 건축된 형식은 같고 집주
위에는 정원으로 처리되고 각집에는 자가용과 TV 안테나
가 설치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생필품으로는 냉장고, TV, 세탁기, 전화등이고 자가
용과 에어컨 시설을 한집도 많다고 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주
위 산에는 나무가 빽빽히 서있고 종류는 대개 향나무와
소나무 등의 사철나무였으며 대나무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향나무가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부터 향나
무를 수입해 간다고 한다. 자기 나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도 향나무 하나라도 육십
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타고 간 新幹線이 원래 동경에서 오사카 까지만
부설되어 있으나 "오사카"에 있을때 "후쿠오카" 까지 연결하
여 3월 9일 개통하였다는 뉴스를 호텔방에서 TV로 본
일이 있다.

동경에 거의 막아줄 즈음 해서 유명한 富士山이 좌측
창밖으로 보이고 있었다.

해발 4천여 미터의 산봉우리에는 흰눈이 덮혀져 있었
다.

모두 카메라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富士山을 담아 가
기에 분주하다.

〈동 경〉

5시 20분경 동경에 도착.

불비는 인파속을 헤치며 역을 빠져 나와 처음으로 보는
동경의 시가지는 번잡하기 이룰데 없다.

숙소인 "帝國호텔"은 "천황성"을 마주보며 "銀座"를 바로 위
에 둔 동경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韓食집에서 저녁식사를 끝내고 돌아와 바로 몇몇회
원이 모여 가장 중요한 내일의「韓日建築士 간담회」를 대비
하여 사전 계획을 세웠다.

자유시간이 있어 일행 몇명은 銀座거리를 거닐어 보기
로 하였다.

서울의 명동거리보다 면적이 넓고 깨끗하며 더 번잡한
것 같았고, 가끔 볼 수 있는 주정뱅이는 우리의 마음을
저속이 안심시켜 주는 것 같다.

3월 11일 아침「한일건축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
여 회의장소인「일본건축학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에레베타 입구와 회의실입구에 「방일 대한건축사협회간
담회장」이라 쓰여져 있고「日本建築士連合会」직원이 나

와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회의장내에는 회의탁자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일본건축
사 연합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 건축사 등 8명이 배석
해 주었다.

양국 건축사의 인사소개가 끝나고 선물을 교환하였다.
우리가 준비한 협회지 "建築士" 10여권 및 배낭트와 약
간의 토산품을 전달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책 10권
을 받았다. 이 책은 협회에 보관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협
회에서 빌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건축사 연합회장의 환영사와 우리 측 단장의 답사
로서 인사절차가 끝나고 간담회로 들어갔다.

2시간 30여분의 간담회 결론은 韓日間 建築士技術交
流와 자주 왕래등이 약속되었다. 한일건축사간의 공식회
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건축사간의 거리를 밀착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여행한 성과중 가장 큰 것이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일본측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옛날의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하였기 때문
에 고전건축은 한국이 원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대
건축은 일본이 100년은 앞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국력의 표현이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20
년 이상은 충분히 떨어진 것을 자인할 수 있으나 100년이
라는 것은 그들의 호언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

간담회를 끝내고「일본건축사 연합회」의 안내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최근에 완공된 건물 두 곳을 볼 수
가 있었다. 한곳은 지상 25층 지하 4층의「동경 해상화재
보험빌딩」이었는데 직접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자로 부터
대지와 건물의 동선관계, 평면의 구성, 구조의 채택, 외
부의 입면처리등의 과정을 브리핑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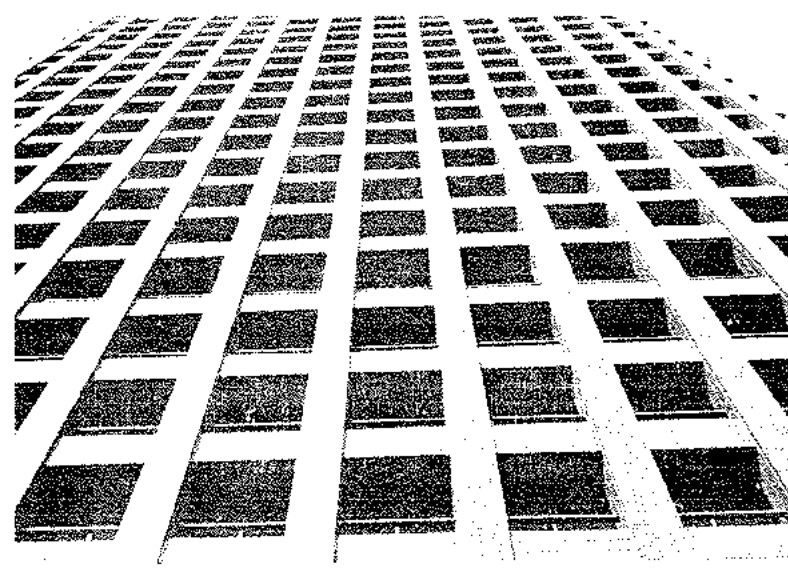
실제 및 감리는 불탄서 건축가 "르코르뷔제"에게서 사
사를 받았다는 前川國男이었다.

외부유리는 페어그래스를 쓴 고정분박이 창으로 되었
고 환기와 냉난방시설이 년중 자동조절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실내의 각 재료는 일체불연재료를 사용하였다.

화재, 도난, 각종 사고등을 경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TV장치 등으로 종합 조정되어 있었다.

〈일본건축사연합회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는 장면〉





〈동경화세 해상 보험 빌딩의 근접촬영〉

1층홀의 벽체에 사용된 아프리카산 화강석은 그면의 처리가 훌륭하게 되었는데 화강석을 유리처럼 잘라 놓은 위에 무질서하게 쓰아낸 것처럼 보였는데 유명한 조각가의 조각솜씨라고 설명한다.

外部는 크릴카타일 재품을 프리캐스트로 만들어 기둥 빛 빔에 부착된 것이 특징이었다. 각종 어느 방아든 경비 살 스위치 하나면 문이(전부 천제로 되어 있다) 자동 폐쇄되게 되어있고 화재가 일어나다 해도 쉽게 비상계단까지 갈 수 있도록 외부 창문 주위에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외관과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工事費는 日貨로 평당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시공도중 2층까지 완성하여 놓고 내화, 진동, 누수, 강도 등 기타 여러가지 시험을 끝낸후에 설계에 다시 반영하여 전체를 완성하였다 한다. 설계위촉을 받아서 시공을 완성하기 까지의 기간은 근 10년이 경과된 작년 3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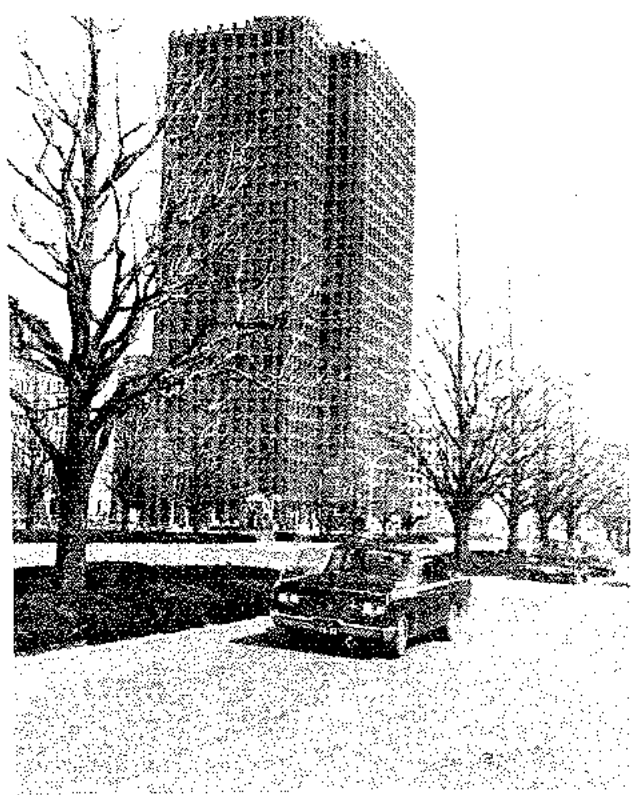
그들이 두번째로 안내하여 준 곳은「일본최고재판소」건물, 그곳 연선과장이 나와 브리핑을 해주었다. 내지의 위치와 건물방향을 선정하게 된 동기, 구조, 재료, 기능등을 설명 받았다.

건물의 방향은 이곳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의사당의 중심선과 최고재판소의 중앙홀의 중심을 일치시켜 건물 기준점을 잡고 대법정 및 일반 법정등 판사실과 휴게실을 보유한 재판동, 일반 행정 및 회의실을 보유한 사무동으로 구분되어 복도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홀중앙 천정은 천정고가 높아 선성함과 엄숙함을 강조시킨 것 같고 사람들이 들어 오면 마음이 정적해 진다는 효과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정은 천정이 높고 중앙에서 자연채광되도록 Sky-light 처리되었는데 천정공간의 중앙부에는 Air Curtain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사용된 재료는 내외부 거의 화강석이었고 천정부문에는 알미늄처리 된 곳이 많았으며, 유리는 높이 12m 이상 되는 부분에도 등유리를 사용하였다.



〈동경해상화세보험빌딩의 원경〉

유리면이 수평으로 긴 곳은 삼각유리기둥으로 보강한 것이 재미있었는데 이것은 유리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깨트릴 위험성을 제거해 주는 효과도 있을것 같았다.

화강석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韓國産 화강석도 중앙홀 바닥에 10m² 정도 깔려 있었다.

이 건물은「新建築」잡지에도 소개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았으나 책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바가 있었다.

이 건물은 일본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건축으로서 1971년 6월 착공 1974년 3월에 완성된 것이다.

연건평 14,400평 정도의 地上5층 地下2층 건물로 설계 및 감리는 岡田新一실제사무소에서 맡았다고 하는데 평당 공사비는 법정동이 日貨로 260만원 재판동이 80만원 정도 소모되었다고 한다.

韓貨로 계산하려면 1.7배를 하게되니 더 비싼 금액이 될 것이다.

이 건물의 재판동 지하 부분에는 지하철이 통과되고 있다 한다.

일본의 실제사무소는 직원이 1,000명정도 되는 완전기업화 한 곳도 있고, 산담회에 참석하였던 어느 건축사는 4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며, 보통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施工도 접하고 있다 한다. 경우에 따라선 직원 10명 미만인 아프리카에 형식의 연구소도 없지않아 있다는 말이다. 시내 이곳저곳을 시찰하며 일본에서



新宿(신쥬쿠)의 초고층 빌딩들

고층건물이 많기로 유명한 “신쥬쿠(新宿)”에 들러 보았다. 그간 4~5년에 걸쳐 건축된 40~50층의 고층 건물이 5~6개 정도가 보였다. 현재 시공중인 초고층빌딩도 볼 수 있었다. 5~6년전에 소개된 “신쥬쿠”에는 이러한 고층빌딩이 없었고 “가스밍아세끼” 빌딩 36층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일본건축사 연합회」의 배려로 걸할기나마 보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시 빠스편으로 동경세계올림픽이 열렸던 메인스타디움과 실내체육관을 보았다. 이 실내 체육관은 동경올림픽때 건축되었는데 책에도 소개된 바로서 눈에 익어 오히려 친근감을 갖게 한다.

자봉 트러스대신 rope 볼 이용하였고 특이한 외관의 곡선미를 갖고 있다.

유명한 건축가 舟下建三의 작품이다. 일행은 동경변두리 “田島” 알미늄 제작소에 들렀다. 일본 건축에서 건물의 외부에 사용하는 커넬월 제작소다.

한국에선 경제적인 여건으로 시공될 수 없으나 일본에 이것도 벌써 뒤늦은 style 이라고 한다.

커넬월, 난간손잡이, 선홈통, 실내칸막이, 실내벽재료, 천정재료, 가구에 이르기까지 생산품은 다양하였다.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정부종합청사의 외부알미늄창호를 시공한 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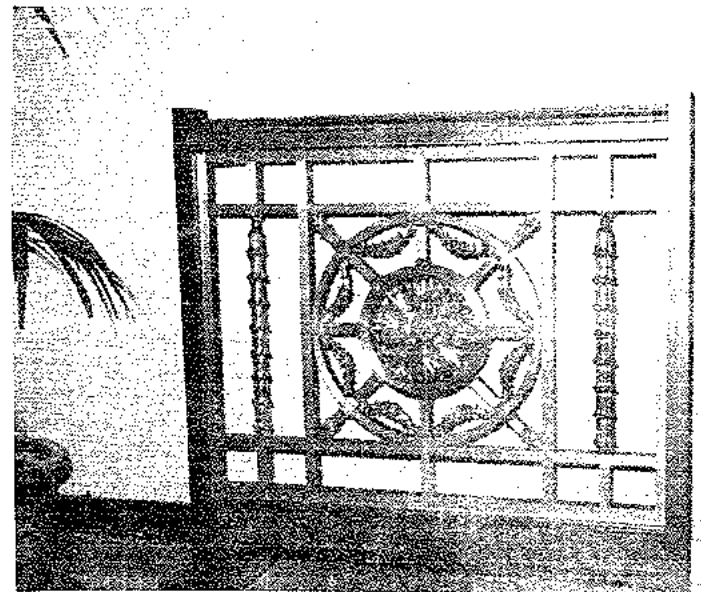
바쁘고 중요한 일정을 끝내고 점심은 일본건축 연합회에서 대접 받았고 그 협회에서 몇 명을 초대하여 한식 집에서 불고기로 저녁을 끝낸후 호텔로 돌아왔다.

3월12일 아침 일행은 동경 현지에서 해단식을 갖었다.

건축은 배우고 볼 것이 많은 이곳 이라서 몇일 더 돌아 보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짧은 일정을 끝마친다.



〈차내에서 찍은 최고 재판소의 원경〉



田島회사에서 생산되는 난간손잡이 (1m² 정도에 80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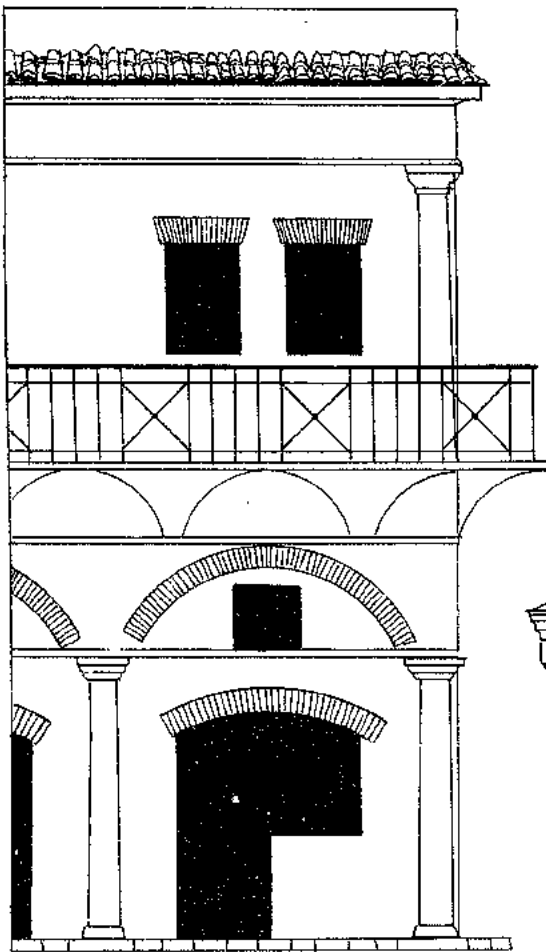


田島회사 전시실에서의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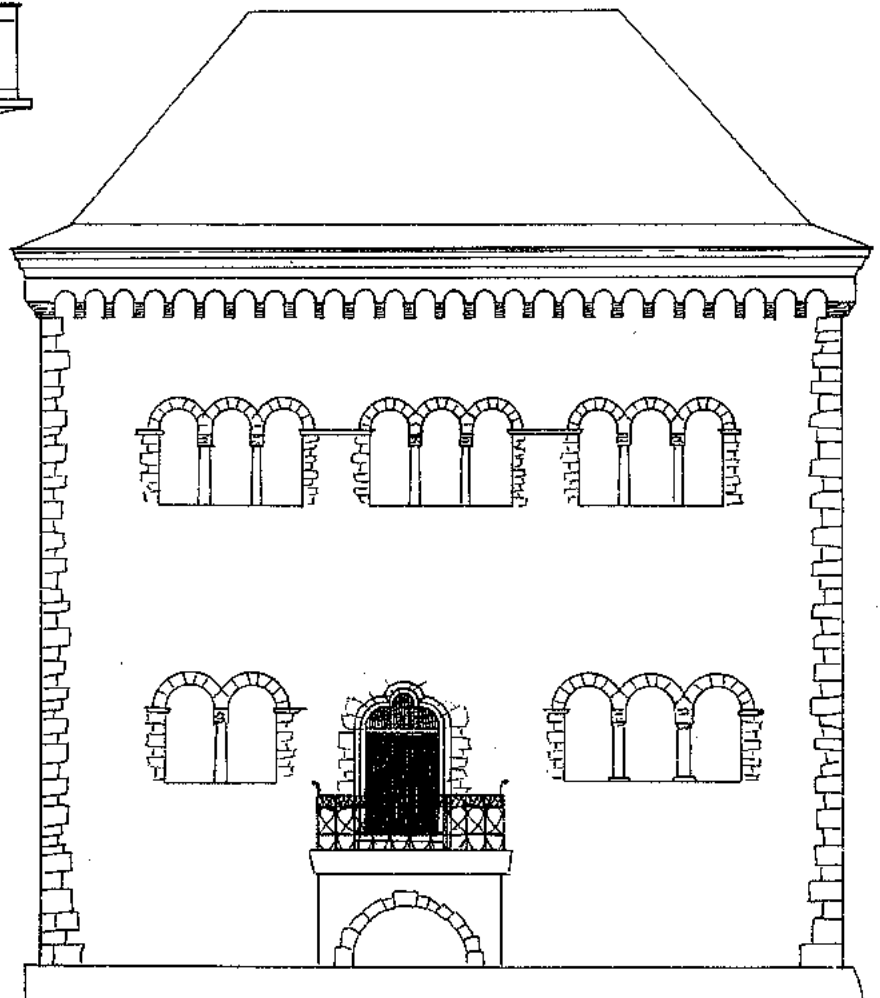
西洋建築의 樣式比較 (6)

建物の 立面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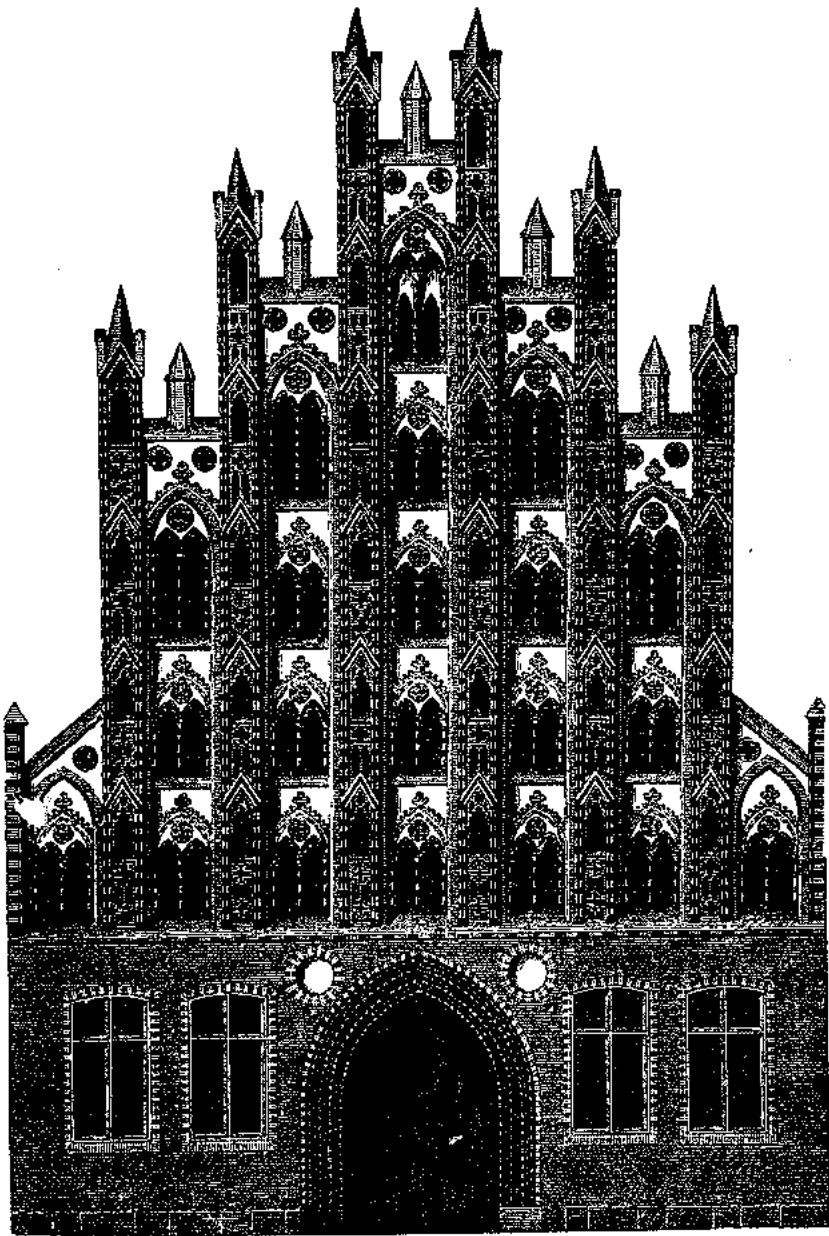
Facade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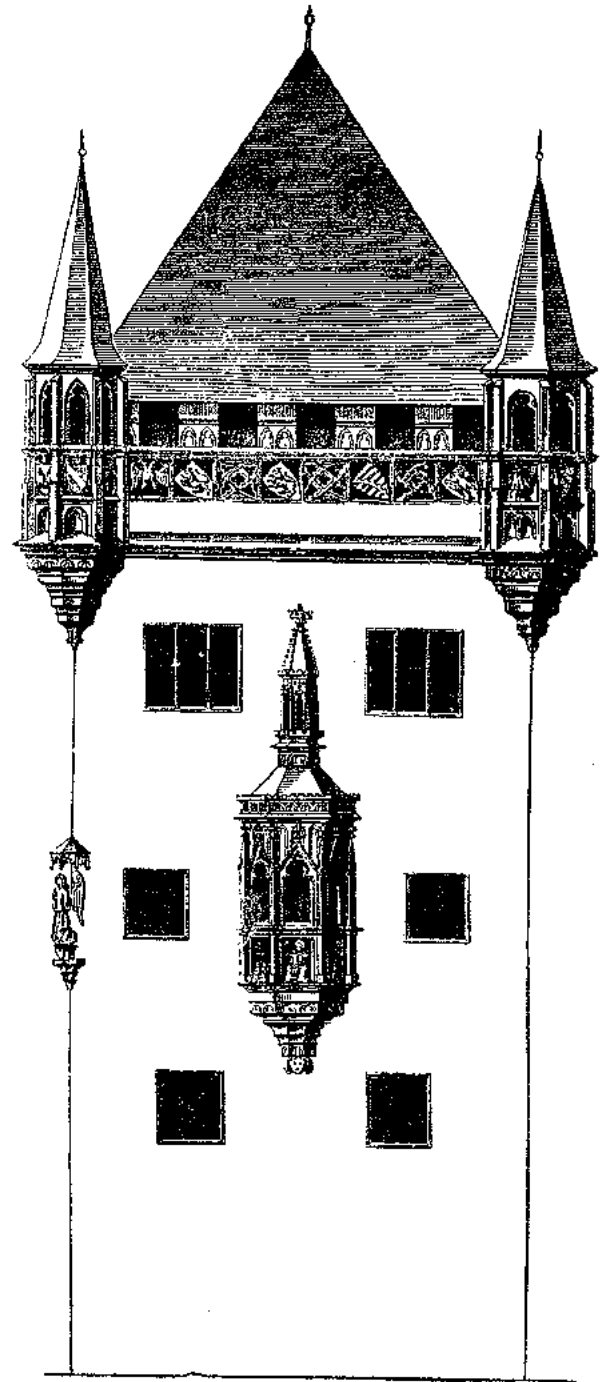
로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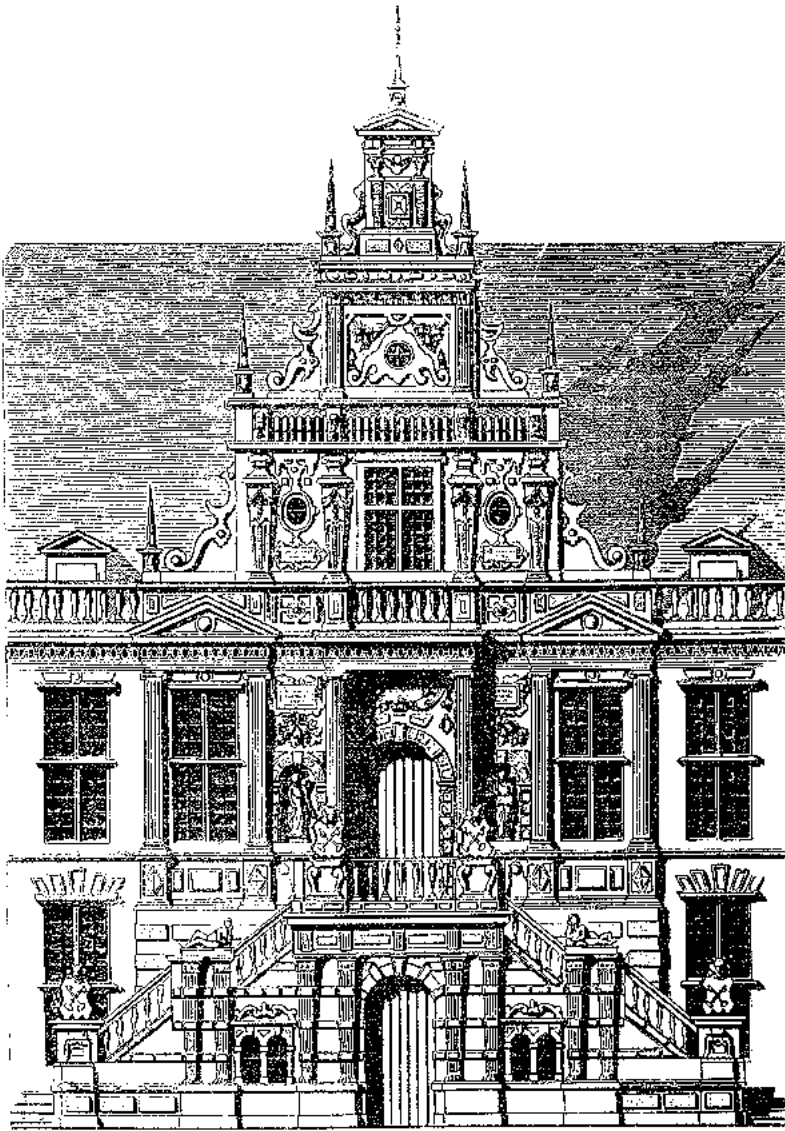
로마네스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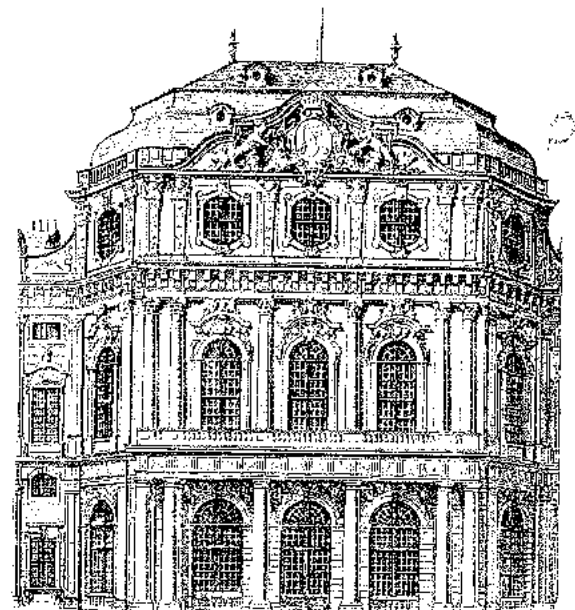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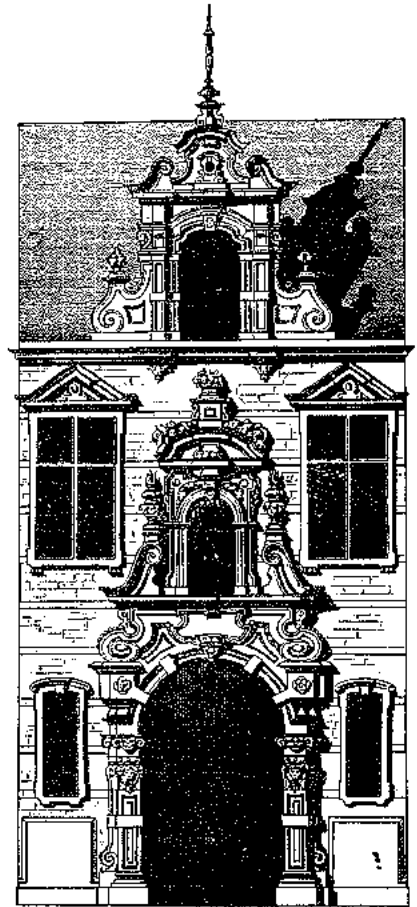
고딕식



고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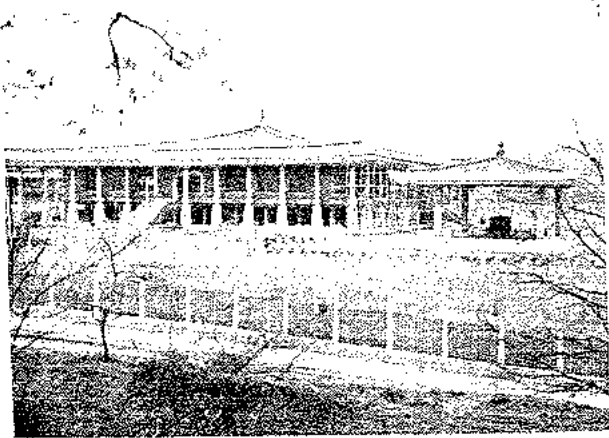


바로크식



바로크식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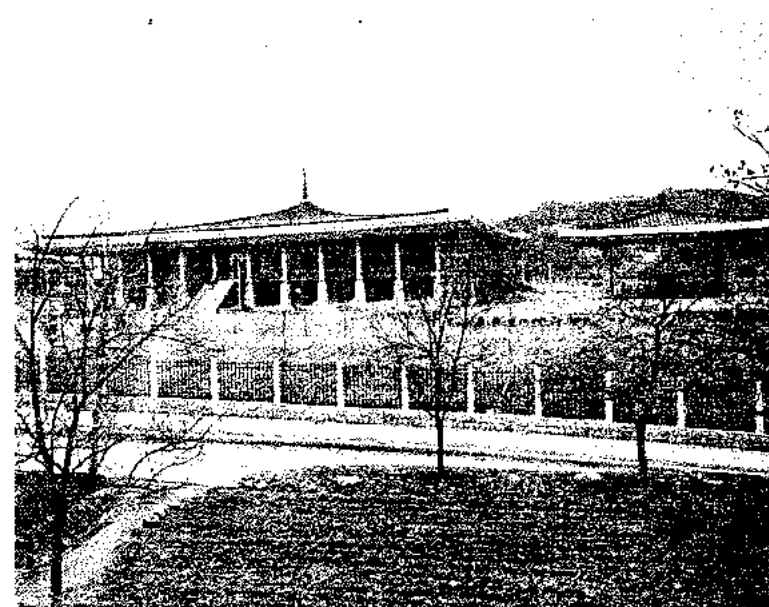
◁ 慶州博物館 設計：李喜泰（李喜泰建築研究所）



韓獨醫藥博物館 設計：朱寧伯（동산건축연구소）▷



慶州博物館 展示本館



慶州博物館

設計：李 喜 泰

〈李喜泰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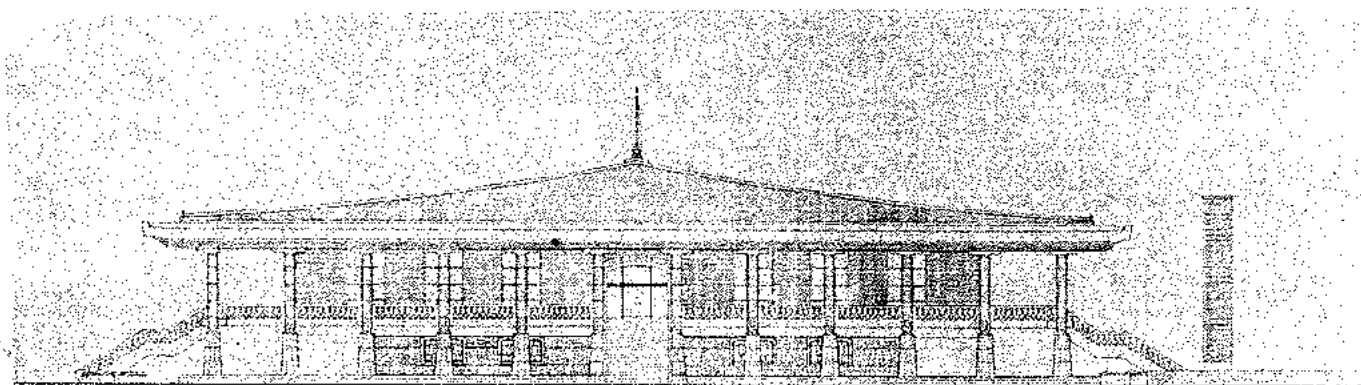


博物館 正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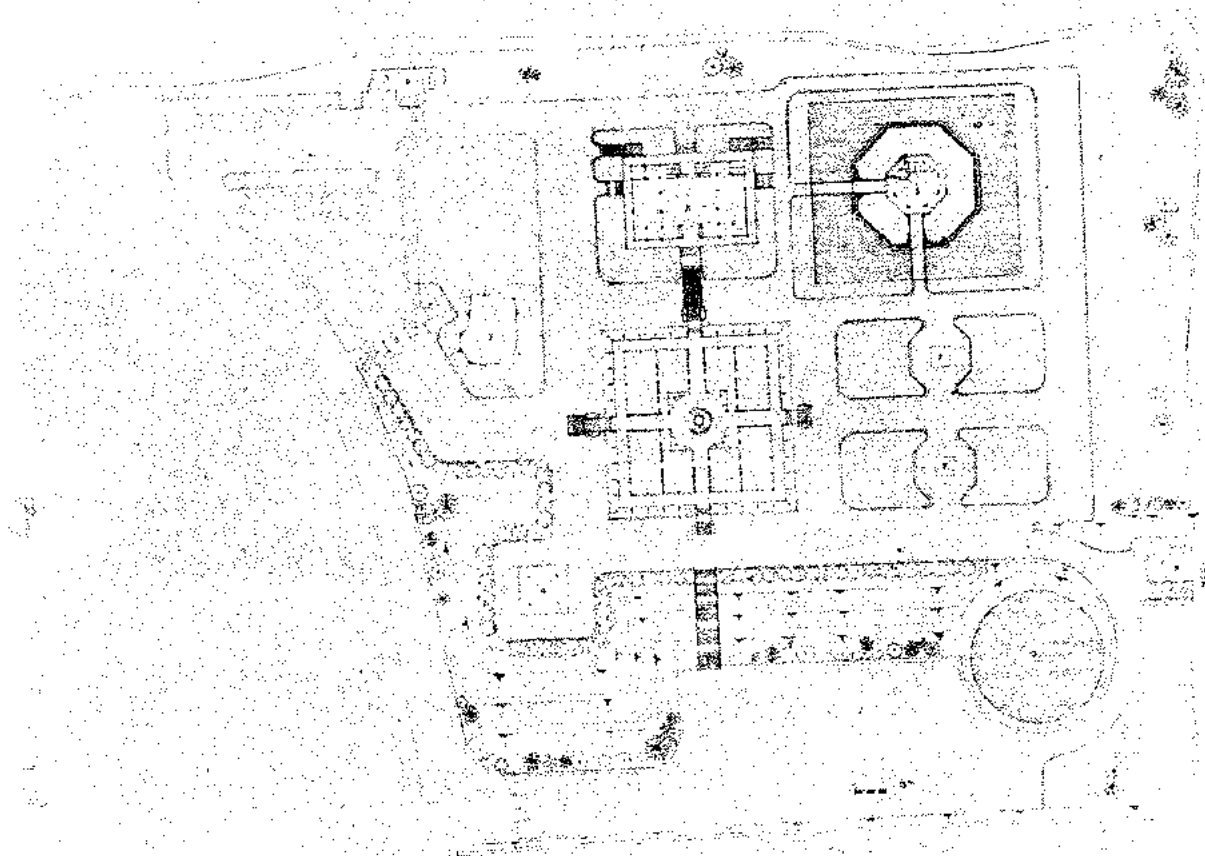
〈凡例〉

1. 展示本館	4,190m ² (1,269.4坪)
2. 古墳館	2,586.21m ² (783.70坪)
3. 休憩所	1,017.51m ² (307.80坪)
4. 鐘閣	80m ² (24.3坪)
5. 正門	
6. 賣票口	20m ² (6.05坪)
7. 石塔展示場	453.2m ² (137坪)
8. 野外便所(2個所)	8.4m ² (각 2.54坪)
9. 甕山	
10. 연못	
11. 駐車場	
延建坪	8,355.52m ² (2,527.54坪)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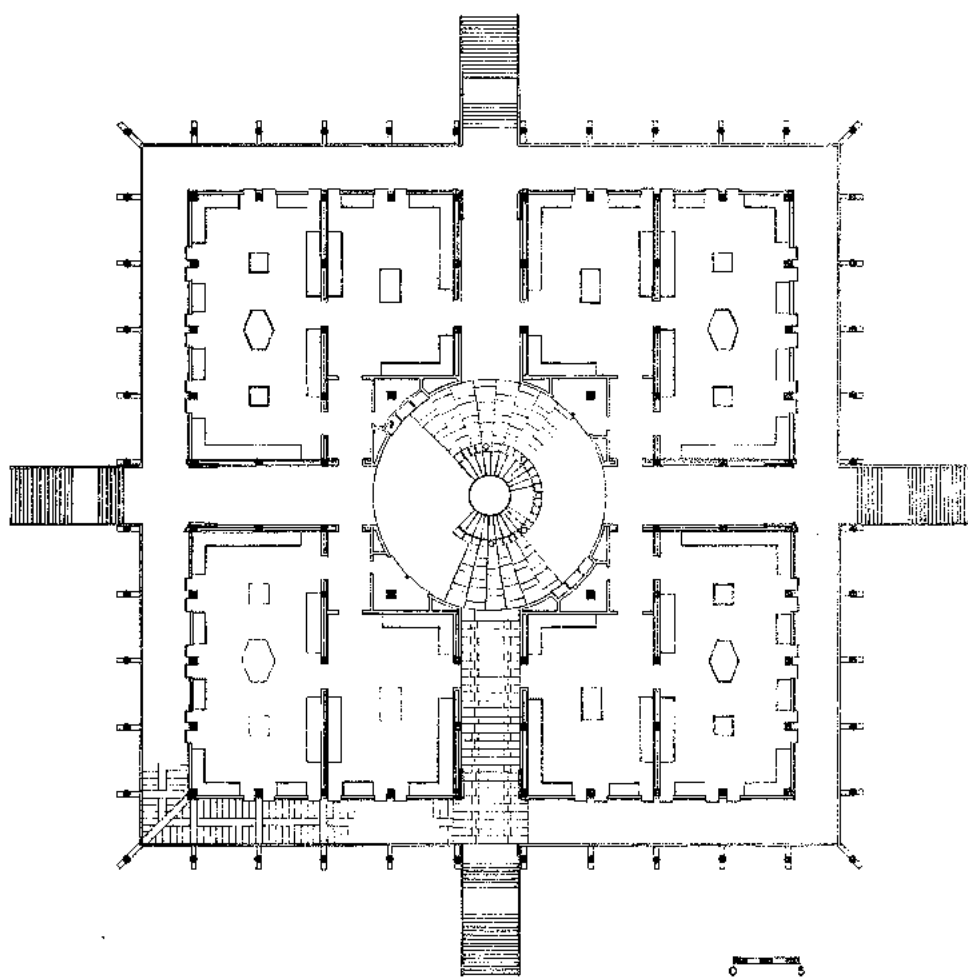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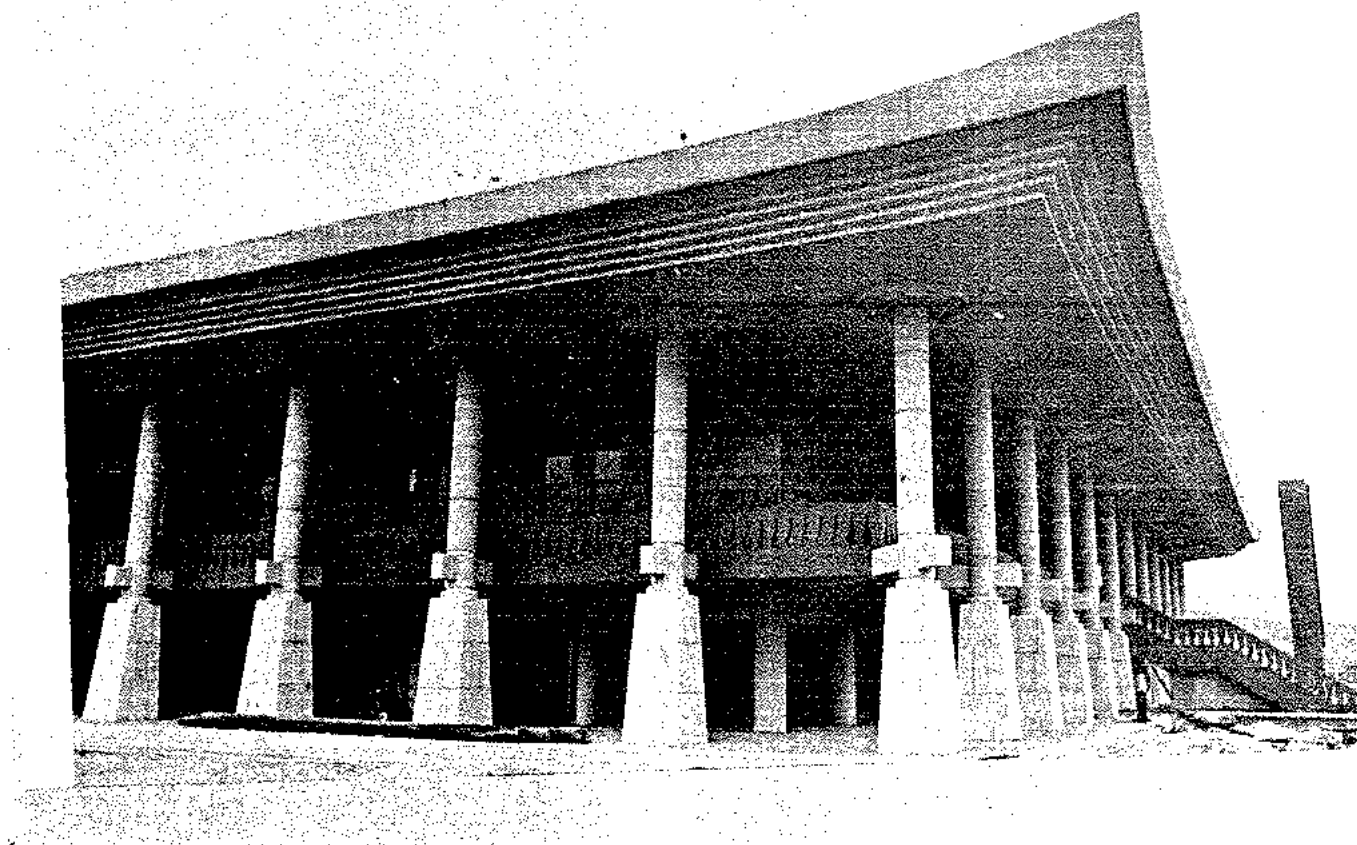


正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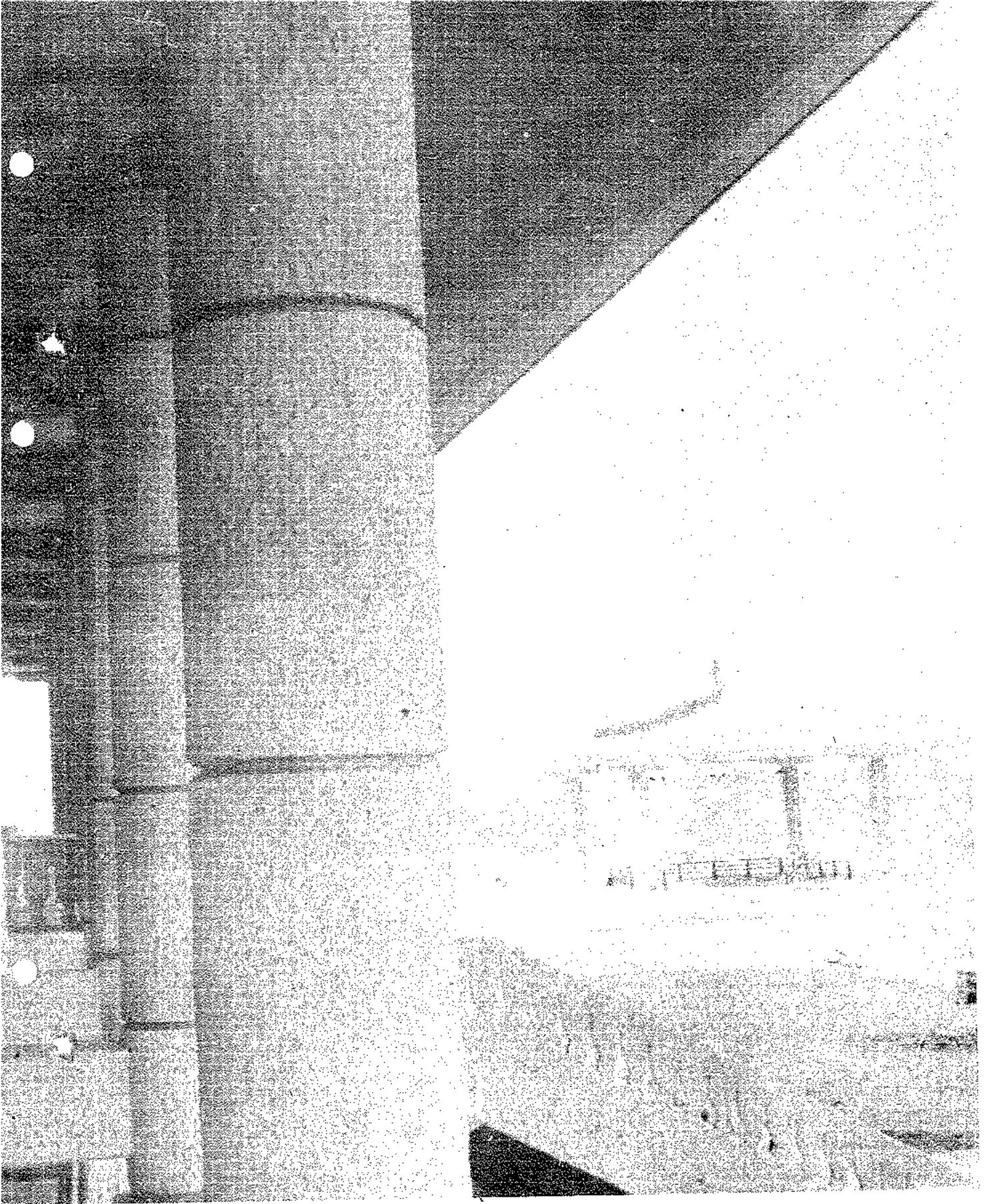
會員作品

平面図



展示本館 平面図

会員作品



韓獨醫藥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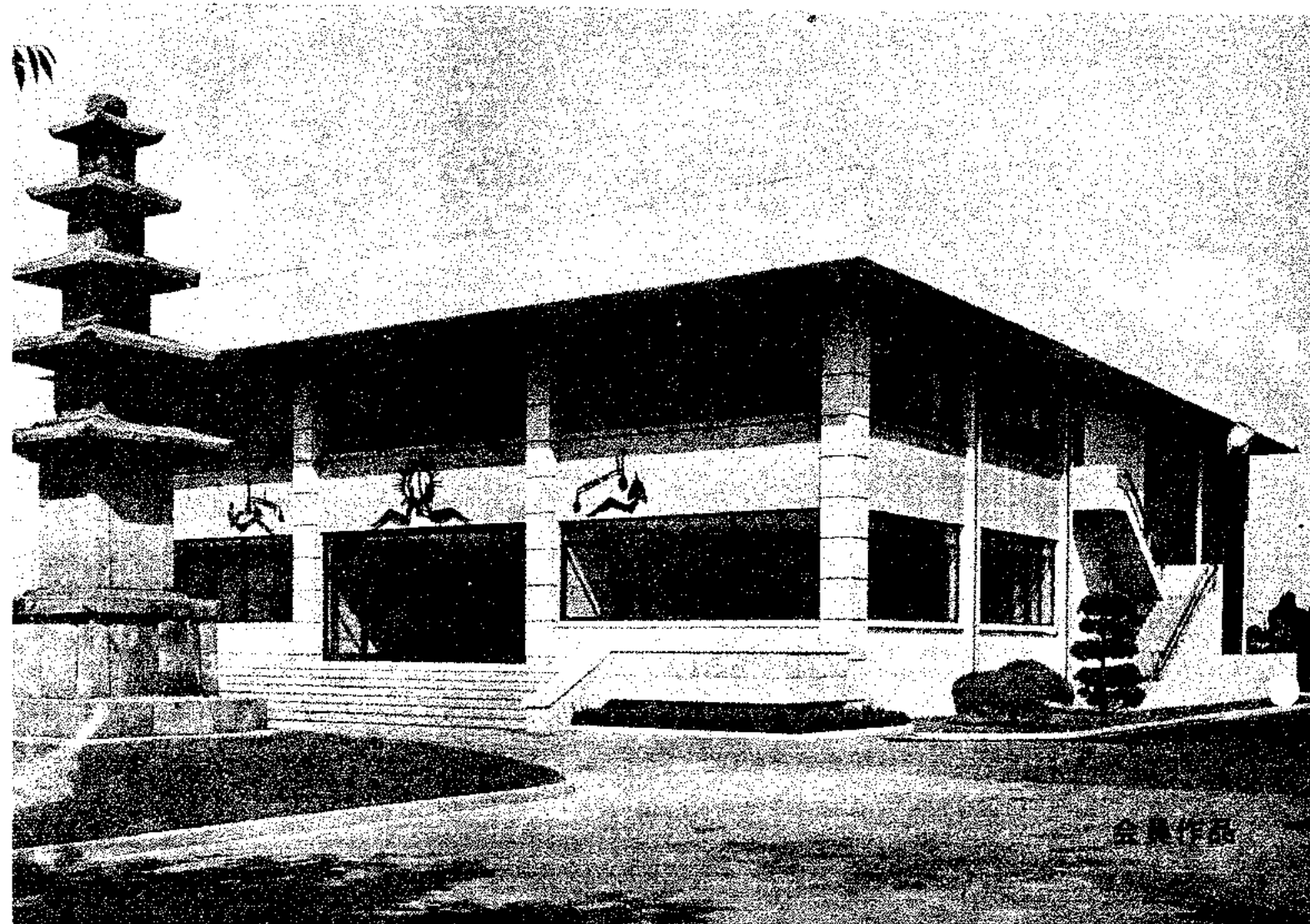
設計：朱 寧 伯
(동산건축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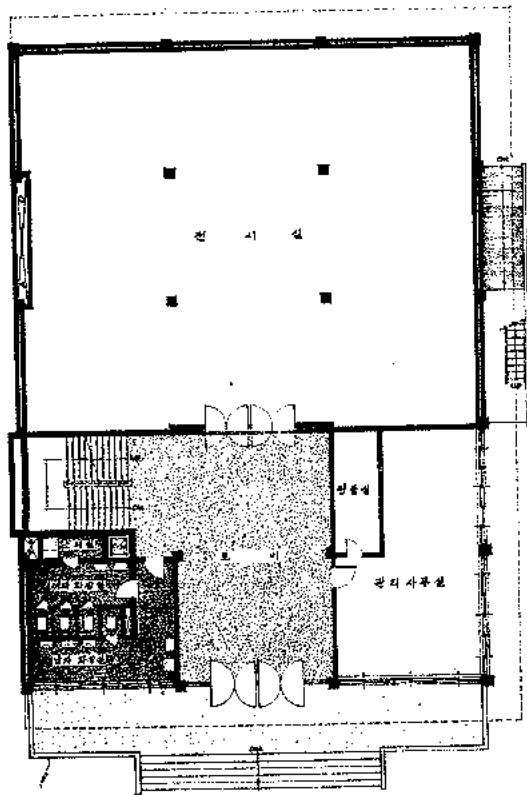
위 치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상봉동 344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담 당 합동열, 정의현, 박봉준
건물면적 지하층 562.8M²
1 층 562.8M²
2 층 562.8M²
옥상층 32.43M²
계 1,720.83M²
준공일자 1974년 9월

박물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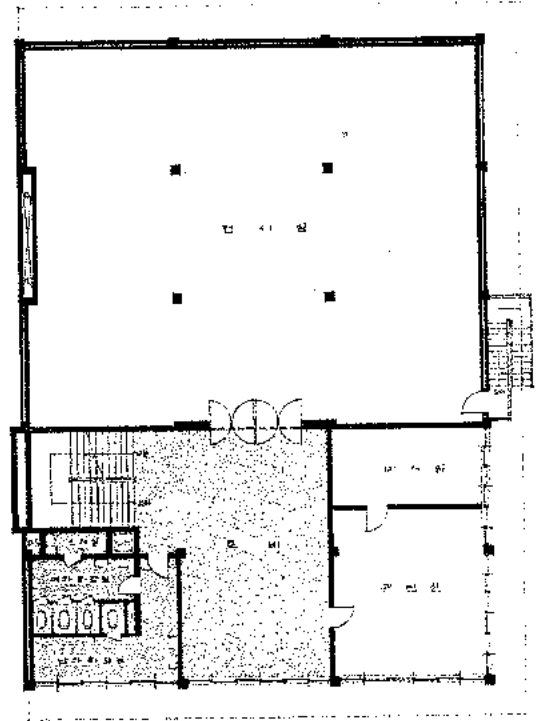
博物館 後面

박물관 중앙에 조각되어 있는 태양과 인물은 번영과 발전을, 그 좌우에 있는 고비(古代)신검기구와 거드하는 인물은 좋은 약을 만들어 질병퇴치에 기여하겠다는 봉사정신과 인류건강에 대한 염원을 상징한 것이다.
(박물관 앞에 있는 탑은 백제때의 5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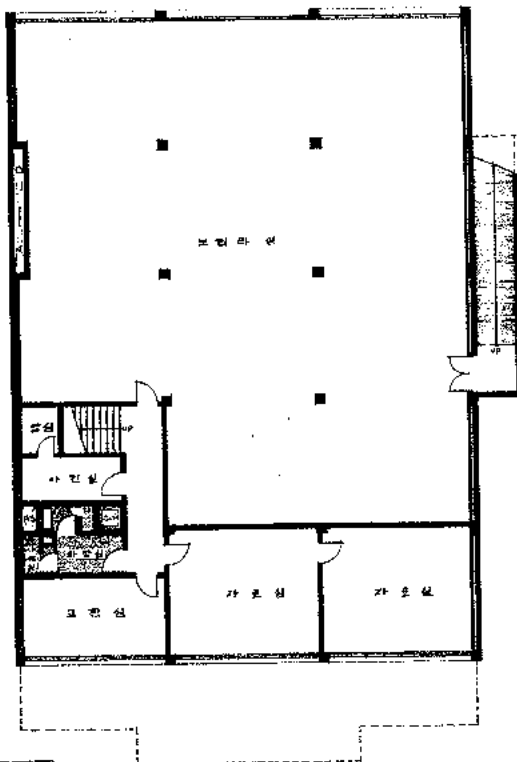




一層 平面圖



二層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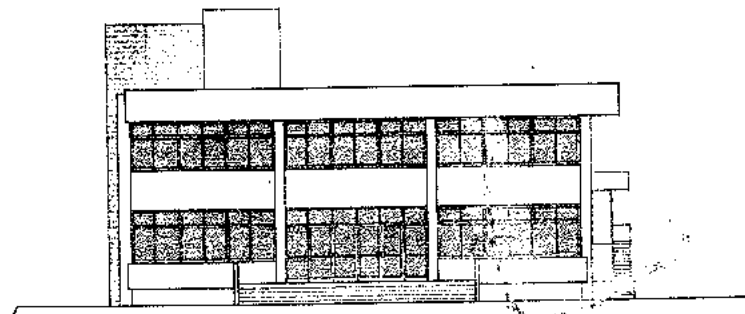
地下室 平面圖

1 층 : 先祖들이 걸어온 醫藥의 발자취를
전해 주는 醫譜, 醫藥器, 藥材 등 醫
藥學史料와 日本, 中國 등을 비롯
한 世界各國의 醫藥學史料가 전시
됨.

2 층 : 우리나라 固有의 民俗文化 資料 등
展示한 民俗館임.

所藏品 : 古醫學書籍 : 4,000여권
古醫藥器 醫藥資料 및 民俗資料
3,000여점

지하실 : 기계실 및 자료실



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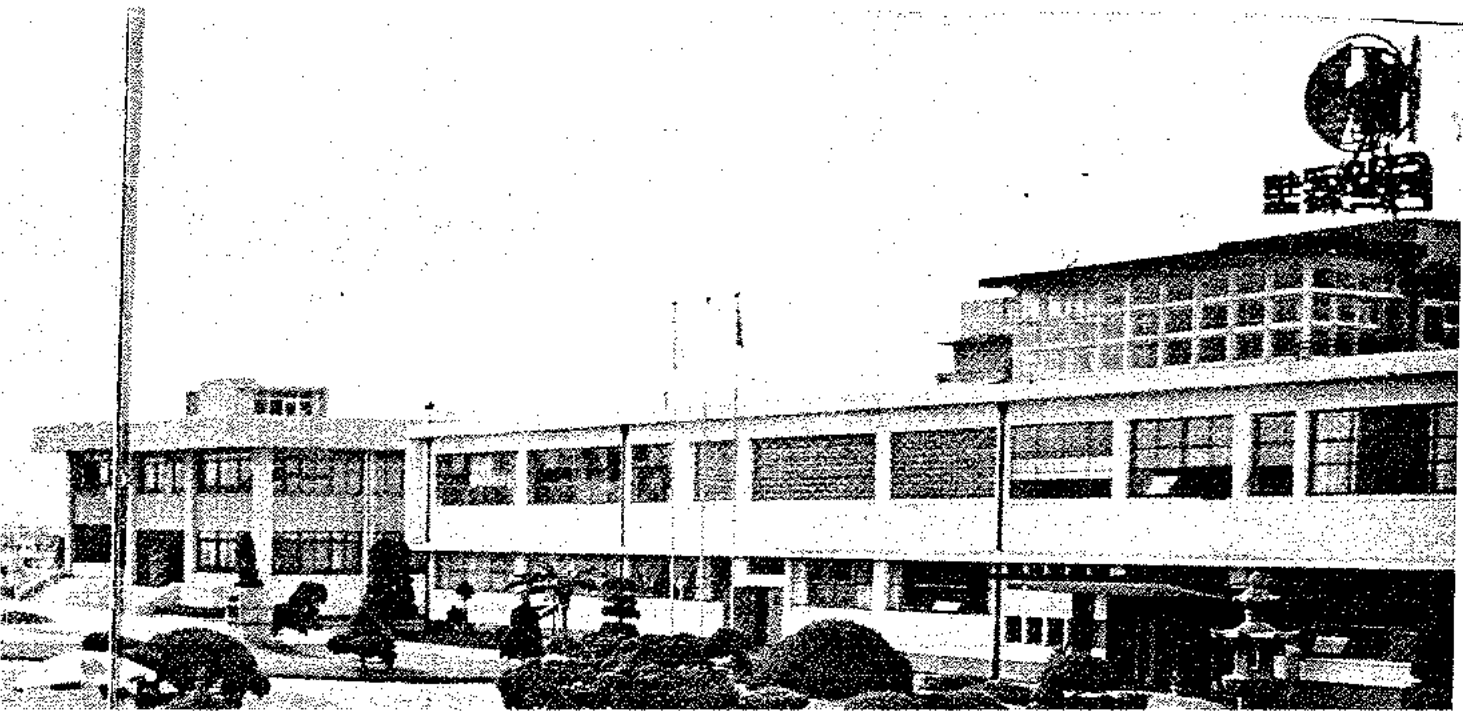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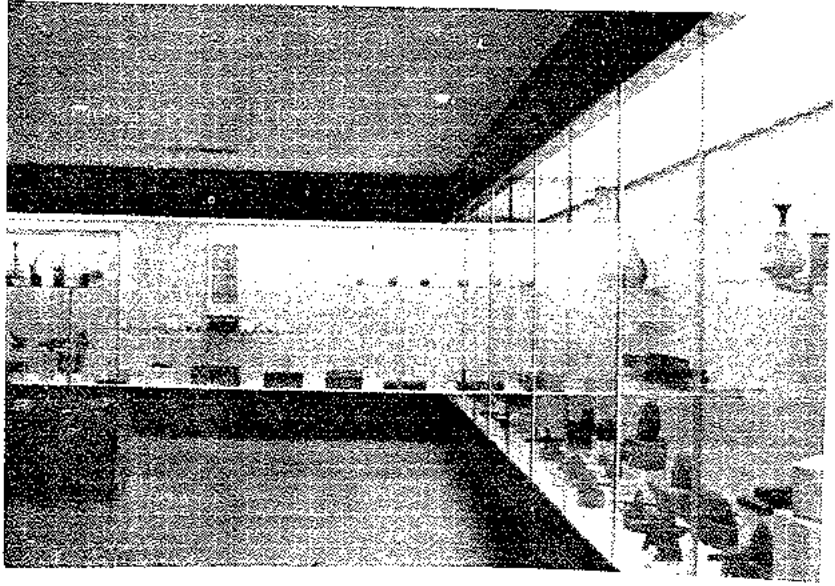


博物館 内部

「韓獨醫藥博物館」은 한독약품이 創立10주년 記念文化事業으로 1964년에 創設했던「韓獨藥史館」을 創立 20주년을 맞는 1974年 에 그 명칭을 개칭하여 건립한 우리나라의 唯一한 醫藥博物館이다.

이 곳에는 우리 先祖들이 길어온 醫藥의 발자취를 전래주는 醫書, 醫藥器, 藥材 등 귀중한 醫學藥史料가 展示되어 있을 뿐 아니라 世界 各國의 醫藥學史料도 展示 되어 있어 汎世界的인 古醫藥學研究機關으로서도 많은 寄與를 할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나라 固有의 民俗文化 資料를 展示한 民俗館도 並設되어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은 연건평 525坪의 地下 2층, 地下 층 건물로서 여기에는 古醫藥學 古籍 4,000여권과 古醫藥器, 醫藥資料 및 民俗資料 3,000여점이 所藏, 展示되어 있다.>



1975年度 第24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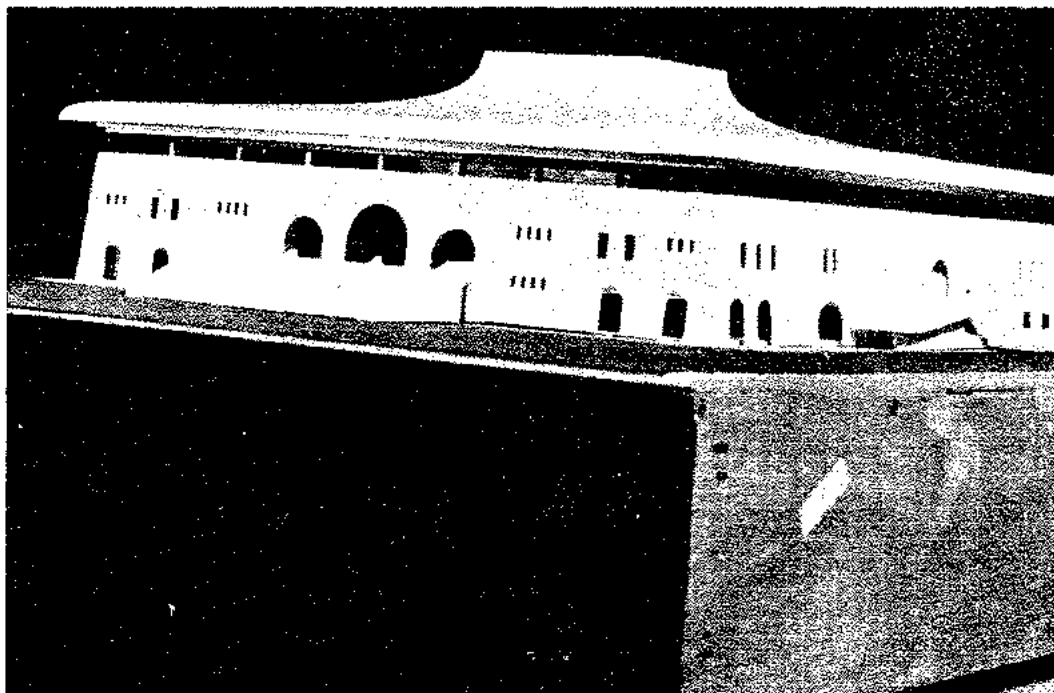
國展 建築部門

〈1〉

文公部長官 수상작품

民俗保存 競演場 計劃

오인욱 김정동
김 철 〈공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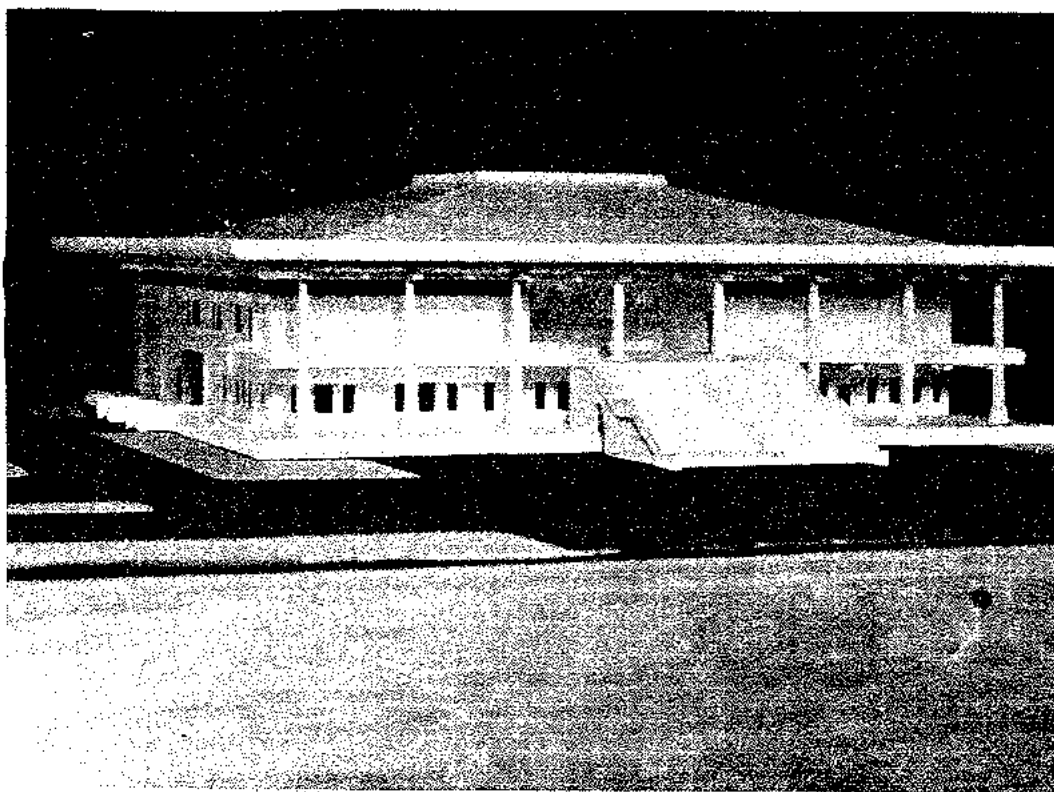
民俗博物館 側面

民俗劇場 側面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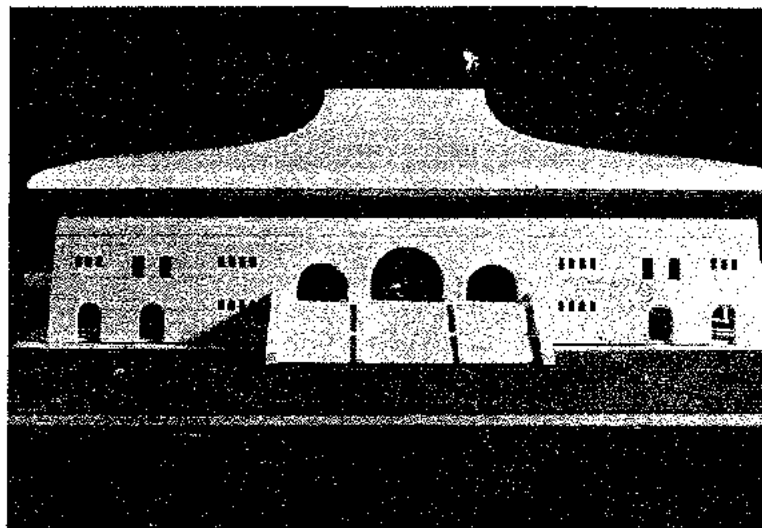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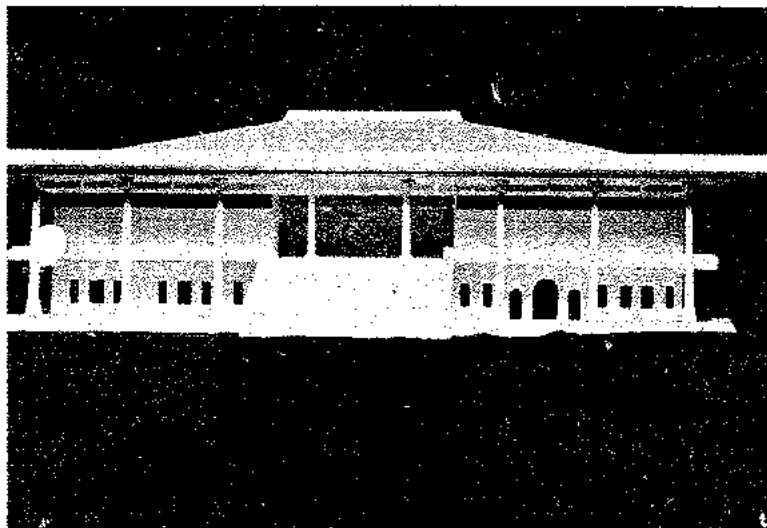
民俗은 우리의 生活習性과 더불어 形成, 유지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조사 수집, 保存, 研究開發은 시급하다. 이러한 意圖에서 계획된 임지는 서울近郊 神道邑, 龍頭里, 郡心에서 10km 이내 位置에 있는 「西瓦陵」주위 일대이다. 이곳은 서울 郡心에서 비교적 가까운 交通距離에 있어 市民의 休息處로서의 公園地가 可能하여 史蹟地이기 때문에 民俗關係 施設과 相互補完할 수 있는 景觀을 갖고 있다. 이곳에 「民俗保存競演場」을 계획함에 있어 그 機能을 動的空間 DYNAMIC SPACE 와 靜的空間 STATIC SPACE 로 分類했으며 動的 空間에는 圓形경기장, 직선경연장, 野外競演場等を 靜的空間에는 民俗劇場, 民俗博物館, 民俗保存研究院(會館결속) 民俗전주土等を 各各 두었다. 이러한 계획은 將次 國際民俗博物館을 될수 있는 民俗의 殿堂으로도 使用 可能케 하는 目的을 達했다.

延面積 2,000㎡ (850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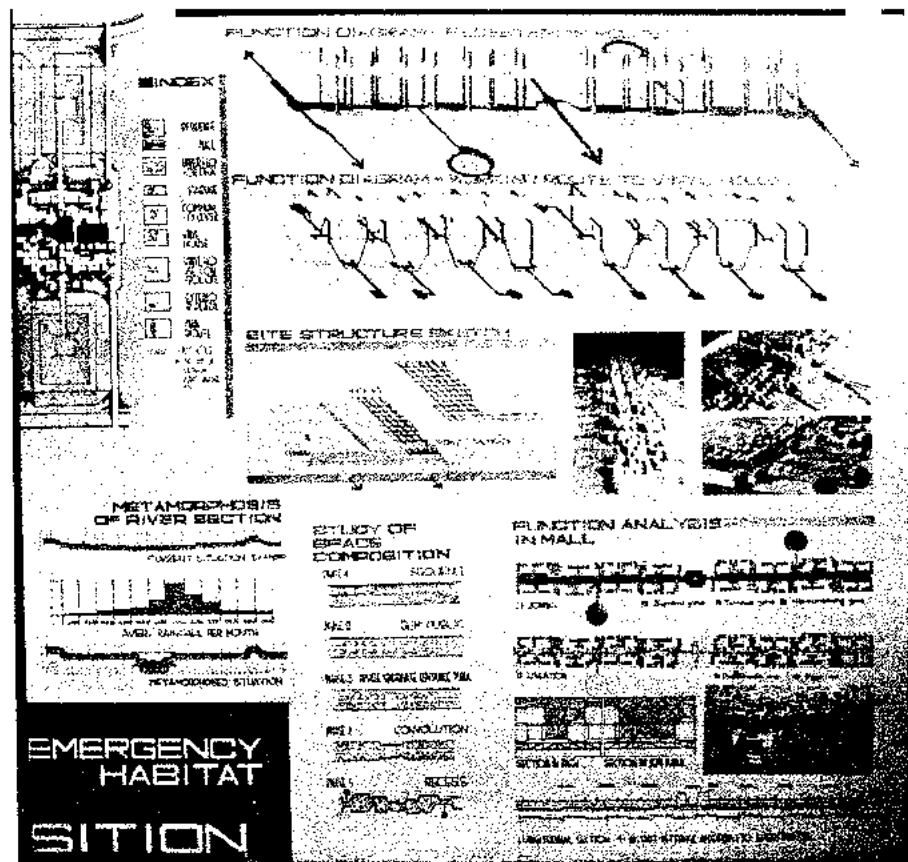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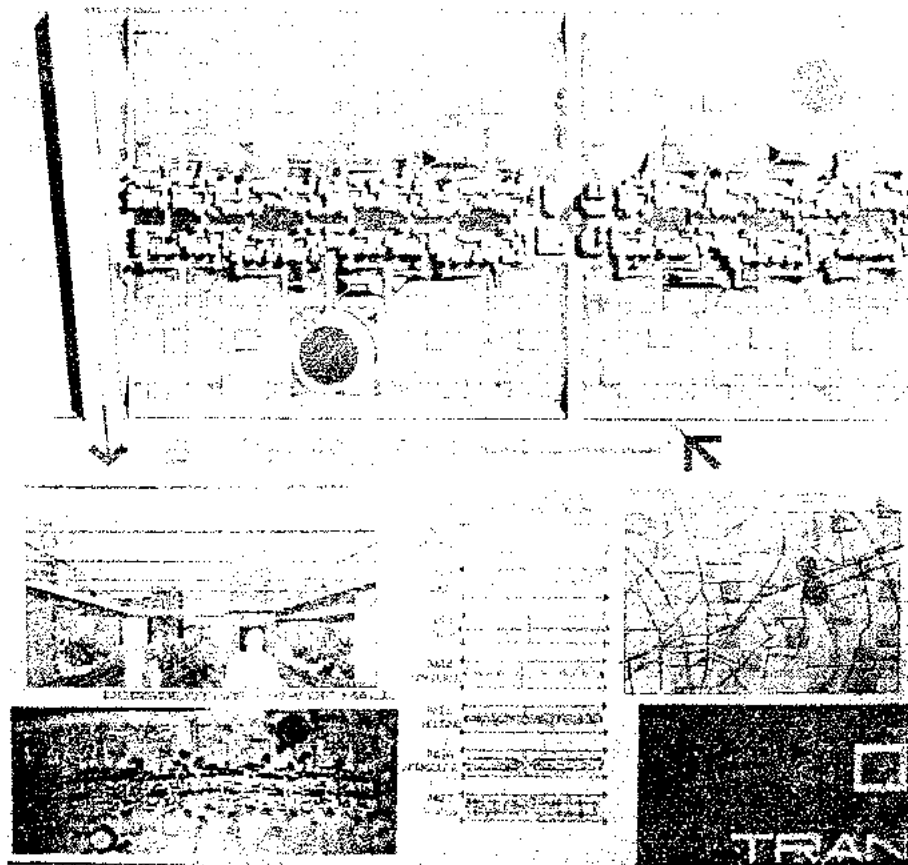


民俗博物館 正面

民俗劇場 正面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建築工学科 編



作品 1. 轉移住居計劃案 Transition Settlement

設計概要:

都市危機(Urban Crisis)란 말이 자주 거론되는 지금,大都市의 機能은 점차 마비되어가고, 그의 環境은 날로 惡化되어 가고 있다.

여우기, 서울의 無許可住居群은 주로 6.25動亂과 4.19革命등 社會의 混亂期를 틈타 形成된 人口移動의 結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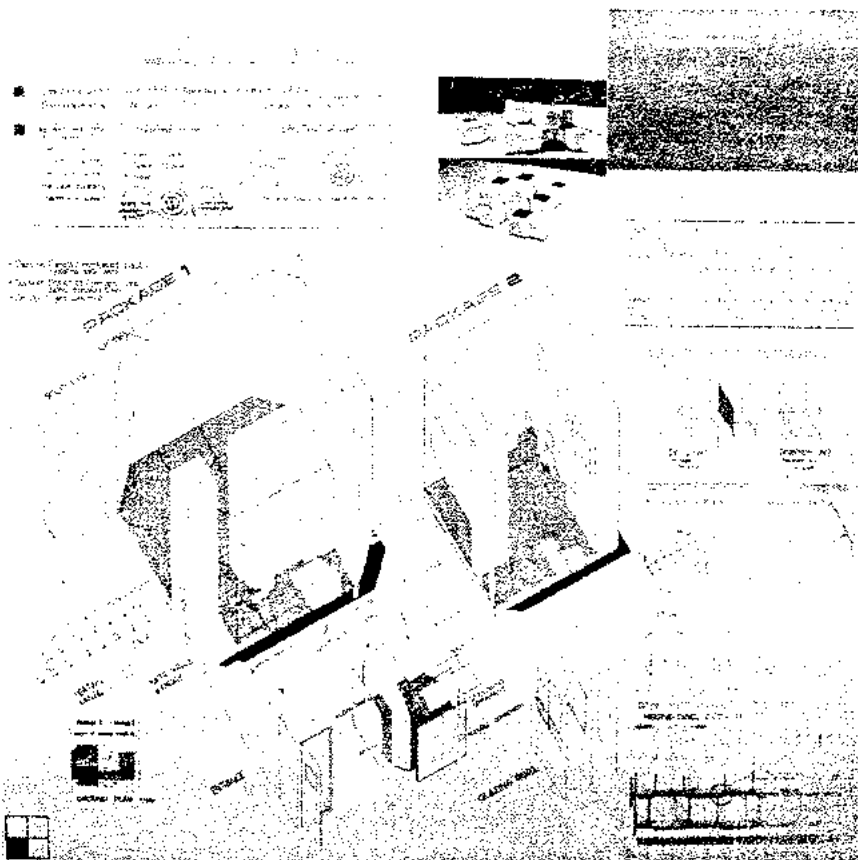
우리가 選拔한 中浪川邊의 무허가 주택은 9月末 아무런 対策없이, 撤去對象에 되어, 이른바 貧民住居危機의 惡循環이 再生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낮은 生活水準에도 불구하고, 西歐의 Slum과는 달리 旺盛한 生活意慾과 生産能力을 가지고 있어, 適合한 生活環境과 耕作地가 提供된다면, 그들은 安定된 住居로 轉換될 수 있을 것이다.

"Transition Settlement"란 以前環境에서 좀 더 나은 未來의 定着地를 가기 전의 轉換時期的 住居地域을 意味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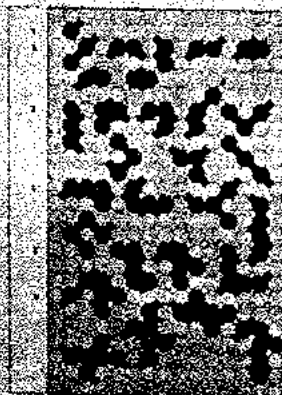
우리는 一般의 觀點에서 에너지 問題, 人口爆發, 社會組織의 破壞 등으로 惹起되는 Emergency의 概念을 自然災害, 戰爭으로 인한 急激한 "動的 Emergency"와는 다른, 停滯된 都市의 生態的 環境에 關한 "靜的 Emergency"로 解析하였다.

Design 方法으로는 먼저 可變의 水量을 誘導하는 Channel위에 Deck를 두고 Convoluted mall 양측에 撤去對象住民을 1차적으로 수용하는 段階의 Plan을 세우고 그리하여 생기는 양쪽 河床을 그들이 自立할 터전으로서 耕作地를 마련하여 協業하며 生活하도록 模索하였다. 모든 空間은 連續的이며, Semi-public space를 充分히 두어, 共同生活部分에 主力하였다. 住居單位의 構成은 用途를 極大化한 最小限의 Poly Function Space로서의 Package I, II를 가족구성 에 따라 組合된다. 모든 部材는 Panel과 組立材이며, 經濟의 條件을 고려하여 溫突 truss, Heating panel로 이루어지는 온돌 System을 固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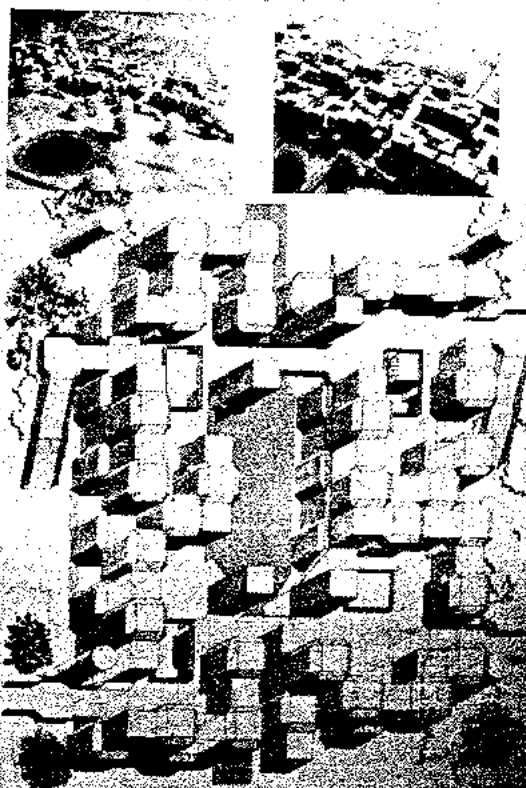


VIEW CORNER

UNIT COMBINATION



COMMUNITY





EASTERN AREA. IN THE LAND OF MORNING CALMS. IN THE TRADI-

DYNAMIC SPACE
DESIGN OF VITALITY

STAFF OF CO-EXISTENCE
LIVING SPACE OF OUR OWN

MAIN ROAD LEADING TO THE TEMPLE
SPACE + POINT LINE

A POINT OF CONTACT TO SOCIETY
A TEMPLE SPACE FROM THE ROAD

WHAT DO WE HAVE OVER US?

CREATION
HUMANITY

LOCALITY
HUMANITY

Inbred babitat

그리하여 設計의 主眼點을 古有의
우물을 둘러싼 共同社會와 같은 co-
mmunity를 가늠케 하는 점 (단지 계획)
과 전통적 양식의 생활을 담은 주거
(unit)와 자연과 대화할 하는 생활
의 계획에 두었다.

site를 한국의 전통적 주거지역이
나 현재 황폐되어가는 지역(원서동-
비원열)을 잡아 그곳에 활기를 불어
넣어 전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
다. (Creation & veservation)

site 황폐화의 물리적 원인을 경사에 의한 向, 도로문제, community의 부재 등으로 보았다.

이 해결책으로 Community에 위계(hierarchy)를 두어 막다른 골목으로 처리하였으며 옥상에서는 terrace garden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level의 variation으로 日光의 차단이 안되도록 하였고 비원쪽으로 시계(視界)를 열어주었다. 도로는 단지주위를 환상차도로 하고 橫路로 各unit에 service되도록 하고 아래서 언덕위까지 넓은 街路公園을 造成하였다.

Unit에서는 뒷마루와 같은 senriopen space로 外界와 연결하여 자연과 상호 貫入되는 生活을 가능케 하였다.

언덕의 頂上部에 open space를 두어
정자와 같은 space를 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東과 西의 文化가 합하여 새로운 傳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김억, 김현식, 김진우, 민상기
민태규, 신동우, 이승권

規格資材使用指針

건 설 부

1. 적용범위

국민주택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85평방미터 미만의 일반주택에 적용한다.

2. 표준창호 개구부

창호 개구부는 별표 1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만을 위한 것과 같이 특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규격조적재의 사용

벽, 기둥, 기초 등 주요구조부용으로 사용되는 조적재는 별표 2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건축허가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는 표준화된 개구부의 규격과 규격자재로 설계 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허가 및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심사와 공사 검사결과 본 지침에 위배될 때는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지침 적용은 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창개구부의 규격

	6M	9M	12M	15M	18M	21M	24M
6M							
9M							
9M							
10M							
12M							
14M							
16M							

(1) 1M = 100% = 10cm (M (एम)는 모유표시로 기본단위임)

(2) 허용치는 ± 5%

(3) W는 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4) 규격은 외각치수임. ※도면상에는 기초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예) 18은 수평방향
12는 수직방향

(1) 1 M = 100% = 10cm (M (예)는 모듈표지로 구분단위임)

(2) 허용치는 $\pm 5\%$

(3) W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4) 규격은 외각치수임. ※ 도면상에는 기호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예)

$$\frac{21 \times 18}{D}$$

21은 수평방향

18은 수직방향

2) 문개구부의 규격

	7M	8M	9M	12M	15M	18M	21M	24M
18M	(W) (H)							
20M								
21M						(W)		
22M						(H)	$\frac{21 \times 22}{D}$	
24M								

	27M	30M	33M	36M
18M	(W) (H)			
20M				
21M			$\frac{33 \times 21}{D}$	
22M				
24M				

(별표 2)

1) 소성벽돌(보통벽돌)

(단위: %)

구 분	길 이	폭	두께	비 고
규격	190	90	57	압축강도 100kg/cm ² 이상 흡수율 13% 이하
허용치	± 3	± 3	± 4	

2) 소성블록

(단위: %)

구 분	길 이	높 이	두께	비 고
규격	290	150	90	압축강도 60kg/cm ² 이상 흡수율 16% 이하
	290	100	90	
허용치	± 4	± 4	± 4	

3) 시멘트 벽돌

(단위: %)

구 분	길 이	폭	두께	비 고
규격	190	90	57	압축강도 50kg/cm ² 이상
허용치	+ 3 - 2	+ 3 - 2	+ 3 - 2	

4) 시멘트 블록

(단위: %)

구 분 규격	길 이	높 이	두께	비 고
190	290	190	190	압축강도 40kg/cm ² 이상
	390	190	190	
150	290	190	150	
	390	190	150	
100	290	190	100	
	390	190	100	
허용치	± 2	± 3	± 2	

※ 本「規格資材使用指針」은 치수表示의 誤植으로 이번호에 바로잡
아 再掲載하오니 業務에 差質없으시길 바랍니다. (編輯・註)

내 祖國 내 民族은
우리가 死守한다

너도 나도 總力安保
北傀蠻行 粉碎하자

大韓建築士協會

航空障碍物 標識設置에 關하여

交通部 서울地方 航空管理局 管制所 제공

航空機の 航行 安全을 위해 航空法 第40條, 第41條 및 同法 施行 規則 第 133條, 第 134條, 第 135條, 第 140條, 第 141條, 第 142條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第14 에 의거 設置 運用하고 있는 航空障碍物 標識에 있어 建物 및 其他 施設 設備時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航空障碍物標識(주간 및 야간) 관리 運用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航空機 安全 運航의 不安全 要素가 되고 있어, 建物 및 其他 設備 施設 當局의 航空障碍物 標識 적부검사를 받도록 關係機關에 要望하고 있는 바, 特히 會員의 高層建物 設計時 有意할 사항임으로 「航空法 關係條文」 「施行規則」 「設置基準」 및 「航空機障碍物 設置許可 申請書」의 樣式 과 防空法 및 燈火管制 規則을 紹介한다.

航空法 關係條文

◇ 航空法

第40條(障碍物的 制限等) ① 누구든지 公共用的 飛行場에 對하여 第34條(第36條 第2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公告가 있는 後에는 그 公告에 表示된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이들이 投影面이 一致하는 部分에 關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表面으로 한다.) 위에 나오는 높이 的 建造物(公告한 當時 建造中에 있는 建造物의 當該建造工事に 關係되는 部分을 除外한다.) 植物 其他의 障碍물을 設置 栽培하거나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假設物 其他 交通部令의 定하는 障碍物(進入表面 또는 轉移表面에 걸리는 것은 除外한다)로서 飛行場 設置者의 承認을 얻어 設置, 放置하거나 使用開始 豫定日前에 除去할 障碍물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 飛行場 設置者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設置, 栽培 또는 放置한 障碍物(成長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위에 나올 植物을 包含한다)에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 當該 障碍物的 除去를 要求할 수 있다.

③ 飛行場 設置者는 第一項의 公告當時 現存하는 障碍物로서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 위에 나오는 障碍物(公告當時 現存하는 植物로서 成長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 위에 나오게 된 것 및 公告當時 建造中에 있는 建造物로서 그 建造工事に 依하여 이 表面위에 나오게 된 것을 包含한다)의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普通 生길 수 있는 損失을 補償하고 當該障碍物的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위에 나오는 部令의 除去를 要求 할 수 있다.

④ 前項의 障碍物 또는 그것이 있는 土地의 所有者는 그 障碍物的 除去로 因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 使用收益에 懸著한 困難이 生길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飛行場 設置者에 對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 買收를 要求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去될 障礙物로서 當事間의 協議의 不成立으로 因하여 當該 障礙物을 除去할 수 없게 된 境遇에 交通部長官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飛行場 設置者에 對하여 當該 障礙物의 除去를 命할 수 있다.

⑥ 前項의 境遇에 交通部長官 또는 飛行場 設置者는 障礙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除去로 因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損失補償의 金額은 航空審議會의 同意를 얻어 交通部長官이 決定한다.

⑦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土地 收容法의 規定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41條 (航空障礙燈의 設置等)

① 飛行場 設置者는 交通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轉移表面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區域內에 있는 物件(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航空障礙 等을 設置할 物件은 除外한다)으로서 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物件에는 航空障礙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前項과 第四項에 規定하는 物体以外의 物体로서 航空機의 航行의 安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航空障礙燈을 設置해야 한다.

③ 前2項의 物体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飛行場 設置者 또는 交通部長官이 行하는 航空障礙燈의 設置를 거부할 수 없다. 이 境遇에 物体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損失을 가졌을 때에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損失을 補償 한다.

④ 누구든지 地表 또는 水面으로부터 60m 이상의 物件을 設置하는 者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航空障礙燈과 주간 장애표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航空障礙燈과 주간장애표지 설치자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障礙燈과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施行規則

第 133條 (航空障礙燈의 種類의 設置基準)

航空障礙燈은 高光度の 航空障礙燈과 低光度의 航空障礙燈으로 하고, 그 設置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

1. 航空障礙燈의 性能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가) 高光度の 障礙燈

① 燈光은 航空赤의 명멸로서 光源의 中心을 포함하는 水平面下 15도에서 上方의 모든 方向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1分間の 明滅 回數는 20내지 60일 것.

③ 最大光度는 2천 칸데라以上(最大 光度가 2천 칸데라 以上の 燈火를 記置하는 것이 技術적으로 곤란하다고 交通部長官이 認定한 경우에는 交通部長官이 定한 光度)

나) 低光度의 航空障礙燈

① 燈光은 航空赤의 부동광으로서 光源의 中心을 포함하는 水平面下 15度에서 上方의 모든 方向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光度는 20칸데라以上の 것일 것.

2. 航空障礙燈은 다음의 위치에 모든 方向에 航空機에서 當該物件이 인식되도록 1個以上 設置할 것.

가) 物件(피뢰침은 除外한다. 以下 이 号에서 같다.)의 정상, 다만 연돌 기타의 物件으로서 그의 정상에 航空障礙燈을 設置한 경우에 當該 燈火의 機能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下方 1.5미터 내지 3미터의 사이 進入表面 또는 轉移表面의 下方에 있는 物件에 있어서는 이들 表面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할 것.

나) 45미터를 초과하는 높이의 物件에 있어서는 當該物件의 正上에서 地上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로 45미터以下の 거의 동간격의 위치일 것.

第 134條 (航空障礙燈의 管理方法)

(1) 第41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航空障礙燈을 設置하여야 할 物件은 다음과 같다.

1. 進入表面 또는 轉移表面 또는 水平表面에 接近한 物件

2. 前号에 계기한 物件 以外의 것으로서 航空機 向行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物件

物件의 種類	畫間障礙物標識의 種類	設置와 方法
① 2 내지 4 에 계기하는 物 件 以外의 物件	7. 폭이 1.5미 터 미만의 부분 과 그 이외의부 분으로서 그 수 직방향의 길이 가 1미터 미만 의 것	赤 또는 黃色의 1色으 로 도색할 것.
	나. 7이외의 부분.	당해 부분의 수직방향 의 길이가 90미터 미 만의 경우에는 그 길 이 7등분
		90미터이상 18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길 이 9등분하며 180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 를 약 20미터의 등 간 격으로 구분하고 각부 분은 최상부로부터 赤 과 白 또는 黃色과 白 의 순에 번갈아 도색 할 것.
② 지 선	지	단면이 0.6미터 이상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서 赤 또는 黃赤 의 一色 또는 대각선에 의하여 2 등분 각 부분의 赤과 白 또는 黃 赤과 白의 기를 지선의 中央에 달 것.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고 번호	장애물종류
신고년월일	설치년월일
설 치 자	관 리 자
소 재 지	(전화)
좌 표 북 위	동 경
비행장과의관계 거 리	좌 방 위
표 고 지면상	해 면 상
호 텔 명	운용시간

1. 航空法 第40條, 第41條, 同施行規則 第 133條, 第 134條,
第 135條, 第 141條, 第 142條에 의거 航空障礙物 設置 許
可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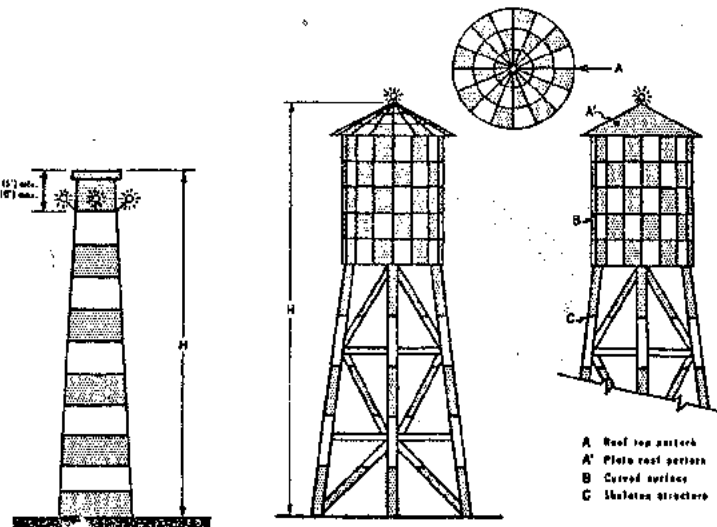
197 年 月 日
신청인 인

서울地方航空管理局長 實下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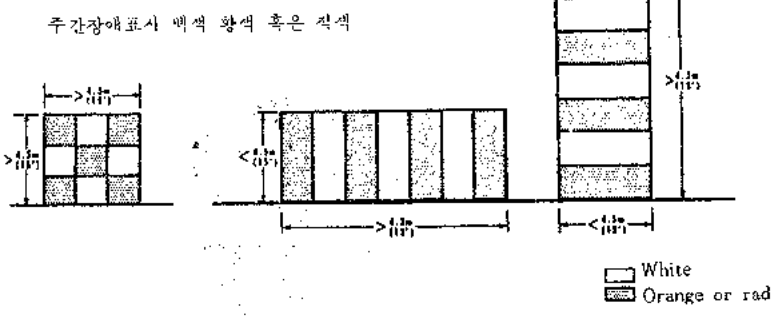
(1) 도면(상부, 전면, 측면, $\frac{1}{800}$, 각 2매)
(2) 저도 선지장소 표시 $\frac{1}{8000}$) 각 2매

종 류		경 계 관 제	공 급 관 제	감 광 조 건
항공 표지	항 공 등 대	주관 관청에 있어서 지시	주관 관청에 있어서 지시	
동류	독립장애발표시등	감광 또는 소등	감광 또는 소등	감광후의 광도는 필요최소 한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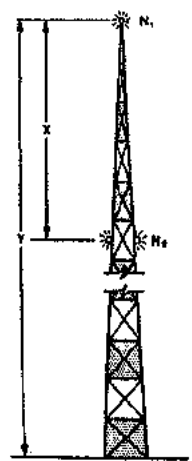


H는 45m 이하에 일

아래의 45m이상 서설시는 중간등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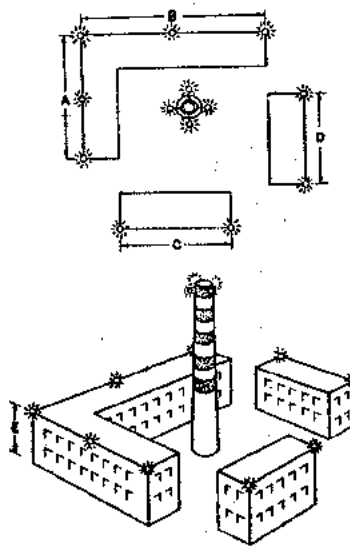
White
Orange or red



$$\text{Number of lights} = N = \frac{Y(\text{meters})}{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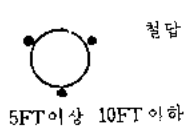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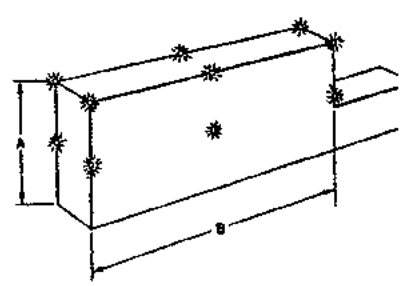
$$\text{Light spacing} = X = \frac{Y}{N} \leq 45\text{m}$$

항공법 시행규칙 제 133조
3항 참조 '육상에 설치된 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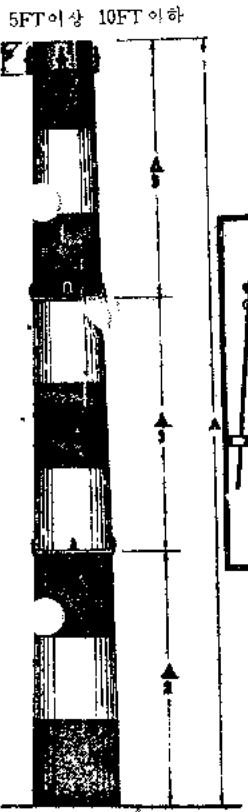


야간장애등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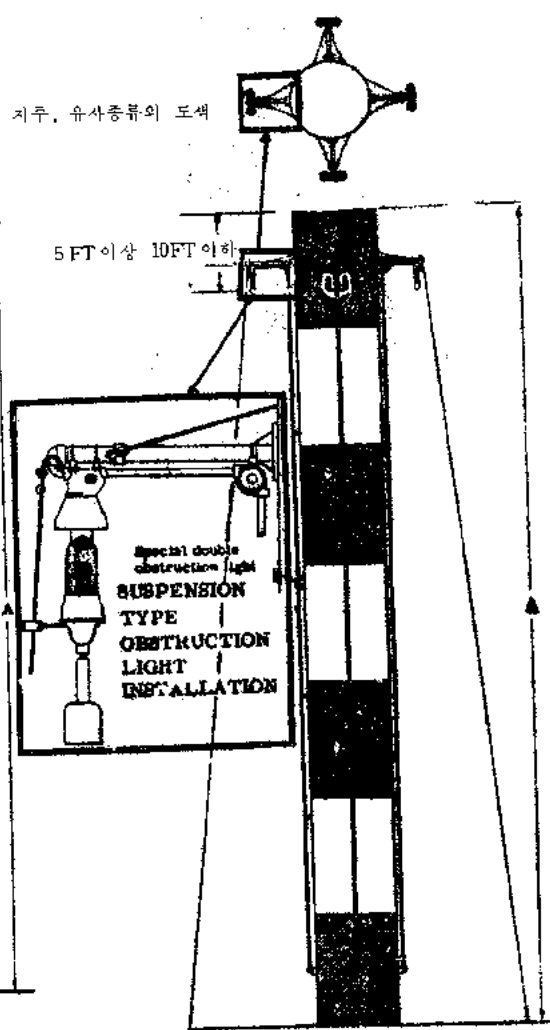
A. B=45m (150') ~ 90m (300)
C. D. E=45m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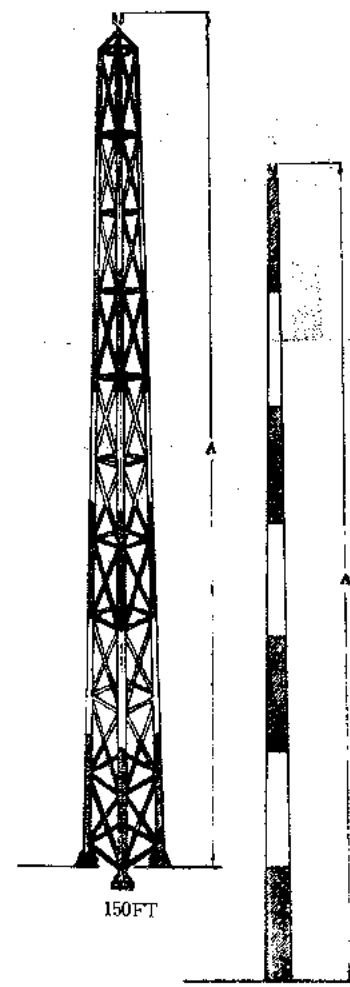
철탑 및 지주, 유사종류의 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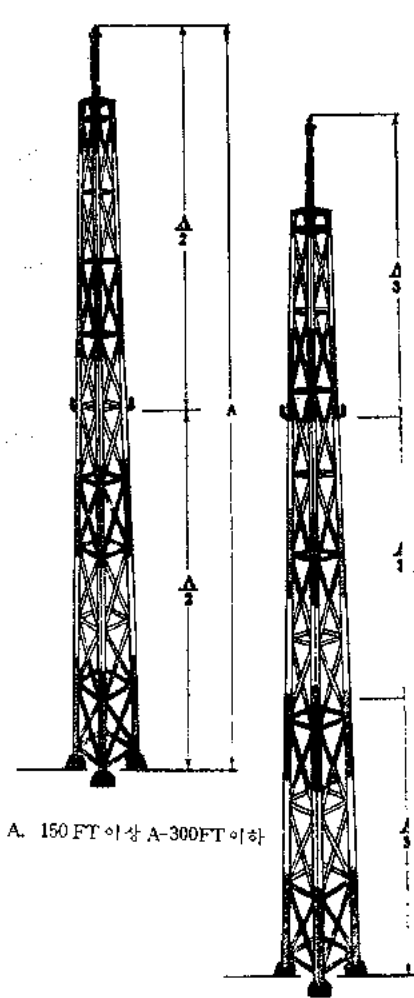
이상 450FT 이하



150FT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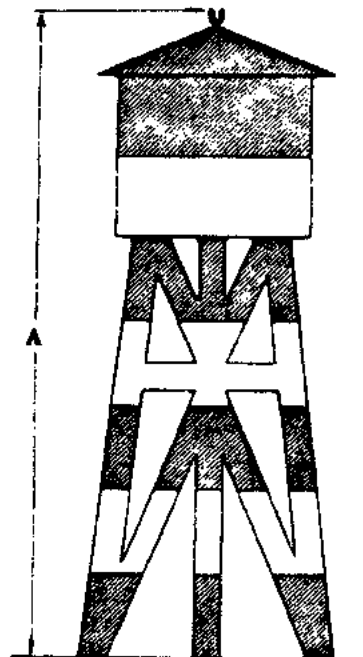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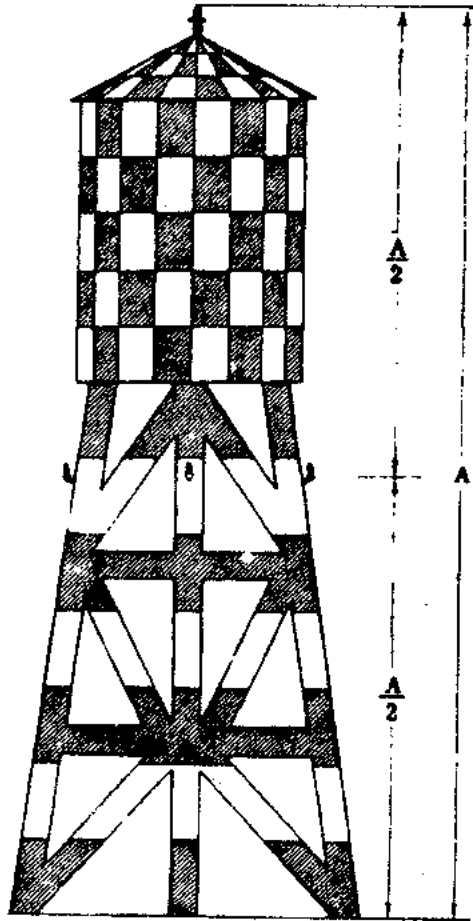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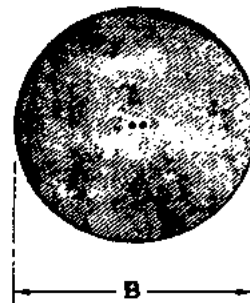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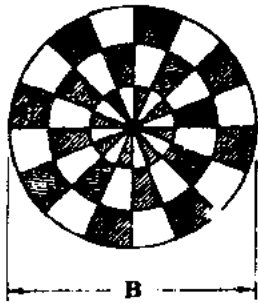


61



A. 150 FT 이상 A-300FT 이하

A-300FT 이상 450FT 이하



LIGHTING

A-150피트~300피트
B-150피트이하

MARKING

A와 B-15피트 또는 그 이상

LIGHTING

A와 B-150피트 이하

MARKING

A-5피트 또는 그 이상
B-15피트 미만

WHM 屋外附設工事指針

韓國電力株式會社
營業部

1. 目 的

電力去來에 使用하는 WHM 및 그 附屬裝置(以下 WHM라 한다)를 屋外附設하므로서 WHM의 檢針, 交換, 點檢, 試驗業務의 能率向上과 擅用의 防止 및 需用家에 對한 奉仕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2. 適用範圍

新設需用家로서 一般住宅(아파트 除外)의 低壓 WHM를 附設하는 境遇의 工事に 適用한다.

3. 用 語

本 指針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가. 屋外附設

WHM를 울타리 또는 담안의 屋側의 壁面에 附設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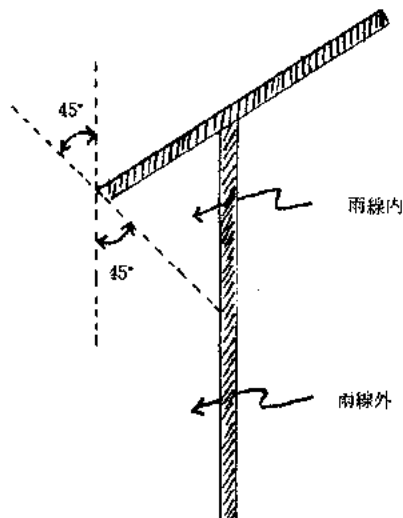
다만, 埋込形 構造로서 쉽게 빼어낼 수 없이 施設한 울타리 또는 담의 外側壁에 附設하는 것도 이에 包含한다.

나. 屋 側

建造物의 屋外側面을 말한다.

다. 雨線內

屋側에 있어서 처마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의 先端에서 鉛直線에 對해 45° 角度로 그은 線內의 屋側部分으로서 通常의 降雨狀態에서 비가 맞지 않는 部分을 말한다.



라. 雨線外

屋側에 있어서 雨線內 以外의 場所를 말한다.

마. 第1支持點

需用家의 建造物 또는 補助支持物(構內柱에 限한다) 등의 支持點中 가장 電源에 가까운 곳에서 電線을 容易하고 堅固하게 施設할 수 있는 點으로서 앵글(特殊앵글 除外) 및 電線支持碍子를 말한다.

바. 引込口

屋外 또는 屋側의 電線路가 家屋의 外壁을 貫通하는 部分을 말한다.

사. 引込口 配線

第1支持點으로부터 電氣計器를 經由하여 引込開閉器에 이르는 配線을 말한다.

아. 配電盤

大理石板, 鋼板, 木板 등에 開閉器 過電流保護器 등을 附設한 것을 말한다.

자. 點檢 可能한 隱蔽場所

點檢口가 있는 天井이나 벽장 또는 다락 같은 場所를 말한다.

차. 點檢할 수 없는 隱蔽場所

點檢口가 없는 天井, 마루밑, 壁內, 콘크리트바닥내, 地中과 같은 場所를 말한다.

4. WHM의 附設位置

① WHM는 當社의 承認을 得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屋外附設하여야 하며, 다음 事項에 適合한 位置에 附設하여야 한다.

가. 可能限한 家屋의 最隣接 道路上에서 檢針이 容易한 位置

나. 出入門에서 近距離이며, 檢針 및 其他 作業이 容易한 位置

② 同一場所에 供給種別이 다른 WHM가 있을 境遇에는 可及的 同一場所에 集合시켜 附設한다.

③ WHM는 다음 場所에 附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檢針, 交換, 點檢 및 試驗이 困難한 場所

나. 他動的 損傷을 받을 憂慮가 있는 場所

- 다. 振動이 심한 場所
- 라. 濕氣가 많은 場所
- 마. 溫度 變化가 심한 場所
- 바. 煤煙 및 먼지가 많은 場所
- 사. 腐蝕性가스 등이 있는 場所
- 아. 磁氣의 影響이 있는 場所
- 자. 腐蝕性 物質이 있는 場所
- 차. 周圍 溫度가 높은 場所
- 카. 出入에 支障이 있는 場所

5. WHM附設方法

WHM附設方法은 다음 各号에 依하여야 한다.

가. WHM 및 附屬變流器는 雨線內에 附設하여야 한다.

다만, 需用家, 事情으로 不得已하여 雨線外에 附設할 境遇에는 防水形의 WHM函을 使用하여 WHM 및 附屬變流器를 비(雨)로부터 保護하여야 한다. 이때에 WHM 函은 需用家가 施設하고 所有한다.

나. WHM의 附設 높이는 WHM下端이 地表上 1.8m以上, 上端이 2.2m以下가 되도록 附設하여야 한다.

다만, WHM函에 依하여 附設하는 境遇는 7項의 WHM函의 附設位置로 한다.

다. WHM는 기둥에 堅固히 附着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防腐劑 塗料을 칠한 두께 15mm以上の 板子類(WHM取附板이라 한다)를 使用, 容易하게 메어 낼 수 있도록 堅固히 附着한다.

6. WHM函

WHM函은 다음 各号에 依한 것이어야 한다.

가. WHM函은 充分한 強度가 있는 防銹處理된 防濕型의 金屬製 또는 合成樹脂製인 것이어야 한다

[注] 災害防止를 爲해 金屬製 WHM函을 쓰는 것이 좋다.

나. WHM函의 뚜껑은 外部에서 容易하게 메어낼 수 있도록 施錠할 수 있는 構造로 하는 것이 좋다.

다. WHM函의 뚜껑에는 檢針에 便利한 두께 3mm以上の 유리창(檢針窓)이 있는 構造이어야 한다.

라. WHM函은 内部에 WHM를 容易하게 取附할 수 있는 構造 또는 두께 25mm以上の 良質의 木材를 使用하여 WHM를 堅固히 取附할 수 있는 構造이어야 한다.

마. WHM函은 封印을 施工할 수 있는 構造이어야 한다.

바. WHM函의 種類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種 類

種	別	適合한 WHM
單 相	小 形	單相 2線式 30A 以下
	大 形	單相 2線式 50A 以上
3 相	小 形	單相 3線式 3相 3線式 30A 以下
	大 形	單相 3線式 3相 3線式 50A 以上

크기 (内部面의 크기임 : mm)

	單 相		3 相	
	小 形	大 形	小 形	大 形
높 이	225+10	310+20	390+20	460+20
깊 이	120+10	140+15	140+15	150+10
폭	155+10	170+15	195+20	200+20

7. WHM函의 附設方法

① 露出形으로 附設하는 WHM函의 位置는 WHM函의 下端이 地表上 1.8m가 되도록 附設함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埋込形의 境遇는 1.8m以下로 할 수 있다.

② 附屬 變流器函은 WHM函에 가까운 上部에 附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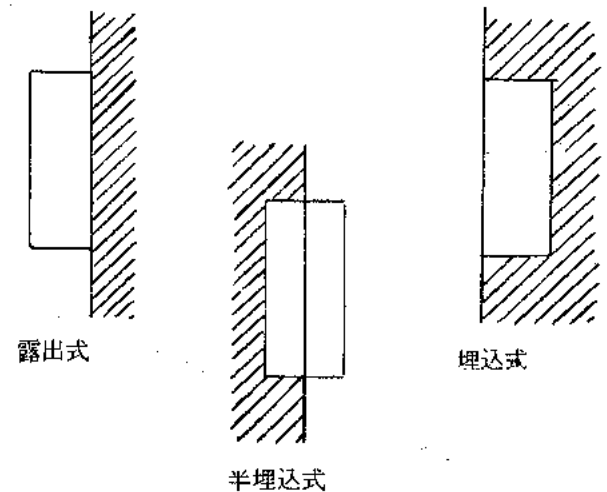
③ WHM函 및 附屬變流器函의 附設은 기둥 또는 壁에 堅固히 附着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防腐劑 塗料을 칠한 두께 15mm以上の 板子類를 使用, 容易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堅固히 附着한다.

[注1] WHM函의 附設種別은 다음 3種이 있다.

가. 露出式

나. 半埋込式

다. 埋込式



[注2] WHM 및 WHM函은 外部에서 쉽게 메어 낼 수 있도록 埋込式 附設方法으로 함이 좋다.

8. 配電盤의 施設

① 配電盤(WHM를 除外한다)은 屋內의 引込口 가까이 에 附設함을 原則으로 한다.

② 配電盤은 開閉器類의 操作이 容易하고 모든 機器의 補修가 容易한 位置에 設置하여야 한다.

③ 引込口에서 配電盤까지는 8m以內로 하여야 한다.

9. WHM附設場所의 面積

WHM附設에 必要로 하는 面積은 다음表 以上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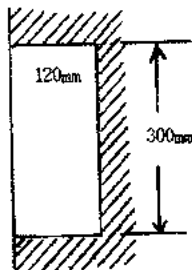
가. WHM만 附設할 때

電氣方式	WHM 容量	WHM 附設面積
單相 2 線式	30A 以下	300 mm × 180 mm
	50A 以上	360 mm × 180 mm
單相 3 線式 또는 3 相 3 線式	30A 以下	370 mm × 310 mm
	50A 以上	430 mm × 40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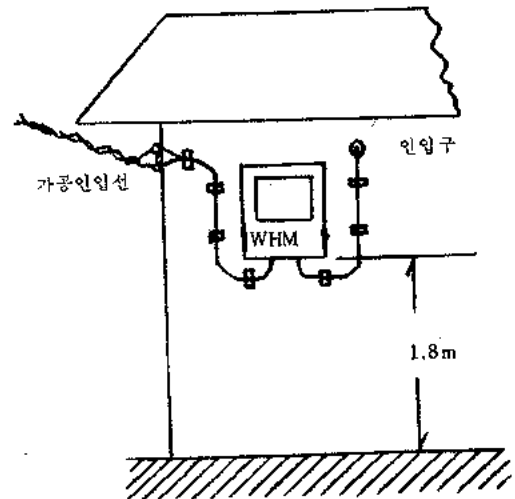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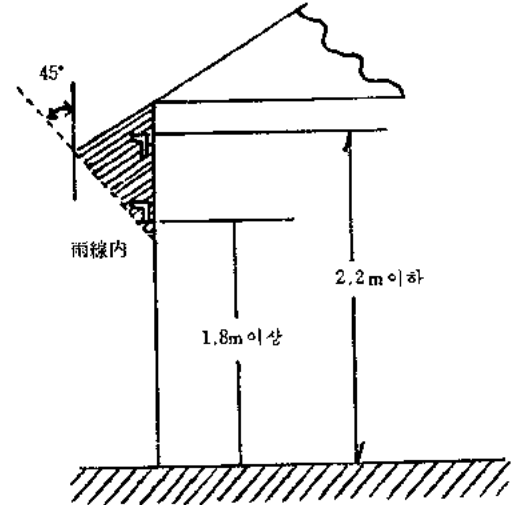
나. WHM函에 依하여 附設할 때

電氣方式	WHM 容量	WHM 函附設面積
單相 2 線式	30A 以下	330 mm × 250 mm
	50A 以上	390 mm × 360 mm
單相 3 線式 또는 3 相 3 線式	30A 以下	390 mm × 360 mm
	50A 以上	480 mm × 460 mm

[例] 單相 2 線式 30A 인 境遇(埋込式일 境遇)



부도 1. 雨線內에 WHM를 附設할 경우



부도 2. 雨線外에 WHM를 附設할 경우

10. 引込口 配線의 施設

① 引込口 配線은 케블工事, 合成樹脂管 또는 金屬管工事に 依하여 露出工事로 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点檢할 수 있는 隱蔽場所는 金屬管工事に 依하여 야 하며, 또 点檢할 수 없는 隱蔽場所는 當社의 承認을 얻어 金屬管에 依한 埋込工事を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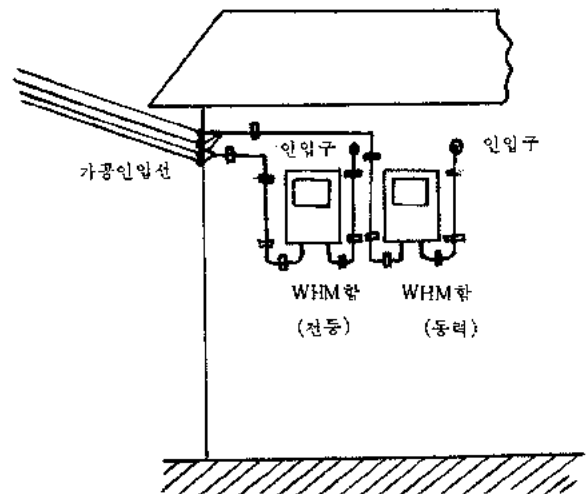
② 引込口 配線은 中途에 接統點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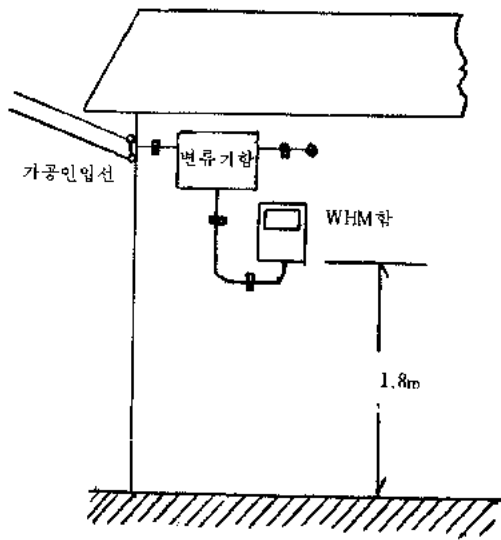
③ 金屬管 工事인 境遇에는 管의 中途에 박스(box)類 또는 두껍이 있는 엘보우(elbow) 등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附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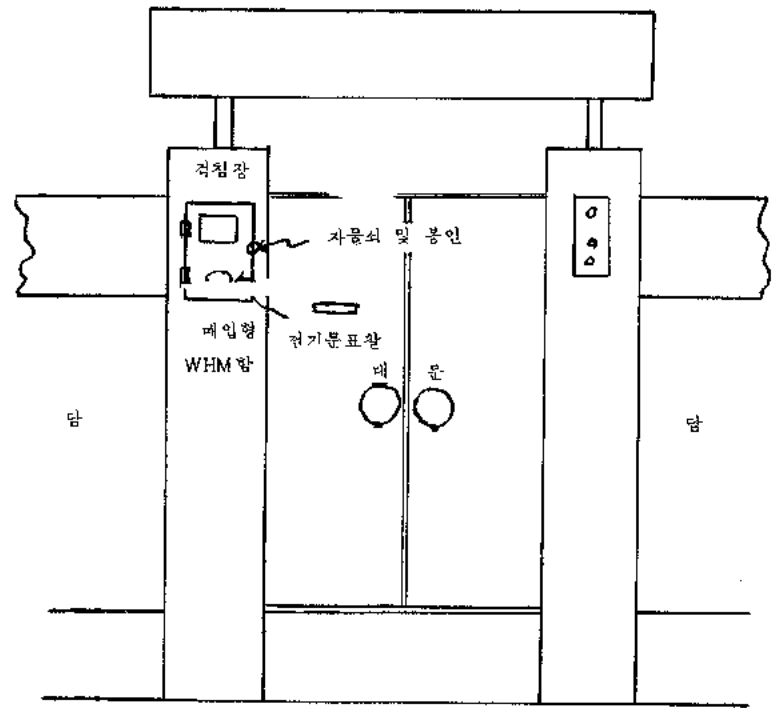
1. 本 指針은 1975. 7. 1以後 新設需用 接受分부터 適用 施行한다.
2. 既設 需用家の WHM位置 變便時에도 本 指針을 適用한다.

부도 3. 동일장소에공급 종별이 다른 WHM의 附設





부도 4 변류기부 WHM의 부설



부도 5 매입형 구조로 달박에 WHM을 부설하는 경우

祝

開

館

大韓建築士協會 全羅南道支部 建築士 會館

- ・開館日字：1975年 6月 5日
- ・場 所：光州市 大仁洞 323의 11



◇ 防衛誠金을 金載圭 建設部長官에게
寄託하는 本協會 李圭福 總務理事

防衛誠金 寄託

千九萬원을 建設部に

自主國防 態勢確立을 위한 防衛誠金 募金運動이 全國坊
坊谷谷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이때, 本協會에서도 1千萬
원 募金計劃을 세우고, 이를 推進하였던 바 全國 1,400余
會員의 熱烈한 呼應으로 不過 20日의 短時日內에 目標額
1千萬원을 上廻하는 1千九萬원이 募金되어 지난 6月16
日(月) 下午 3時 本協會 李圭福 總務理事를 비롯한 任員
들과, 서울市支部長은 金載圭 建設部長官을 訪問하고, 이
를 寄託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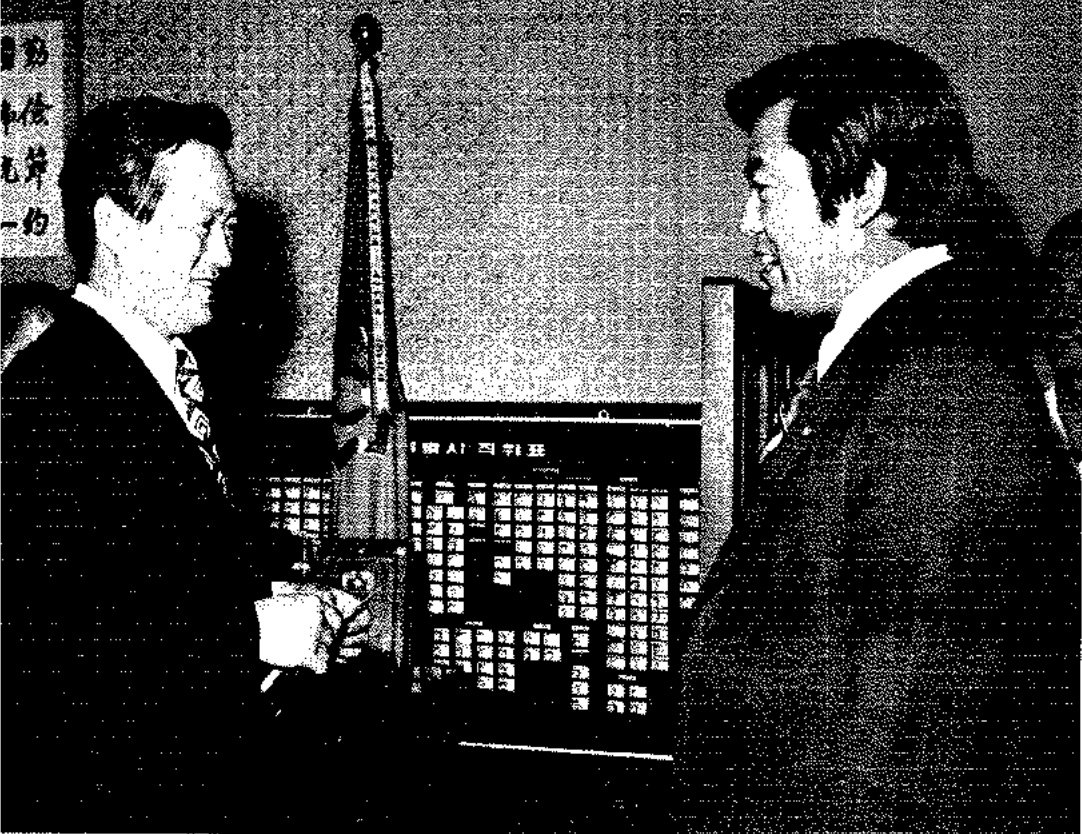
防衛誠金을 寄託받은 金建設部長官은 “建築士 여러분들
의 誠心에 感謝한다”고 致賀하고 앞으로 國家民族을 위
해 더욱 努力해 달라고 당부했다.

濟州道支部 會員 防衛誠金 헌납

同支部 會員 -同은 지난 5月 19日 傘下會員에게서 募
金한 總額 54萬원을 濟州道 防衛誠金推進委員會에 헌납했
다.

새마을事業支援

同支部 梁泰浩 事務局長은 지난 6月 5日 새마을 사업지
원(진입로 포장기금)으로, 남군 서귀읍 법환리 새마을지
도자에게 일금 10,000원을 기탁했다.



・具滋春 市長에게 防衛誠金을 전달하는
金萬盛 서울支部長

防衛誠金 寄託

三百万원을 具滋春 市長에게
서울特別市支部 會員一同 防衛誠金 헌납

本協會 서울特別市支部에서는 會員一同에게서 募金한
防衛誠金 一金 300萬원을 지난 6月 23日(月) 同支部 金萬
盛支部長이 具滋春 서울特別市長에게 전달했다.

庶政刷新 業務推進 講習會 開催

5月 31日 下午 10時 本協會에서

이 밖에도 全國分所長 全員이 처음으로 一堂에 모인 이
날의 講習會에서는 庶政刷新 業務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具體的인 意見들이 進지하게 交換되었다.

慶尙北道支部에서도 庶政刷新 業務 推進 講習會 開催

本協會에서는 지난 5月 31日 庶政刷新 業務推進 講習
會를 開催했다.

不正 및 不條理를 일소하여 명량한 建築行政질서의 確
立을 위하여 慶尙北道支部에서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보
다 큰 효과를 얻고져 지난 6月 17日 同支部 事務室에서
慶北支部 各分所長 및 大邱會員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庶政刷新 業務推進 講習會를 開催했다.

이날 下午 1時부터 3時間 30分間 계속된 이 講習會에
는 本協會 全任員陣과 傘下 各市道支部 監事와 全國分所
長 및 支部 事務局長 全員 등 70余名이 參席한 이 날의
講習會에서는 建設部 監查官室 徐贊敎 事務官은 『庶政
刷新運動의 目的과 基本方向 및 政府施策』에 대하여 講
義했고, 建設部 建築課 洪思弼 事務官은 「建築行政 部門
에 있어서의 庶政刷新 施策」에 대하여, 그리고 本協會 康
晉參 監事는 「本協會의 庶政刷新 業務推進의 基本 方向」
에 대하여 講義했으며, 盧炳健 事務處長은 「庶政刷新 業
務推進에 關한 細部事項」등을 說明했다.

- 이날 本協會가 指示한 事項은,
- ① 民願申告室 및 申告函 設置
 - ② 全會員으로부터의 覺書 徵求
 - ③ 庶政刷新 業務推進 督察計劃樹立과 履行
 - ④ 日誌 備置
 - ⑤ 具體的인 事例舉出과 實踐計劃樹立 등을 促求했다.

同支部 서정재선 業務推進 講習會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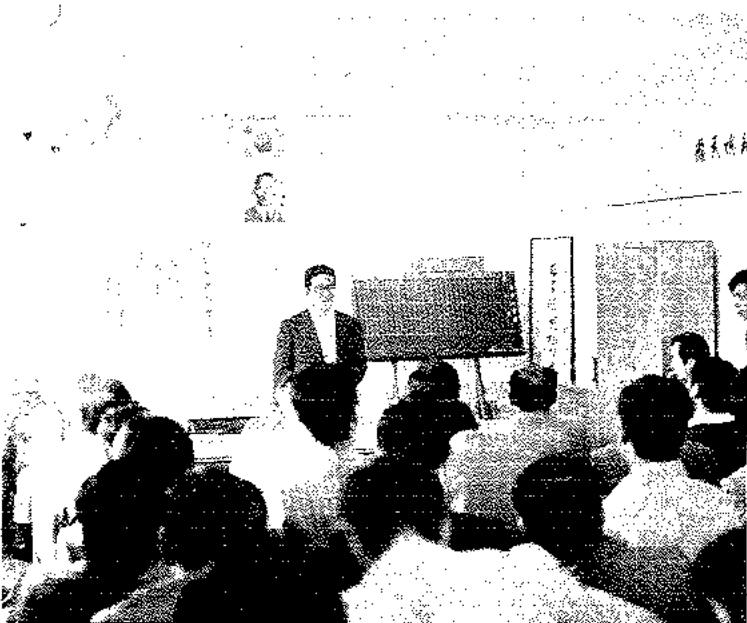
庶政刷新 業務推進 講習會 에서 人事말을 하는 李圭福 總務理事



同 講義하는 徐贊教 事務官



同 講義하는 洪恩烈 事務官



同 講義하는 康晉參 本會 監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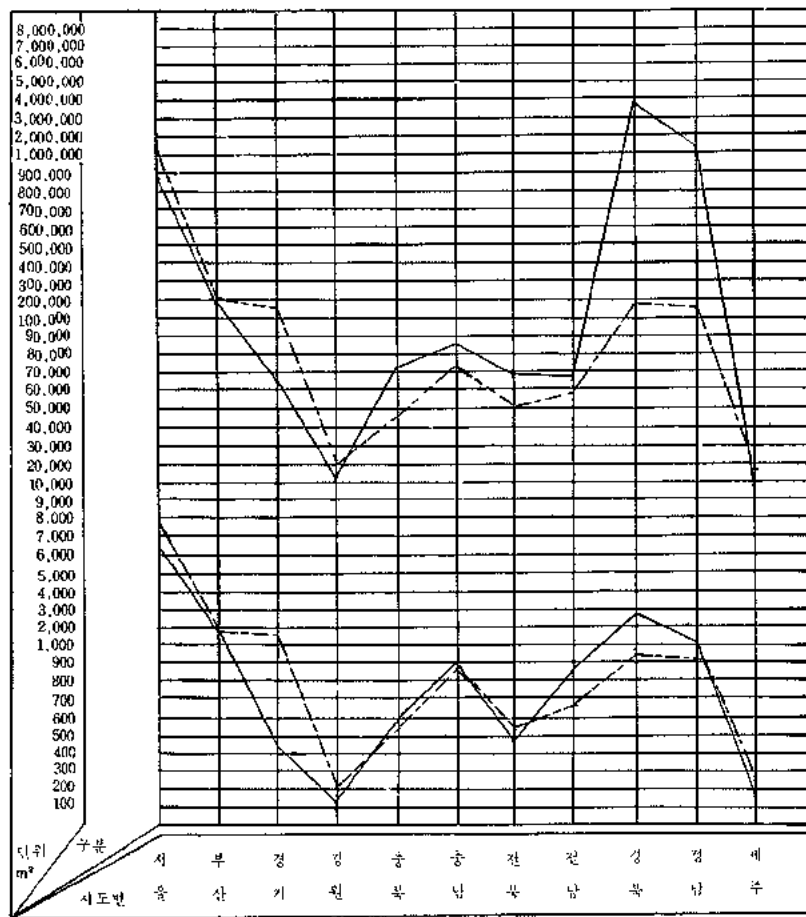
同 細部事項을 説明하는 盧炳健 事務處長

全国建築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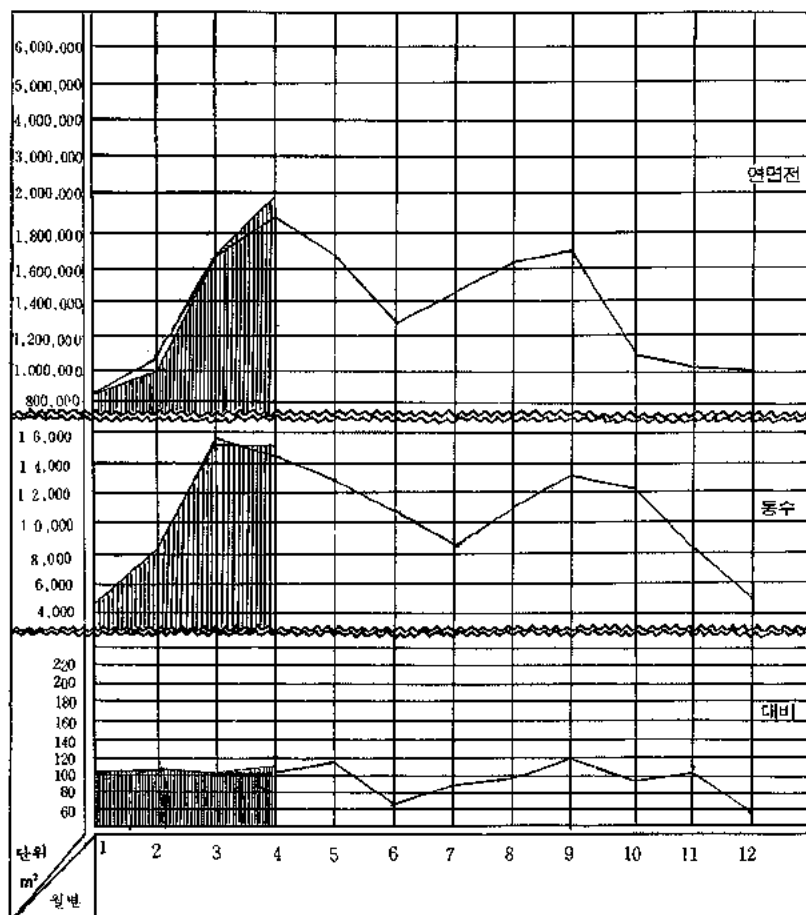
1975年 4 月分

74년도 ———
75년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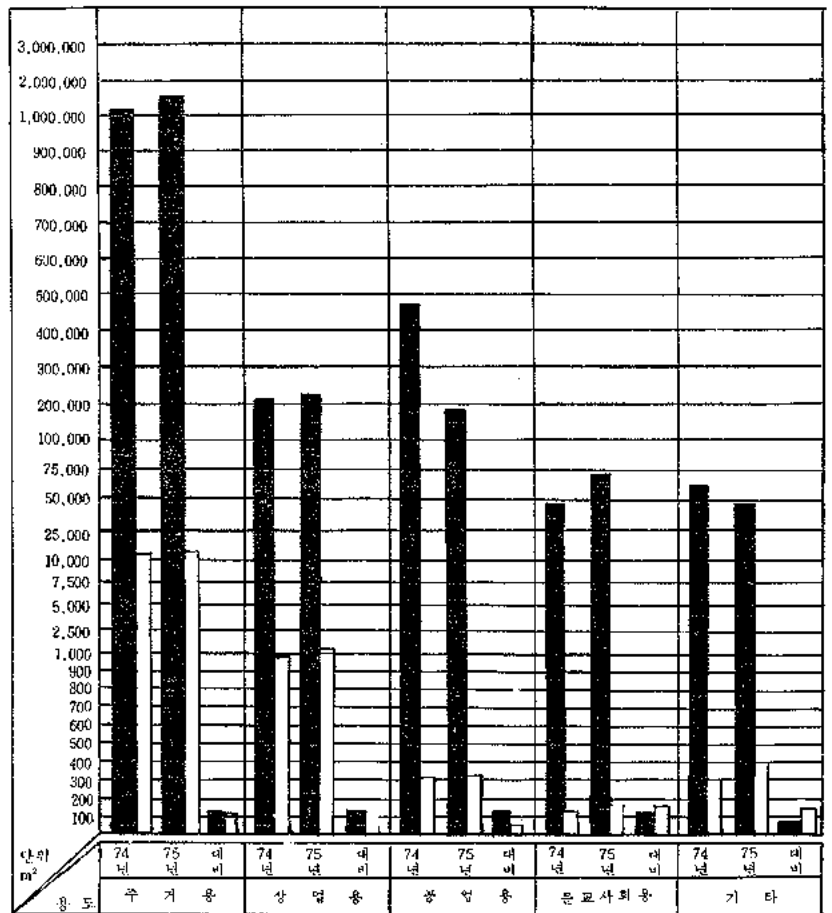
시도별 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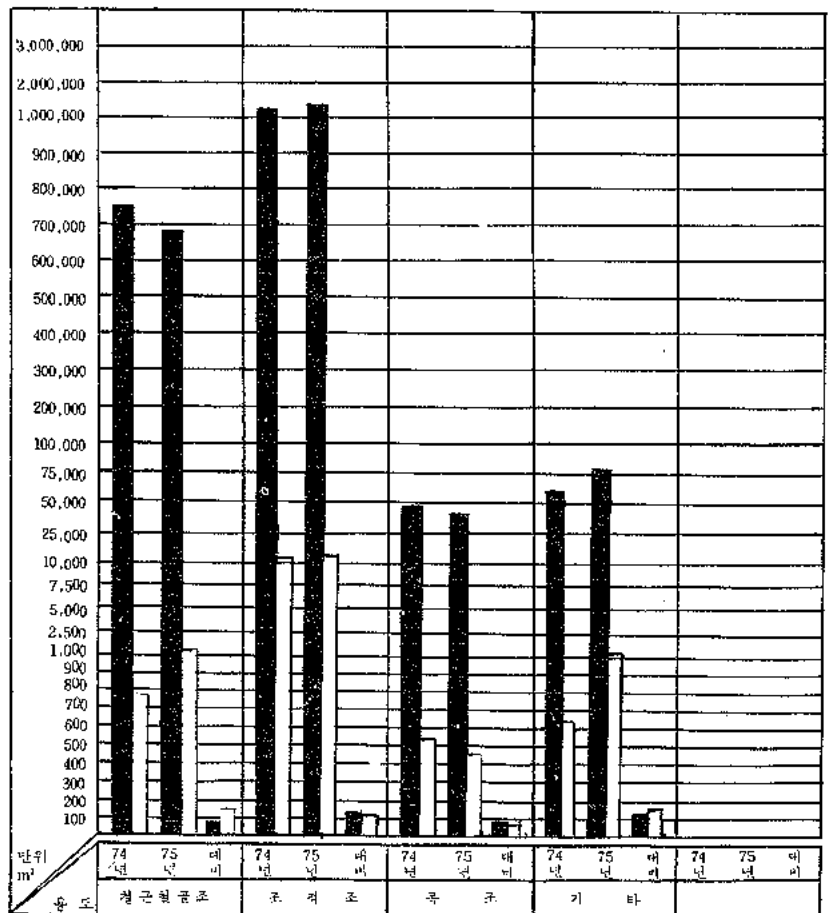
월별 건축허가 통계 전년대비



용도별 허가통계, 전년대비



구조별 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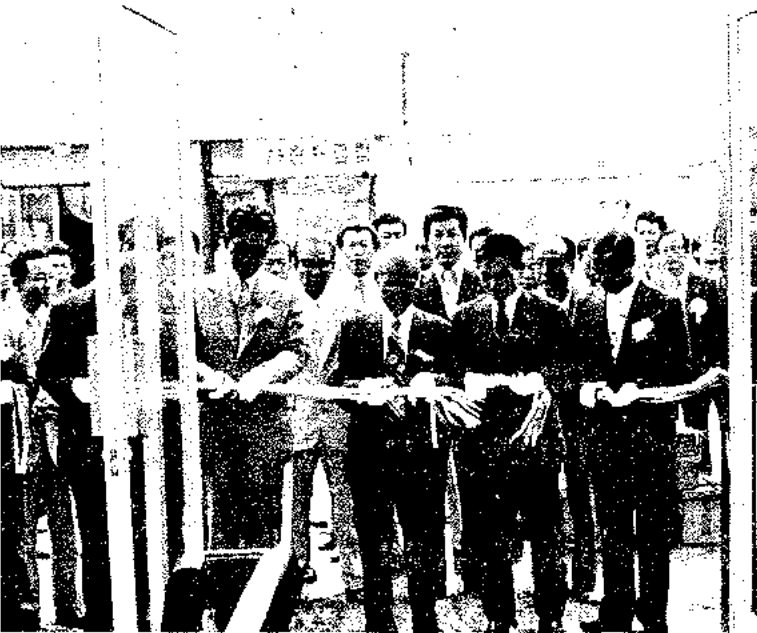
協會記事

全羅南道支部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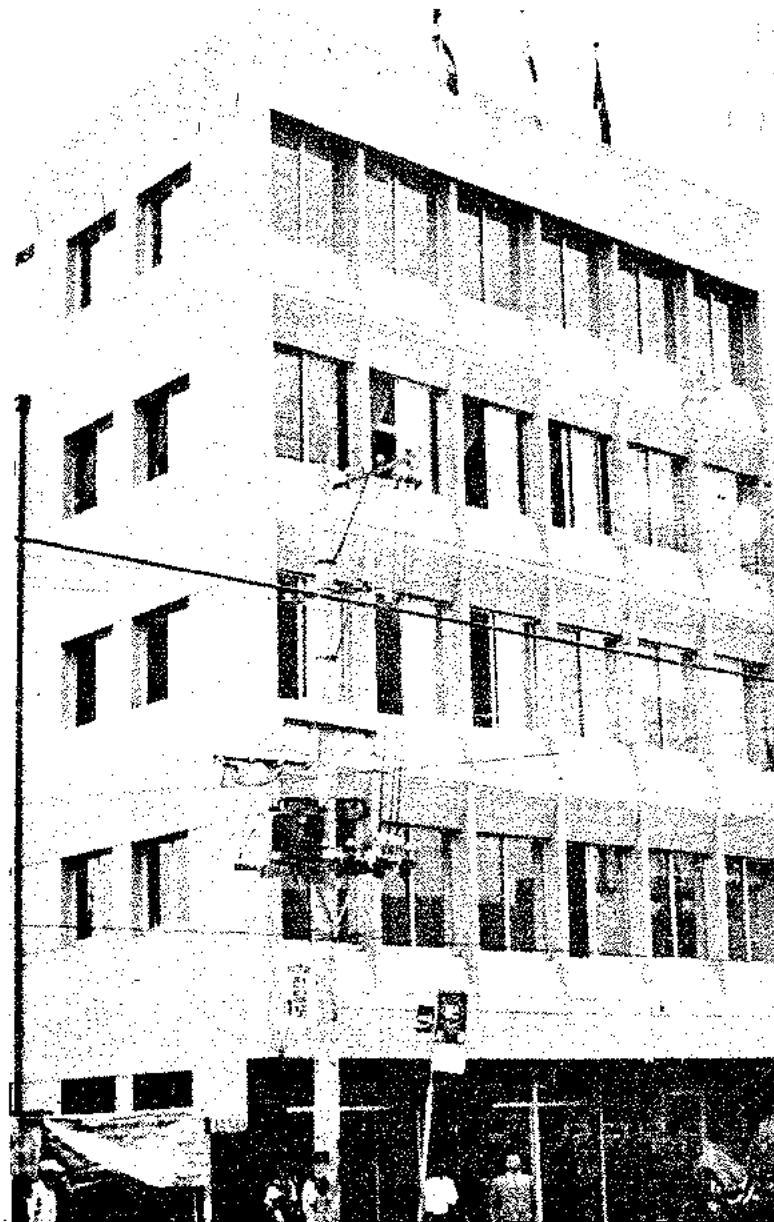
全南支部 建築士 會館 開館

全南支部 建築士 會館이 지난 6月5日 本協會任員과 全國 各市道支部長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館되었다.

同 會館은 지난해 10월에 着工하여 8個月만에 竣工된 것으로 位置는 全南·光州市 大仁洞323의 11에 工事費 6천만원을 投入, 鉄筋콘크리트造 地下一層 地上五層, 延建坪 340坪 規模의 同 會館은 同 支部의 任性奎 (新都建築研究所) 會員이 設計를 담당했다.



同 會館 開館의 비밀을 漏는 光景



全南支部 建築士會館 全景

第3回 支部長會議 光州서 開催

本協會에서는 第3回 支部長會議를 6月 5日 下午2時 新築된 全南支部會館大會議室에서 開催했다.

本部任員 및 全國支部長들이 參席한 이날 會議에서는 75年度 第1回 追更予算案을 審議하고 이어 当面課題에 對한 隔意없는 意見交換과 對策이 協議되었는데 特히 이날 會議에서는 庶政刷新業務를 보다더 強力히 그리고 效果的으로 推進하는 方案과 防衛誠金 1千萬원 募金 目標達成을 위해 힘을것을 거듭 다짐 했다.



이날 同 會館 會議室에서 全國 市道支部長會議가 開催되었다.

月間協會動靜

第11回 理事会

5月 21日(水) 本會 會議室

- 議案: 1) 防衛誠金 모금의 건
2) 庶政刷新 새미나 開催의 건
3) 大韓建築士協會賞 施賞 및 會員作品 展示會
開催 要綱 심의의 건
4) 기타사항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朴成圭
李興秀, 成一永
監事 康晉參
서울市支部長 金萬盛

第2回 企劃委員會

5月 29日(木) 14:00 本會 會議室

- 議案: 1) 第1回 追加更正 予算案 심의의 건
2) 기타 사항

出席:
委員長: 朴成圭
委員: 金萬盛, 金圭泰
鄭銀溶, 金鍾敏
蔡奎鎬, 李根庠
尹容承, 曹龜鉉
崔光鉉, 金鎮成
朴來運, 鄭孝煥
尹太鉉, 李奉魯

第3回 支部長會議

6月 5日(木) 14:00 全南支部 會議室

- 議案: 1) 第一回 追加更正 予算案 심의의 건
2) 기타사항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朴成圭,
李興秀, 成一永
監事 尹希俊, 康晉參
支部長 (서울) 金萬盛 (釜山) 金圭泰
(江原) 趙奎植
(忠北) 鄭銀億 (忠南) 金鍾敏
(全北) 崔錫珪 (全南) 蔡奎鎬
(慶北) 李根庠 (慶南) 尹商鳳
(濟州) 康奇汀

第12回 理事会

6月 12日(木) 14:00 本會 會議室

- 議案:
1) 서울市支部 代議員 承認의 건
2) 第1回 追更 予算案 承認의 건
3) 소록 표준을 현실화작업 추진의 건
4) 기타사항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朴成圭
李興秀, 成一永
監事 康晉參
서울市支部長 金萬盛

建築界뉴시스

太陽熱 利用 住宅 示範 展示

大韓住宅公社에서는 6月 7日 來韓하는 美國의 太陽熱 利用 住宅專門家 「이라·W·지어」 博士를 맞아 永東住宅団地에 太陽熱을 利用한 시범 住宅 및 利用機構를 設置, 展示키로 하고, 일반 보급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住公에 따르면 太陽熱 利用 住宅은 熱直光線이 잘 쬔고 日照時間이 긴 곳에서만 可能한데 우리나라는 全地域이 이 住宅建設에 적합하며 특히 대구地方이 最適地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西独에도 太陽熱 住宅

컴퓨터로 自動調節

최근 西独政府에서도 太陽熱단을 利用한 住宅을 「아아켄」에서 처음으로 開設하여 市民들의 큰 関心を 끌고 있다고 한다.

이 太陽熱 住宅은 天井에 太陽熱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溫水를 直接 供給하며 地下에 太陽熱을 저장하고 특수 「에너지 어콘」 施設로서 熱의 환류를 可能하게 하는 「에너지 住宅」인데 이 住宅은 4人家族用으로 116m³의 체적을 갖고 있으며 컴퓨터가 熱 및 溫水의 消費量을 測定, 自動적으로 調節하게 設計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西独政府는 向後 5年間 1억 1천만 「마르크」를 投入, 太陽熱 利用研究에 拍車를 加하리라고 한다.

會員動靜

서울 特別市支部

轉入會員 (京畿道支部에서)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話番号	免許番号	登録番号	月 日
김 광 한	대광건축설계공사	동대문구 신설동 96-15	52-1265	(경기)1-75	1-658	75. 5. 26

轉出會員 (京畿道 支部로)

이 석 구	신원건축연구원	중구 충무로 2가 63-2	23-0689	1-355	1-460	75. 5. 20
김 문 종	일전건축연구소	종로구 관철동 12-14	73-0715	1-534	1-534	75. 5. 23

〈再開業〉

한 창 우	창진건축기술공사	성동구 구의동 395-7	55-5131 교 6272		1-90	75. 5. 10
오 새 영	희망건축연구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64	62-2837	1-859	1-251	75. 5. 13
박 중 구	신기건축연구원	중구 인현동 2가 183-28	27-0150	1-615	1-651	75. 5. 23
홍 순 인	대우건축연구원	종로구 경운동 96-8	75-1435		1-634	75. 5. 30
김 학 신	성신건축연구원	중구 북창동 11-2	28-8824	1-1297	1-556	75. 5. 23

〈事務所移轉〉

신 중 우	연립건축연구원	중구 초동 18-12	26-4270	1-1177	1-554	
김 희 태	부영건축종합설계연구원	영등포구영등포동 2가177	62-1334	2-324	2-83	
이 명 우	종합건축개발연구원	성동구 구의동 68-31	55-1681		1-618	
신 경 호	경진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신도림동991-5	69-6068		2-375	
윤 여 룡	정아건축설계사무소	서대문구 북가좌동 121-7	34-1148		2-230	
조 한 용	천호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 천호동 409-13	55-8473		2-386	
김 학 호	거성건축기술공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95-9	95-0511		1-324	
오 새 출	새일건축기술공사	영등포구영등포 1동580-8	69-3303		2-267	
양 대 원	한국건축대원연구원	중구 초동 10-8	26-7761		2-121	

新入會員

李 龍 德	유봉건축연구원	영등포동 2가 195	62-5980	1-1427	1-657	75. 5. 14
원 명 희	設計事務所 明建築	성동구 청담동167-120	57-1141교 34661-47	1-656		75. 5. 15
尹 仁 璽	我珉建築設計事務所	中区仁峨洞1가37 (문영빌딩 303)	27-0766	2-390	2-399	75. 5. 21
文 政 一	일정건축연구원	忠武路一가23-8 (삼성빌딩)	76-4705	1-1436	1-648	75. 5. 22
洪 貞 吉	洪貞吉建築研究所	永登浦洞 2가146	63-8642	2-1347	2-400	75. 5. 26
李 錫 吉	이 석 건 축	冠岳區사당동708	68-0523	2-1541	2-401	75. 5. 27
정 용 찬	조 원 건 축	冠岳區奉天洞60-3	68-5084	1-1348	1-659	75. 6. 2
李 相 守	新漢陽建築技術研究所	용산구 감월동 69-3	43-5051-3 — 父 15	1-697	1-660	75. 6

商號・電話・事務所移轉

延 辰 明	(旧) 서울건축설계사무소 (新) 延辰建築設計事務所	中区明洞1가5 (보림빌딩 505)	22-0656	1-1415	1-584	75. 6.
-------	--------------------------------	--------------------	---------	--------	-------	--------

京畿道支部

新入會員

李 爽 雨	강화건축설계사무소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43		1-1469	(강화) 1-1	75. 5
-------	-----------	------------------	--	--------	----------	-------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 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話番号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柳 光 澤	五洲建築設計社	西区 부민동 1가 7	22-5969	1-130	1-1	75. 5.
金 忠 夫	新世界建築設計事務所	西区 괴정동 896	42-3417	2-1497	2-178	"
金 仁 圭	市民建築設計社	東萊区 수안동 503	53-1411	2-1495	2-190	"

休業中 業務續開

文 貞 奎	現代建築研究所	釜山鎭区 凡一洞 839	8-1867	1-792	1-51	75. 5
-------	---------	--------------	--------	-------	------	-------

新入会員

吳 千 福	創美建築事務所	釜山鎭区 凡一洞948-7	6-4984	2-1173	2-226	75. 5. 27
金 伸 宰	西江建築設計社	中区 東光洞 1가 1	43-3363	1-1389	1-227	75. 5. 27

忠清北道 支部

新入会員

吳 璣 教	선건축설계사무소	청주시 북문로 2가 116-157	2-1649	2-1	4370	75. 3.
朴 定 秉	대륙건축설계사무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 46	1-890	1-146	514	75. 3.
金 種 基	상산건축설계사무소	청주시 북문로 3가 5의5	2-1531	2-2		75. 6. 10

全羅南道支部

新入会員

김 상 준	라인건축연구소	광주시 농구 대인동 49-5	2-5163	2-1690	2-28	75. 5. 26
朴 錦 植	금호건축연구소	광주시 서구 화정동 160-45	2-1750	2-1701	2-29	75. 6. 2
安 泰 炅	한진건축연구소	동구 금남로 2가 15	2-6577	2-1318	(광주)2-30	75. 6

事務所 移転

高 在 善	中央建築設計事務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Y. M. C. A. 3층303호)	2-7977	2-606	(광주)2-4	75. 5. 20
曹 龍 造	韓一建築事務所	광주시 동구 광산동 69	2-3166	2-1329	(광주)2-19	75. 6. 1

慶尚北道支部

新入会員

李 泰 雨	大和建築事務所	대주시 내당동 887	2-7254	1-317	1-83	75. 6. 2
-------	---------	-------------	--------	-------	------	----------

慶尚南道支部

事務所 移転

李 康 鎭	合成建築設計研究所	마산시 장군동 4가 26-61	2-2397	2-1600	(마산)2-8	75. 6
金 哲 典	철우건축연구소	마산시 중앙동 3가 4의 6	2-1676	2-990	(마산)2-3	"

寄稿內規

1. 目 的

이 內規는 大韓建築士協會 會誌(以下 “會誌”라 한다)의 寄稿에 關係되는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寄稿活動을 助長 向上시키고, 建築士 業務의 健全한 發展과 讀者의 便利를 도모하며, 아울러 建築文化發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寄稿者의 資格

寄稿하는 者의 資格은 本協會 會員 및 建築關係 專門家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原稿의 청탁은 本會 編纂委員會에서 정한 編輯計劃에 依한다.

3. 原稿의 接受

原稿는 本協會 出版部에서 接受한다.

4. 原稿의 受理

- 1) 原稿의 受理는 別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編纂委員會에서 결정한다.
- 2) 다음과 같은 原稿는 受理하지 아니한다.
 - ㄱ) 本協會의 目的에 위배되거나 關係없는 것.
 - ㄴ) 이미 發表된 것으로서 敍의 意義를 喪失하였다고 認定되는 것.
 - ㄷ) 會誌의 品位를 損傷하는 內容의 것.
 - ㄹ) 補完이 要求되는 것.
 - ㅁ) 原稿 作成 規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
- 3) 原稿의 受理日은 編纂委員會에서 掲載를 決定한 날로 한다.

5. 原稿 作成의 形式

原稿의 作成은 別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連載 回數의 制限

同一人이 寄稿하는 同一 主題의 原稿의 連載 回數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二回 以內로 한다.

7. 原稿의 返還

일단 接受된 原稿를 掲載하려는 目的의 會誌가 出版되기 以前에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8. 原稿의 校正

ㄱ) 原稿의 校正은 印刷 前에 寄稿者가 한다.

다만 寄稿者의 事情에 따라 編纂委員會에서 協助할 수 있다.

ㄴ) 編纂委員會는 別로 規定하는 原稿作成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에 對하여 校正을 할 수 있다.

9. 稿 料

- 1) 稿料는 別로 規定하는 바에 따라 寄稿者에게 支拂한다.
- 2) 다음과 같은 原稿에 對한 稿料는 無料로 할 수 있다.
 - ㄱ) 請託 原稿가 아닌 것.
 - ㄴ) 筆者의 請願에 따라 掲載되는 投稿의 原稿.
 - ㄷ) 이미 다른 機關을 통하여 發表하였거나 다른 機關에 提出된 原稿.
 - ㄹ) 協會의 公式 記事
- 3) 必要한 資料에 對하여는 그에 必要한 收集費를 予算의 범위 안에서 支拂할 수 있다.

10. 其 他

이 規定에 없는 事項은 別로 定하는 內規에 따르며, 其他의 것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原稿作成基準

1. 一般事項

1-1. 原稿의 分類

原稿(번역 원고 포함)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이를 原稿 表題 위에 表記하여야 한다.

- 1) 學術 論文
- 2) 一般 論文
- 3) 會員 作品
- 4) 資料(各種 統計, 海外作品 및 海外技術 情報)

5) 會員文芸(詩, 隨筆, 紀行文 等)

6) 協會記事

1-2 原稿의 構成

1) 學術 및 技術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 { ① 序 論
② 本論(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③ 結 論

ㄷ) 參考文獻

2) 一般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ㄷ) 參考 文獻

3) 會員文芸의 原稿는 會員에 限하되 編輯委員會에서 추천되는 原稿에 限해서 掲載할 수 있다.

4) 會員作品 寄稿者는 다음과 같은 圖面과 사진을 提出하여야 한다.

ㄱ) 平面圖(펜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잉킹한 것)

ㄴ) 配置圖(" " ")

ㄷ) 断面圖(상세도 포함)

ㄹ) 實際建物の 全景 사진과 屋內 사진.

ㅁ) 建築概要(편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

1-3. 原稿字數의 標準

ㄱ) 諸般 原稿의 面數는 200字 原稿紙로 하고, 會誌 一面의 枚數는 12枚로 한다.

ㄴ) 掲載되는 原稿는 會誌 8面 以內로 한다. 다만 編輯委員會에서 특별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原稿의 共通 記載 狀況

原稿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ㄱ) 表 題

ㄴ) 著者名

ㄷ) 著者の 所屬機關 및 職位

ㄹ) 主要目次(간단한 경우에는 생략)

1-5. 原稿紙의 規格

ㄱ) 原稿는 200字 原稿用紙에 作成한다.

ㄴ) 原稿는 가로쓰기로 하며 띄어쓰기는 高等學校 國定 教科書의 例에 따른다. 外國語 또는 算用 數字는 붙여 쓰며 한 칸에 一字式 쓰지 않아도 된다.

2. 使用語 및 表記

2-1. 使用語

使用語는 國語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編輯委員會에서 특별히 外國에 紹介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使用文字

ㄱ) 國語를 使用하는 것에 對하여는 한글과 漢字를 섞어 쓸 수 있다.

ㄴ)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6)에 따른다.

2-3. 外來語의 表記

ㄱ) 外來語는 한글로 表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表記함으로써 難解한 外來語는 原語 그대로 쓴다.

ㄴ) 外來語의 表記는 문교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1958) 및 “국정교과서 외래어 일람표”에 따른다.

ㄷ) 다음 사항은 原語 그대로 쓴다.

① 人名

② 文獻名

ㄹ) 本文中 外來語의 表記는 첫머리자는 大文字로 하고 나머지는 小文字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고유명사인 경우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③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2-4. 專門用語

專門用語는 다음 순위에 따라 統一하여 쓴다.

ㄱ) 大韓建築學會 制定用語

ㄴ) 韓國工業規格에 쓴 用語

ㄷ) 文敎部 科學技術 用語

2-5. 數字 및 數式

ㄱ) 數 字

數量을 표시할 때에는 算用數字(아라비아 數字)를 쓴다.

ㄴ) 數 式

數式은 줄(행)을 바꾸지 않고 1행으로 쓸을 원칙으로 한다.

3. 單位 및 記号

3-1. 單 位

ㄱ)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統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前項 以外의 必要한 慣用 單位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주기 한다.

(例) : 배인트 1 통(20l)

시멘트 1 포대(40kg)

3-2. 記 号

數學記号는 KS A 0101(수학기호)

單位記号는 KS A 0102(단위기호) 의 규정에 의한다.

4. 그림, 사진 및 표

4-1. 그 림

ㄱ) 그림의 작성

① 그림은 순백의 펜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 또는 검정잉크로 제도하되, 문자 기입은 모두 연필로 임시 기입한다.

② 그림 및 도표의 크기는 가급적 인쇄 크기의 1.5배 ~ 2.0배(선 확대율)로 확대한 크기로 정한다.

③ 그림의 제도 중 KS F 1501 건축제도(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그림의 첨부 방법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되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기재한다. (例: 그림 1. 에너지 감소에 대한 받침대의 방진 효과)

4-2. 寫眞

ㄱ) 사진의 製作

모든 원고의 사진은 선명하게 印刷될 수 있는 것을 첨부한다.

ㄴ) 사진 첨부 方法

모든 사진은 그 사진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여,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4-3 表

ㄱ) 表는 本文 原稿紙에 직접 記載하거나 別表에 作成하여 재자리에 붙인다.

ㄴ) 모든 表의 상부에는 그 表의 번호를 붙이고 반드시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例: 表 1. 公共住宅 年度別 現況表)

ㄷ) 表 中の 註記는 그 表의 바로 밑에 記載한다.

5. 參考文獻의 記載方法

參考文獻의 記載는 그 원고의 本文뒤에 일괄 記載한다.

奇稿의 受理

1. 本協會 出版部에 接受된 원고는 그 掲載 如否를 編纂委員會 會議에서 決定하되 違背如否를 檢討하기 위하여 各 編纂委員에게 按配하여 決定할 수 있다.
2. 原稿의 送達을 받은 編纂委員은 寄稿 內規에 對한 違背 如否를 檢討한 후 受理 可否에 관한 所見을 붙여 返送한다. 다만, 그 所見이 否일 때에는 再次 이 節次를 反復할 수 있다.
3. 編纂委員長은 前條의 結果를 綜合하여 編纂委員 會議에서 受理 如否를 議決한다.

稿料의 支拂

1. 稿料의 基準

稿料는 당해 年度의 予算의 범위 안에서 그 基準을 定한다.

2. 稿料의 算出 方法

受理된 原稿의 枚數를 基準으로 한다.

3. 稿料의 支拂時期

稿料(자료수집비 포함)는 그 原稿가 掲載된 후 支拂 結계가 된한 3日以内に 支拂함을 원칙으로 한다.

※ (本誌에 꼭 掲載하여야 할 청탁원고는 受理와 同時에 支拂할 수도 있다.)

新刊

建築技師 및 技能士를 爲한

建築設計製圖

延濟振 著

4·6 倍版 195面

附錄製圖例, 칼라판 삽입

定價 1,800원

發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建築學總覽

監修 工學博士 洪鵬義

建築家 金在哲

執筆 延濟振

1975 年 4 月 10 日 發行 값 15,000 원

發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TEL 26-0509

大韓建築学会 創立 30週年 紀念事業 趣旨文

祖國解放과 同時に 1945年 9月 發足한 大韓建築学会는 이제 30週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創立 當時의 會員數는 不過 30名 内外였으나 現在는 2,000名으로 增加하였습니다. 學會는 年 6回의 學會誌 發刊을 爲始하여 建築에 關한 各種 基準作成, 建築用語制定 및 建築에 關한 圖書出版에 注力하였으며, 隨時로 學術講演會, 講習會 및 見學會를 開催하여 會員의 資質向上에 努力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會員들의 努力과 社會 各界의 支援의 結果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在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生存과 結付된 環境問題,
Energy 對策問題
住宅의 大量生産化 問題
都市 再開發 問題 등

이러한 建築에 關한 內的問題들은 建築의 概念 自体에 對해서 修正을 加할 것을 要求할 程度로 重要的 問題로 登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量的 膨脹뿐만 아니라 質의 高度化 專門化를 企圖하여야 할것입니다.

建築은 한 民族의 文化의 尺度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建築学会 創立 30週年紀念事業을 契機로 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建築学会의 力量을 다짐하여 새로운 使命感을 가지고 後世에 남길 韓國建築文化의 傳統確立을 위한 準備作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本 事業을 推進하는데는 많은 試練과 難關이 豫想됩니다. 會員 여러분의 總和된 努力과 奮發, 그리고 社會各界의 積極的인 協助에 依하여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1975年 6月

大韓建築学会 會長 金 熙 春

紀念事業 및 募金要領

1. 事業內容

가. 紀念行事

- (1) 創立 30週年 紀念式
- (2) 有功者 表彰
- (3) 祝賀會
- (4) 會館開館(科學技術會館 內)

나. 紀念事業

- (1) 學術講演會
 - ① 집포지음
 - ② 論文發表會
- (2) 親睦論文集 發刊
- (3) 紀念論文集 發刊
- (5) 學會誌 紀念 特輯號 및 學會史(30年史) 發刊

다. 新會館整備

- (1) 會館 什器備品 補充
- (2) 圖書室 新設

2. 紀念行事 豫定日: 1975年 9月 1~3日

3. 協助하실 金額: 大韓建築学会 會員 2,000원 以上

4. 申請方法: 同封申請書에 金額을 記入하신 後 本會에 回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申請期限: 1975年 7月 10日

※上記事業外 追加되는 事業에 대해서는 會誌上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會 員 諸 位

時下 初夏之節에 貴體錦安하심을 仰祝합니다.

이번에 本學會 定期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上記 事業計劃과 같이 創立 30週年 紀念事業을 추진하기로 되었으니, 이 趣旨에 贊同하시어 有終의 美를 건우도록 紀念事業基金調達에 적극 協助하여 주시기를 敬望합니다.

追伸: 協助하여 주신 會員에게는 紀念事業 刊行物을 無料로 贈呈하겠습니다.

會員名簿 發刊에 對하여 會員에게 알려드립니다.

創立 30週年 紀念事業의 하나인 會員名簿發刊은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業務連絡에 正確迅速을 期하기 위하여 名簿를 單行本으로 發刊 配付할 予定입니다.

既連絡되는 會員이 라도 會誌에 添付된 乘書로 回信하시기 바랍니다. 回信이 없는 會員은 名簿에서 漏落될 우려가 있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會費가 長期滯納된 會員께서는 6月 末日까지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總力安保, 國民總和, 庶政刷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全國 1,400余 會員들은 自主國防態勢確立을 위한 防衛誠金모으기에도 남보다 뒤질새라 온갖 精誠을 다했다.

本協會가 1千萬원 目標額을 세우고 全國會員들로부터 募金했던 防衛誠金은 不過 20日間에 目標額을 초과 하는 1千9萬원이 募金되었고, 이 외에도 서울市 支部에서는 이와는 別途로 300萬원을 募金하여 서울市長에게 寄託했는가 하면 余他 各支部에서는 各各 地方行政機關등에 相當額의 防衛誠金을 寄託하여 會員들의 愛國誠心을 유감없이 發揮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會員들의 誠心을 전달하는 寫眞特輯을 꾸며 보았고, 本協會 創設以來 처음인 全國 分所長들이 一堂에 모인 庶政刷新 講習會 西報도 곁들여 보았다.

會誌編輯을 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흐뭇했고 興겹기도 했다.

○...이 달로서 75年度 上半期도 지나간다.

第2回 臨時總會에서 다시 한번 다져진 基盤으로 協會의 下半期 課題는 1에도 일, 2에도 일, 일만이 남았다.

會員님들의 期待에 어긋남이 없이, 또한 國家나 社會가 바라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着實한 前進를 계속할 뿐이다.

따라서 協會의 「가을」인 이 會誌도 알차게 더욱 발달하게 珠玉처럼 꾸며내야 하는 命題가 양어깨를 누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誌의 發展을 위해 玉稿를 寄稿해 주실 諸君 各位先生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編輯者 一同)

言論風土改善에 關한 決議文

現下 世界의 關心은 韓半島의 情勢推移에 集中되고 있으며, 이는 印度支那의 共產化以後 北傀의 戰爭挑発 徵候가 加一層 增大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未曾有의 國難에 對處하여 우리 國民은 한결같이 一致 團結하여 現難局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唯一한 道를 確信합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府와 온 國民은 結束과 安保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모든 分野에서 社會 淨化作業을 果敢히 施行하고 있으며 이에 阻害되는 모든 不條理的 要素를 除去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에 우리 雜誌言論人들도 國家의 施策에 積極 呼應할 것을 다짐하며 1971年 12月 韓國雜誌協會가 採択한 바 있는 「言論自律淨化決定事項」을 再確認함과 同時 責任言論의 風土改善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傾注할 것이며, 雜誌言論人으로서의 矜持를 드높여 總力安保隊列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1975. 6. 9.

社団法人 韓國雜誌協會

月刊 「建築士」